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격 조사 교육 연구

- ‘에, 에서, (으)로’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딴 다 죠

(Thanda Kyaw)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격 조사 교육 연구

-'에, 에서, (으)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구본관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딴다죠

딴다죠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교착어로서 문법적으로 유사한 점을 지녀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에 접근이 쉬운 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 사용 시 잦은 오류를 범하는데 특히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사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조사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 주요 의미만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며 중급 이후에는 복잡하거나 제약이 많은 새로운 조사 형식들로만 학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조사 '에, 에서, (으)로'는 한국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제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요소이지만 한 가지 형태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복잡성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또한, 비원어민 교사들도 왜 거기서 그 조사를 썼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조사를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미로 조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언어의 문법 규칙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고려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에서 교육한다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 조사 사용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선행 연구,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에, 에서, (으)로’의 조사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한국어 조사의 개념과 분류를 미얀마어의 조사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혔다. 그리고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 줄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기초한 주요 이론인 원형 의미(prototype meaning), 원형 장면(proto-scene), 동기화(motivation), 의미망(semantic networks) 등을 통하여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혔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0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 등 세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테스트에서는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의 조사 오류 양상 및 원인을 테스트별, 숙달도별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테스트별, 숙달도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조사의 다양한 기능 즉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이해하고 조사를 사용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 인지적 접근법을 적용한 조사 교육 방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 직관에 대한 교육은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장면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먼저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조사의 원형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육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재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들이 원형 의미에서 확장 의미로 이어지도록 의미들 사이의 연결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연습 활동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조사 ‘에, 에서, (으)로’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미얀마 내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규칙과 예외만을 가르치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극복하고 한국어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조사, 한국어 교육, 인지언어학적 관점, 원형 의미, 확장 의미,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학 번 : 2017-38807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2.1.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인지언어학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 ·· 5

2.2. ‘에, 에서, (으)로’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 8

3. 연구 대상 및 절차 ····· 10

II. 미얀마인 대상 격조사 교육을 위한 이론적 논의 · 14

1.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분류와 두 언어의 대조 ····· 14

1.1.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 14

1.1.1. 한국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 14

1.1.2. 미얀마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 17

1.2.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 27

2.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의 의미관 ····· 30

2.1. 원형 의미 ····· 30

2.2. 동기화와 의미망 ····· 31

3.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 32

3.1.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 32

3.1.1. 원형 의미 ····· 32

3.1.2. 확장 의미 ····· 44

3.2. 처소 관련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 54

3.2.1. 원형 의미 ····· 54

3.2.2. 확장 의미 ····· 61

3.3.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 65

3.3.1. 원형 의미 대조 ····· 65

3.3.2. 확장 의미 대조 ····· 66

III.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71

1.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의 설계 ····· 71

1.1. 설문 조사의 설계 및 절차 ····· 71

1.2. 기초 설문 및 한국어 인식 조사 ····· 74

2.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81

2.1. '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82

2.1.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82

2.1.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93

2.2. '에서'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106

2.2.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106

2.2.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115

2.3. '(으)로'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 125

2.3.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125

2.3.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 133

3. '에, 에서, (으)로' 사용의 오류 원인 분석 ····· 146

3.1. 언어 간 전이 오류 ····· 146

3.2. 언어 내 전이 오류 ····· 150

3.3. 교육과정에 따른 오류 ····· 152

4. 소결론 ····· 154

IV.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 조사 '에,에서, (으)로'의 교육 실제 ····· 158

1.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 ····· 158

2.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내용 ····· 160

2.1. 원형 의미 그룹 ····· 160

2.2. 확장 의미 그룹 ····· 161
3.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방법 ····· 165
3.1. 전통적인 문법 제시 방법 ····· 165
3.2. 인지언어학적 과점에 따른 문법 제시 방법 ····· 165
4.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에, 에서, (으)로' 교육의 실제 · 168
4.1. 초급 학습자를 위한 수업 절차 ····· 170
4.2.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수업 절차 ····· 177

V. 결론 ····· 180

참고문헌 ····· 182
부록 ····· 188
Abstract ····· 197

<표 차례>

<표 Ⅱ-1> 한국어의 조사 분류 ····· 15

<표 Ⅱ-2> 한국어의 격 조사 종류 ····· 16

<표 Ⅱ-3> 미얀마어의 조사 분류 ····· 20

<표 Ⅱ-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대조 ····· 29

<표 Ⅱ-5>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대조 ····· 70

<표 Ⅲ-1> 미얀마인 학습자 대상 격 조사 교육 연구 도구 ····· 72

<표 Ⅲ-2> 분석 단계 ····· 73

<표 Ⅲ-3>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83

<표 Ⅲ-4>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85

<표 Ⅲ-5>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86

<표 Ⅲ-6>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88

<표 Ⅲ-7>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89

<표 Ⅲ-8>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91

<표 Ⅲ-9>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96

<표 Ⅲ-10>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99

<표 Ⅲ-11>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03

<표 Ⅲ-12>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08

<표 Ⅲ-13>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08

<표 Ⅲ-14>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10
<표 Ⅲ-15>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11
<표 Ⅲ-16>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13
<표 Ⅲ-17>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14
<표 Ⅲ-18>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18
<표 Ⅲ-19>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21
<표 Ⅲ-20>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24
<표 Ⅲ-21>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26
<표 Ⅲ-22>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27
<표 Ⅲ-23>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28
<표 Ⅲ-24>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29
<표 Ⅲ-25>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30
<표 Ⅲ-26>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 132
<표 Ⅲ-27>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35
<표 Ⅲ-28>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38
<표 Ⅲ-29>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별 조사 사용 오류 비율 ····· 141
<표 Ⅲ-30>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문법성 판단 테스트) ····· 143
<표 Ⅲ-31>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오류 수정 테스트) ····· 144
<표 Ⅲ-32>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번역 테스트) ····· 145
<표 Ⅲ-33>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에, 에서, (으)로’의 의미 ····· 153
<표 Ⅳ-1>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 ····· 159

<표 Ⅳ-2> ‘에, 에서, (으)로’의 교재 문법 설명 ····· 160

<표 Ⅳ-3> ‘에’의 교재 문법 설명 ····· 161

<표 Ⅳ-4> ‘에서’의 교재 문법 설명 ····· 163

<표 Ⅳ-5> ‘(으)로’의 교재 문법 설명 ····· 164

<표 Ⅳ-6> ‘에’와 ‘에서’의 교수·학습 단계 ····· 169

<그림 차례>

<그림 Ⅱ-1> ‘에’의 원형 장면 ····· 33
<그림 Ⅱ-2> ‘에’의 영상 도식 ····· 34
<그림 Ⅱ-3> ‘에’의 원형 장면 ····· 34
<그림 Ⅱ-4> ‘에’의 원형 장면 ····· 35
<그림 Ⅱ-5> ‘에서’의 원형 장면 ····· 36
<그림 Ⅱ-6> ‘에서’의 원형 장면 ····· 36
<그림 Ⅱ-7> ‘에서’의 원형 장면 ····· 37
<그림 Ⅱ-8> ‘에서’의 원형 장면 ····· 37
<그림 Ⅱ-9> 이동의 접촉 영역 장면 ····· 38
<그림 Ⅱ-10> 이동의 도달점 장면 ····· 39
<그림 Ⅱ-11> ‘에’의 동적 접촉 도식 ····· 39
<그림 Ⅱ-12> ‘에’의 방향, 도달점 장면 ····· 40
<그림 Ⅱ-13> ‘에서’의 출발점 장면 ····· 41
<그림 Ⅱ-14> ‘에서’의 영상 도식 ····· 41
<그림 Ⅱ-15> ‘에서’의 출발점 ····· 42
<그림 Ⅱ-16> ‘(으)로’의 경로 도식 ····· 43
<그림 Ⅱ-17> 이동의 지향점과 경로 ····· 43
<그림 Ⅱ-18> ‘(으)로’의 지향점과 경로 ····· 44

<그림 Ⅱ-19> '에'의 확장 의미 장면 ····· 46

<그림 Ⅱ-20> '에'의 확장 의미 장면 ····· 47

<그림 Ⅱ-21> '에'의 확장 의미 장면 ····· 48

<그림 Ⅱ-22> '에'의 확장 의미 장면 ····· 49

<그림 Ⅱ-23> '에' 의 의미 도식 ····· 49

<그림 Ⅱ-24> '에서'의 의미 도식 ····· 51

<그림 Ⅱ-25> '(으)로'의 의미망 ····· 52

<그림 Ⅱ-26> '(으)로'의 의미망 ····· 53

<그림 Ⅱ-27> '(으)로'의 의미 도식 ····· 53

<그림 Ⅱ-28> 존재지 ၌ /hnaiʔ/, မှာ/hmɑ/의 영상 도식 ····· 56

<그림 Ⅱ-29> 행위지 တွင်/dwin/, ယ/wɛ/, က/ká/의 영상 도식 ····· 56

<그림 Ⅱ-30> 출발점 မှ/hmá/, က/ká/의 영상 도식 ····· 57

<그림 Ⅱ-31> 방향 သို့/ðó/의 영상 도식 ····· 58

<그림 Ⅱ-32> 도달점, 한계점 အ ထိ/ətʰi/, ထိ/tʰi/, တိုင်အောင်/tain.aun/의 영상 도식 ····· 59

<그림 Ⅱ-33> 도구 ဖြင့်/pʰyin/, နှင့်/hnin/의 영상 도식 ····· 60

<그림 Ⅱ-34>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 장면 ····· 61

<그림 Ⅱ-35>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장면 ····· 64

<그림 Ⅲ-1> 학습자 수 분포 ····· 75

<그림 Ⅲ-2> 전체 응답자 성별 분포 ····· 75

<그림 Ⅲ-3> 능력 시험 소지자 분포 ····· 76

<그림 Ⅲ-4> 어려운 기능 항목 ····· 77

<그림 Ⅲ-5> 어려운 조사 항목 ····· 77

<그림 Ⅲ-6> 어려운 격 조사 항목 ····· 78

<그림 Ⅲ-7> 선호하는 학습 방법 분포 ····· 79

<그림 Ⅲ-8> 선호하는 언어 분포 ····· 79

<그림 Ⅲ-9> 선호하는 설명법 분포 ····· 80

<그림 Ⅲ-10> 모국어의 영향 분포 ····· 81

<그림 Ⅳ-1> '에'의 삽화 ····· 166

<그림 Ⅳ-2> '에'의 삽화 ····· 166

<그림 Ⅳ-3> '에'의 삽화 ····· 166

<그림 Ⅳ-4> '에서'의 삽화 ····· 167

<그림 Ⅳ-5> '에서'의 삽화 ····· 167

<그림 Ⅳ-6> '(으)로'의 삽화 ····· 167

<그림 Ⅳ-7> '(으)로'의 삽화 ····· 167

<그림 Ⅳ-8> '(으)로'의 삽화 ····· 167

<그림 Ⅳ-9> '(으)로'의 삽화 ····· 16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조사와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의 의미를 대조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들 중에서 다의적 의미를 나타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조사 학습에 어려워하는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오류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조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박동호, 2007:170).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중요하다. 브라운(Brown, 1994)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적 교수에 있어서 문법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함께 유창한 의사소통 및 한국어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고 한다(임지룡 외, 2010). 이에 따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일차적인 목표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에 있으며,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문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초기에 먼저 접하게 되는 문법 중 하나는 조사이다. 조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핵심적이다. 초급 과정부터 공부해 온 조사는 고급 과정에 이르러서도 모어 화자처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조사 중 '에'와 '에서'는 둘 다 장소의 의미를 지니는데 미얀마인 학습자는 어떤 경우에 '에'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조사 '에'와 '에서'는 뒤에 나타나는 서술어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데 외국인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국어 학습자의 경우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형태를 언어 직관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누구나 모국어와 비교하면서 학습을 한다. 그러므로 목표어가 모국어와 비슷할 때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반면에 목표어가 모국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를 때에는 학습자들은 목표어의 의미나 규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인 학습자들도 동일한 오류를 범한다. 계통적으로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교착어이고 미얀마어는 시노-티베트 어족에 속한다. 물론 어족이 달라도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SOV)인 것처럼 미얀마어의 어순도 한국어와 같다. 어순이 같고 조사 사용이 발달한 것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미얀마어에 있는 조사 'ဟာ/hma/'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곳을 나타낼 때 쓰이며, 그 외 그 장소에서 행동이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이는 대응되는 한국어 조사와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모국어에 있는 조사의 다양한 용법의 영향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목표어인 한국어를 학습할 때 헷갈려하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조사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상당히 어렵고 사용에서도 학습자들은 오류를 많이 일으킨다. 딴다린(Thandar Linn, 2017)에 따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수준과 관계없이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류 중에서 조사 오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특히 격 조사 중 '에, 에, (으)로'는 서로 공통된 다양한 의미로 인해 학습자들이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교재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

어 교재를 살펴보면 조사에 대한 설명은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초급 단계에는 장소를 뜻하는 '에[1]'의 문법 설명은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 person or thing. It is used with '있다, 없다', etc."로, '에[2]'는 '시간'의 의미만 제시하고 있다(연세 한국어 1, 2007:55). 한국어 교재의 중·고급 단계에서는 조사 자체보다 조사가 포함된 덩어리 형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조사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초급 단계에서 조사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고, 중·고급 단계에서는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까지 이르러서도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체계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조사의 교수·학습이 규칙과 예외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경우 그 조사를 왜 사용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혼란스러워한다. 구본관(2012:299)에서는 조사 '에, 에서, (으)로'와 같은 다양한 용법들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조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암기가 아닌 인지적인 교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 있어 대부분 학습자의 연령은 거의 성인이며, 그 학습자들은 교실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인지력(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김유정, 1998:22).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인지가 발달한 성인 학습자들은 외국어의 구조를 제시할 때 자신의 인지 능력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예외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언어 직관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보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방안과 수업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언어의 이해와 사용이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접근법이

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의 작용이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신체화'된 경험을 중시한다. 즉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실재'의 본질은 우리의 신체에 의존한다. 임지룡(2020:15)에서 인지적 접근법이란 인지 언어학과 같은 뜻으로 언어의 이해와 사용이 '지각, 개념 체계, 신체적 경험, 세상사의 경험,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의 일반적 인지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지적하면서 등장하였다고 한다. 인지적 접근법을 적용한 조사 교육은 기존의 문법 설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홍고은(2017:25)에 따르면 인지적 접근법은 언어 자체의 규칙보다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과 이유를 탐구하며, 원형 의미와 원형 장면, 동기화와 의미망 이론은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이론들로 교육적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조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조사 사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혹은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밖의 언어권 학습자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대조 분석 또는 양 언어 간 대응, 오류 분석을 다루었다. 맛띠다우(Myat Thida Oo, 2016), 미에 미에 머(Myint Myint Maw(2017), 딴다린(Thandar Linn, 2017), 쵸쵸뚜(Chaw Chaw Thu, 2019). 그중에서도 특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 교육 연구는 그 사용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동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조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어의 격 조사 중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의미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특징을 미얀마어의 해당 조사와 비교할 때,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해 설계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에, 에서, (으)로'의 사용 빈도 및 오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분석한 양상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안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으나 한국어 교육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미얀마인 대상 연구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2.1.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선행 연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어 조사에 관련 연구 대부분이 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으며, 이들은 조사의 다의적 의미와 관계 의미에 관련 내용이었다. 정병철(2010ㄱ)에서는 인지 문법과 시뮬레이션 의미론의 관점에서 조사 '에'의 의미망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구문의 상호 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에'의 기본 의미는 이동에 의한 접촉 영역으로, 확장 의미는 이동이 완료된 후의 접촉 영역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조사의 교육 문제는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형과 작업을 통해 실제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초로 조사 '에'의 체계적 다의성과 구문과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박정운(1999), 정병철(2010ㄴ) 등의 연구들은 조사 '(으)로'에 관한 연구들이다. 박정운(1999)에서는 '(으)로'를 접사로 판단하였으며 도구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경로'의 의미를 '방향·지향점·경로'로 정교화하였다. 그리고 공간 영역의 경로, 상태 영역의 변화, 시간 영역의 경로, 행위 영역 도구로의 확장이 은유를 통해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적인 요소인 '(으)로'도 어휘적 요소들에서 보이는 다의어 구조와 같은 다의어 구조로 되어있음을 밝혔다. 정병철(2010ㄴ)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여 의미의 사용 빈도와 관계를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보여 주었다. '(으)로'의 9가지 의미는 수단·도구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수진(2011)에서도 조사 '(으)로'의 문법 정보를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동 과정을 출발점→경로→도달점으로 도식화하였다.

정수진(2011)에서는 신체적 공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영상 도식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비공간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을 검토하였다. 용기의 영상 도식은 사건이나 상태로, 경로의 영상 도식은 시간이나 상태의 변화 등의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며, 경계는 제한된 일정한 범위, 변화로 확장된다고 제시하였다.

조재형(2014)에서는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에'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비어 있지 않은 '표면'의 기본 의미 즉 [+surface, -empty, -movement]로, '에서'는 공간성을 가진 비어 있는 것 즉 [-surface, +empty, + movement]로 기본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를 인간의 인지 속에서 '위치와 공간'으로 보았다.

맹경흠(2016)에서는 한국어 사전에 기술된 '에'의 첫 번째 의미 해석을 참고하여 '에'의 원형 의미와 다양한 확장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에’의 원형 의미를 ‘처소·장소’라는 공간적 접촉(spatial contact)으로 보았으며, 접촉 관계를 다시 표면 접촉, 부착 접촉, 포함 접촉, 인접 접촉, 동적 접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다음으로 ‘에’의 은유적 확장 의미를 ‘상하 도식’(기준·단위, 도구·수단, 첨가·나열) ‘그릇 도식’(범위, 원인, 시간[1], 상황·환경), ‘주변 도식’(관련, 비교·비유), ‘경로 도식’(대상, 자격, 시간[2]) 등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형 의미는 다양한 확장 의미들과 더불어 의미 연쇄의 작용으로 방사상 의미 범주(radial meaning category)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홍고은(2018)에서는 모어 화자와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 인식 조사와 사용 빈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중·고급 학습자들은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와 교육용 의미망을 제안하였으며, ‘에’의 원형의 의미는 ‘닫힌 공간’, ‘에서’의 원형 의미는 ‘열린 공간’, ‘(으)로’는 ‘선택 공간’으로 기술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삽화를 문법 설명 매개체로 활용하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었다.

최예빈(2018)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동 사건에 나타난 ‘에, 로, 를’에 대해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는 조사 ‘에’의 일차적 의미는 ‘소재’, ‘로’는 ‘방향’으로 파악하여 원형 장면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다양한 의미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형태 초점 교수법으로 영상 도식을 활용하여 조사 ‘에, 로, 를’의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계은진·김영주(2019)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인지 양상을 모어 화자와 6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 방법과 달리 자기조절 읽기 과제를 통해서 실시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연구에서는 두 집단을 비교하였는데 조사의 세부 의미 간의 관계를 6급 학습자도 인지 처리하기 어려운 용법이 있었으며 정확한 문법성 판단도 쉽지 않아, 결국에는 모어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제

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인지언어학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어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중 대상 학습자를 확인해 보면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있고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 연구에서 본바와 같이 조사 '에, 에서, (으)로'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의 복잡성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조사의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범주화', '언어적 동기화', '은유', '의미망' 등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의미 확장을 이해한다면 조사 학습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이해시키는데 설명력이 높은 인지언어학을 한국어 교수·학습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조사 사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2. '에, 에서, (으)로'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 영역의 선행 연구

한국어 교육학 영역의 선행 연구로는 양 언어의 조사를 비교한 연구, 조사 오류 분석, 조사 습득, 조사 사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본고와 관계가 깊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야타나산다윈(2007)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 있는 격의 체계, 실현 방법, 기능, 용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혔다. 야타나산다윈(2007)에 따르면 한국어의 격 조사는 격 기능 외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얀마어의 격 조사는 격의 문법적 기능이 정해져 있고 한국어의 격 조사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지혜영(2014)에서는 미얀마인 이주 노동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으)로'의 용법별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에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해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한 조사별 정답률 순위는 '에게, 에서, 에, (으)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어 산출 과제를 통한 조사별 정답률은 '에게, 에, (으)로, 에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혜영(2014)에 따르면 오류에서는 대치 오류 양상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오류 발생의 원인은 모국어의 언어 표현과 언어 내 간섭이라고 한다.

박미형(2014)에서는 미얀마 한국어학과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제시하여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오류는 대치 오류였으며, 다음이 첨가, 누락의 순이었다. 대치 오류 중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서'와 '(으)로'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박미형(2014)에서는 이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으로 제시하였다. 첨가오류는 부사격 조사 '에'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 뒤에는 '에'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학습자들은 '에'를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누락의 경우 주격 조사 '이/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얀마어의 언어 습관에 의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캉 위에(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의미 기능의 특성과 선·후행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 기능이 있는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과 구체적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에, 에서, (으)로'의 다의적인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미 기능은 초급에서 학습한 기본 의미들이라는 것과 유사 의미에 대한 변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수미(2016)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으)로, 에게/한테(서)'의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일본인 학습자의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언어 간 전이로 발생한 오류가 많았으며,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층위별 대응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는 한국어 조사의 용법뿐만 아니라 특정

조사의 결합 용어에도 한국어와의 차이 때문에 인지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 언어권 학습자들은 조사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 즉 언어 간 전이 오류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대치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의 여러 의미 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도 여전히 조사의 다양한 의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언어 직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연구 대상 및 절차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세부 의미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미얀마어의 경우 조사 비교, 오류 분석 외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인지적언어학 관점에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의적 의미와 그들이 쓰임을 이해시키고, 조사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 및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의 다양한 의미 사용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오류 양상이 있는지,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를 고찰한 후 양 언어 간 조사의 대조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의 차이점은 한국어 학습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제가 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 '에, 에서, (으)로'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의 의미·형태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목표어와 모국어 인식 사이의 차이점은 외국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의 조사 '에, 에서, (으)로'와 관련된 학습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의 격 조사는 다양한 의미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초·중·고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의미 항목으로 한정할 것이다. 이를 대상으로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를 제시한 다음 설문지를 통해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오류가 발생하는지 미얀마어의 영향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대상 및 절차를 기술한다. 선행 연구 부분에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비교·대조 연구,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방안 연구들을 고찰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한국어에 있는 조사와 미얀마어에 있는 조사의 개념 및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양 언어의 조사를 대조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기초한 한국어 조사의 의미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조사와 미얀마어의 조사를 대조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하여 서술한다.

Ⅲ장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조사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 미·한 번역 테스트 문제로 이루어

진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험 도구별, 숙달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으로 '에, 에서, (으)로'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Ⅲ장에서 시행한 설문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IRB No: 2012/002-016)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2달간 미얀마인 한국어학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는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4학년 학생이며, 학년별로 50명씩 총 200명이었다. 설문 조사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오류 수정 테스트(Error Correction Test),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답안지를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의 교육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 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와 쓰임을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인지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에, 에서, (으)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Ⅴ장에서는 주된 논의를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밝힌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목차	분석 대상	분석 방법
Ⅱ장	한-미 조사 대조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개념 및 분류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대조	문헌 연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의 의미관	• 원형 의미 • 동기화와 의미망	문헌 연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 원형 의미 대조	문헌 연구

	서 보는 한-미 조사 대조	• 확장 의미 대조	
Ⅲ장	문법성 판단 테스트 분석	• 에 • 에서 • (으)로	테 스 트 형 설문지
	오류 수정 테스트 분석	• 에 • 에서 • (으)로	
	번역 테스트 분석	• 에 • 에서 • (으)로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분석	• 1~2학년 학습자 • 3학년 학습자 • 4학년 학습자	양적 연구 및 문헌 연구
	오류 원인 분석	• 언어 간 전이 • 언어 내 전이 • 교육과정의 원인	
Ⅳ장	조사 교육 목표	• '에, 에서, (으)로'의 교육의 목표	문헌 연구, 교재 분석
	조사 교육 내용	•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교육 내용	
	조사 교육 방법	• 전통적인 문법 제시 방법 •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문법 제시 방법	
	교육의 실제	•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 교육의 실제	

Ⅱ. 미얀마인 대상 격 조사 교육을 위한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개념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를 예측하고, 오류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을 찾는 데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Ⅱ장의 논의는 효과적인 조사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SOV 구조의 교착형 언어로서 통사론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문장을 구성할 때 미얀마어에 대응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언어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다. 특히 조사 사용에서 모국어의 전이로 인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체계를 검토하여 미얀마인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분류와 두 언어의 대조

1.1.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1.1.1. 한국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한국어에서 조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는다. 조사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 즉 체언(구, 절)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 정의된다(고영근·구본관, 2018:147).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그 기능에 따라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접속 조사로 구분한다(구본관 외, 2017:197).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한국어의 조사 분류

종류		형태
격 조사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한테(서), 께, (으)로, (으)로써, 보고 등
	호격 조사	아/야, (이)여
보조사		은/는, 만, 밖에, 뿐, 도,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등
접속 조사		과/와, 하고, (이)랑, 에(다가), (이)며

한국어의 격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격을 결정하여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 격 조사의 종류로는 선행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목적어로 기능하게 하는 목적격 조사,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는 관형격 조사,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부사격 조사, 독립어 중 누군가를 부르는 기능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와는 다르게 그 의미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사 '에, 에서, (으)로'는 학교 문법에 따라 격 조사로 처리되며 각 격 조사의 종류는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한국어의 격 조사 종류[1)]

한국어의 격 조사	
주격 조사	'이/가' 이것**이** 책이다.
	'께서' 선생님**께서** 오신다.
	'에서'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목적격 조사	'을/를' 에릭 씨는 한국말**을** 배운다.
보격 조사	'이/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관형격 조사	'의' 제주도**의** 경치가 아름답다.
서술격 조사	'이다' 이것은 매화**이다**.
부사격 조사	**'에'** 친구가 미국**에** 있다. 에릭 씨가 우체국**에** 간다. 아침**에** 운동을 한다. 사과 다섯 개**에** 만원이다.
	'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에릭 씨는 미국**에서** 왔다.
	'에게', '한테', '께'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한테** 책을 빌려주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보고' 유미 씨**보고** 같이 가자고 저해 주세요.
	'(으)로' 식당**으로** 갑시다. 저는 학교에 버스**로** 간다. 김치는 배추**로** 만든다. 회사 일**로** 왔다.
	'(으)로써' 국민들이 다 같이 땀 흘려 일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으)로서'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보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더 빠르다.
	'처럼'

1) 고영근·구본관(2018:149)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경치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만큼' 20세 후반에 한국**만큼**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다.
호격 조사	'아/야, (이)여' 철수**야**, 빨리 학교에 가자.

한국어의 조사를 <표 Ⅱ-2>처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사 '에, 에서, (으)로'는 한국어 학교 문법에 따라 격 조사로 처리된다. 학교 문법에서는 격 조사를 <표 Ⅱ-3>과 같이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 호격 등 7가지로 하위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2. 미얀마어 조사의 개념 및 분류

미얀마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SOV 구조의 언어로서 조사가 발달한 언어이다. 미얀마어에서는 조사를 'ဝိဘတ်/wi.baʔ/'(post-position)이라 한다. 학교 문법에는 'ဝိဘတ်/wi.baʔ/'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해 주는 구실을 하며,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의 시제와 문장 형태를 구분해 주는 구실을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Myanmar Grammar, 2005:69-73). 미얀마어 조사 'ဝိဘတ်/wi.baʔ/'의 사용을 다음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ယူမီသည်　　သွားသည်။
　　↓　　↓
　　yumi-**ɵi**　　thwaː-ði.
　　↓　　↓
　　주어　　서술어
　　↓　　↓
　　유미**가**　　간다.
(2) ယူမီသည်　　ကျောင်း　သို့　　သွားသည်။

↓ ↓ ↓

yumi-ɵi kyaun:-**ðò** thwa:-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학교**에** 간다.

(3) **ယူမီသည်** **အိမ်မှ** **ကျောင်းသို့** **သွား**သည်။

↓ ↓ ↓

yumi-ɵi ein-**hmá** kyaun:-ðò thwa:-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집**에서** 학교에 간다.

(4) **ယူမီသည်** **ရန်ကုန်တွင်** **နေသည်**။

↓ ↓ ↓

yumi-ɵi yangon-**twin** ne-**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양곤에서 **산다.**

예문 (1)에서 '**유미**'는 '가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어이다. 유미가 주어라는 것을 '**유미**'라는 명사 뒤에 붙여진 **'သည်/ɵi/'**가 보여 준다. 따라서 **'သည်/ɵi/'**는 주격 조사이다. 예문 (2)는 유미가 가는 곳이 **'학교'**이다. 유미가 향하여 가는 곳이 학교라는 것을 그 명사 뒤에 붙여진 **'သို့/ðò/'**가 보여 준다. 따라서 **'သို့/ðò/'**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예문 (3)은 유미가 출발하는 곳이 **'집'**이다. 유미가 출발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을 그 명사 뒤에 붙여진 '**မှ/hmá/**'가 보여 준다. 따라서 '**မှ/hmá/**'는 출발점을 나

타내는 조사이다. 예문 (4)의 경우 서술형인 'နေ/ne/'라는 동사 뒤에 결합한 'သည်/ði/'는 형태와 소리가 주격 조사와 같지만, 그는 앞에 결합한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미얀마어 조사(ဝိဘတ်/wi.baʔ/)는 명사 또는 동사와 어울려 그들 요소의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233), 『Myanmar Grammar』에서는 <표 Ⅱ-3>처럼 조사(ဝိဘတ်/nan wi.baʔ/)를 명사와 어울려 쓰는 'နာမ်ဝိဘတ်/nan wi.baʔ/', 동사와 어울려 쓰는 'ကြိယာဝိဘတ်/tɕiyi.ya wi.baʔ/'로 분류하였다.

<표 Ⅱ-3> 미얀마어의 조사 분류

구분		종류	형태
명사와 어울리는 조사	1	주격 조사	'သည်/ei/, က /ká/, မှာ/hmɑ/'
	2	목적격 조사	ကို/go/
	3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မှ/hmá/, က/ká/
	4	지향점을 나타내는 조사	သို့/ðó/
	5	도달하는 장소나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သို့/ðó/, ထိ/tʰi/, အထိ/ətʰi/, ထိအောင်/tʰi.aun/,တိုင်အောင်/tain.aun/
	6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ဖြင့်/pʰyin/, နှင့်/hnin/
	7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ကြောင့်/ʤáun/, ဖြင့်/pʰyin/
	8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အား/ɑ/
	9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10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11	소유격 조사	၏ /i/
	12	상황이나 사람, 정도에 따름을 나타내는 조사	အရ/əyɑ́/, အတိုင်း/ətain/, အလိုက်/əlaiʔ/
	13	공통격 조사	နှင့်/hnin/, နှင့် အတူ/hnin.ətu/, နှင့် တကွ/hnin.tɑgwɑ/
	14	다수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구별해 냄을 나타내는 조사	တွင်/dwin/, အနက်/ənɛʔ/, အထဲမှာ/tʰɛ́.hmɑ/ အထဲမှ/tʰɛ́.hmɑ́/
	15	무언가나 누군가를 위함을 나타내는 조사	ဖို့ /pʰó/, အဖို့/əpʰó/, အတွက်/ətwɛʔ/
	16	장소의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	တိုင်တိုင်/tain.tain/, တိုင်အောင်/tain.aun/
	17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	တိုင်တိုင်/tain.tain/, တိုင်အောင်/tain.aun/, ပတ်လုံး/paʔ.lòun/, လုံးလုံး/lòun.lòun/
동사와 어울리는 조사	18	앞에 결합한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조사	သည်/ði/, ၏/i/, ပြီ/pji/, မည်/mji/, လိမ့်မည်/lein.mji/, ဒဲ့/an./, လတ္တံ/latan./
	19	앞에 결합한 동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조사	လော့/lo./, စို့/sou./, ရအောင်/ja.aun/, ပါရစေ/paja.zei/, ပါစေ/pazei/, စေ/zei/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얀마어 조사(ဝိဘတ်/wi.baʔ/)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별해 주며, 동사 뒤에 붙어 그 동사의 시제와 문장 형태를 구분해 주는 구실을 한다. 본고에서는 명사와 어울려 쓰는 'နာမ်ဝိဘတ်/nɑn wi.baʔ/'중 연구 대상인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응되는 'နာမ်ဝိဘတ်/nɑn wi.baʔ/'를 다루기로 하였다.

(1) ထွက်ခွာရာပြဝိဘတ်/tʰweʔ.kʰwa.ya.pya wi.baʔ/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출발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မှ/hmá/, က/ká/'가 있으며, 'မှ/hmá/'는 문어적인 표현에 쓰이고 'က/ká/'는 구어적인 표현에 쓰인다.

(5) ယူမီသည် ရန်ကုန် **မှ** ပြန်လာသည်။ (yumi-ɵi yangon-**hmá** pyanla-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양곤**에서** 돌아왔다.

(2) ရှေးရှုရာပြဝိဘတ်/ɕè.ɕu.ya.pya wi.baʔ/ (지향점을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향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သို့** /ðò/'와 '**ကို**/go/' 가 있으며, 문어적인 표현에는 '**သို့** /ðò/', 구어적인 표현에는 '**ကို** /go/'가 쓰인다.

(6) မင်းစိုးသည် ကျောင်း **သို့** သွားသည်။ (min.soe-ɵi dzàuǹ-**ðò** thwa:-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민수가 학교**에** 간다.

(7) ဧရာဝ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addy.myiʔ-ɵi myauʔ.bɛʔ-hmá taun.bɛʔ-**ðó** sisin-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u>으로</u> 흐른다.

(3) ဆိုက်ရောက်ရာပြဂိဘတ်/sʰai.yau?.ya.pya wi.ba?/ (도달하는 장소나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도달하는 장소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သို့**/ðò/,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 등이 있다. 도달하는 장소나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문어적인 표현에는 '**သို့**/ðò/', 구어적인 표현에는 '**ကို/go/**'가 쓰인다.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문어적인 표현에는 '**အ ထိ**/ə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가 쓰이고, 구어적인 표현에는 '**ထိ**/tʰi/'가 쓰인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ကို/go/**'는 생략할 수 있지만,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ထိ**/tʰi/'는 생략할 수 없다.

(8) ညနေ ၅ နာရီတွင် အိမ် **သို့** ပြန်ရောက်သည်။

ɲáne ŋà nayi-dwin ein-<u>**ðó**</u> pyan.yau?-ði.

↓ ↓

부사어 서술어

↓ ↓

오후 5시에 집<u>**에**</u> 도착했다.

(9) သန်းခေါင်ယံ**သို့** ရောက်ပြီ။

ðagaun.yan-<u>**ðó**</u> yau?-bi.

↓ ↓

보어 서술어

↓ ↓

자정<u>**이**</u> 된다.

(10) ရန်ကုန်မှ နေပြည်တော်(**အ**) **ထိ** ရထားဖြင့် သွားနိုင်သည်။

yangon-hmɑ ne.pyi.dɔ̀ (ə) **tʰi** yətʰà θwà.nɑin-ði.

↓ ↓

부사어 서술어

↓ ↓

양곤에서 네삐더**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

(11) **မင်းစိုးသည်** **ည ဂုနာရီမှ ၁နာရီ**အထိ **/ထိအောင် /တိုင်အောင်** **စာဖတ်သည်။**

min.soe-θi ɲá 7 nɑyi-hmɑ ɲá 1 nɑyi **ətʰi/tʰi.ɑun/tɑin.ɑun** sɑ.pʰɑʔ-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민수는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한다.

(4) အသုံးခံပြဂိဘတ်/əθòun.gɑn.pyɑ wi.bɑ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도구나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ဖြင့်** /pʰyin/, **နှင့်**/hnin/, **နဲ့**/nɛ́/'가 있다. 문어적인 표현에서는 '**ဖြင့်**/pʰyin/, **နှင့်** /hnin/'가,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နဲ့** /nɛ́/'가 쓰인다.

(12) **ခဲတံဖြင့်** **စာရေးသည်။**

kʰɛ̀.dɑn-**pʰyin** sɑ.yè-ði.

↓ ↓

부사어 서술어

↓ ↓

연필**로** 쓴다.

(13) **ယူမီသည်** **ကျောင်းသို့** **ကားနဲ့** **သွားသည်။**

yumi-θi kyɑunː-ðò cɑr-**nɛ́** θwɑː-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학교에 차<u>로</u> 간다.

(5) အကြောင်းပြဝိဘတ်/əʤàun.pyα wi.ba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태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u>ဖြင့်</u>/pʰyin/, <u>ကြောင့်</u>/ʤáun/'가 있다. 문어적인 표현에는 '<u>ဖြင့်</u>/pʰyin/'가 쓰이며,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u>ကြောင့်</u>/ʤáun/'가 쓰인다.

(14) သူသည် နှလုံးရောဂါ<u>ဖြင့်</u> ကွယ်လွန်သည်။

θu-θi hnə.lòun.yɔ̀gα-<u>**pʰyin**</u> kwɛ.lun-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그는 심장병<u>으로</u> 돌아가셨다.

(6) နေရာပြဝိဘတ် /neyα.pyα wi.baʔ/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

문장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hnaiʔ/, မှာ/hmα/, တွင်/dwin/, ဝယ်/wɛ/, ၏/ká/' 등이 있다. 조사 '၌/hnaiʔ/, မှာ/hmα/, တွင်/dwin/, ဝယ်/wɛ/, ၏/ká/'는 대상이 존재하는 위치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hnaiʔ/, တွင်/dwin/, ဝယ်/wɛ/'는 문어적인 표현, 'မှာ/hmα/, ၏/ká/'는 구어적인 표현에 쓰인다.

(15)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u>မှာ</u> ရှိသည်။

shwedagon-θi yangon myo.-<u>**hma**</u> ɛi-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 있다.

(16) ယူမီသည် နိုင်ငံခြားမှာ နေသည်။

yumi-ɵi nain.ʧai.dzà-**hmɑ** ne-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외국**에서** 산다.

(17) ကလေးများ ကစားကွင်းထဲ**တွင်** ကစားနေကြသည်။

kʰalè.myɑ` gəzà.gwin:hte-**dwin** gəzà.ne.ʧá-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7) အချိန်ပြဝိဘတ် /əʧʰein.pyɑ wi.baʔ/(시간을 나타내는 조사)

문장 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형태로는 '၌/hnɑiʔ/, မှာ/hmɑ/, တွင်/dwin/, ၎ယ်/wɛ/, က/ká/'등이 있다. 그중 '၌/hnɑiʔ/, တွင်/dwin/, ၎ယ်/wɛ/'는 문어적인 표현에 쓰인다. 구어적인 표현에는 'မှာ/hmɑ/, က/ká/'가 쓰이는데, 'မှာ/hmɑ/'는 미래형, 'က/ká/'는 과거형에 사용한다.

(18) ယူမီသည် မနက် ၆-နာရီ**တွင်** အိပ်ယာက နိုးသည်။

yumi-ɵi mənɛʔ 6 nɑyi **dwin** eiʔ.ya-ka nò-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19) အမေသည် ကြက်သားဟင်းကို မနေ့က ချက်သည်။

əme-θi tɕɛʔ.θɑ.hin-gɔ mənέ-**kɑ** tɕʰɛʔ-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어머니께서 닭고기를 어제(Ø) 만들었다.

(8) ခွဲထုတ်ရာပြဂိဘတ်/kʰwɛ̀.tʰouʔ.yɑ.pyɑ wi.baʔ/
(다수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구별해 냄을 나타내는 조사)

다수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구별해 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တွင်**/dwin/, **အနက်**/ənὲ/, **အထဲမှ**/ətʰέ-hmɑ/, **အထဲမှာ**/ətʰέ-hmά/' 등이 있다. 문어적인 표현에서는 '**တွင်**/dwin/, **အနက်**/ənὲ/, **အထဲမှ**/ətʰέ-hmɑ/'가 쓰이는데, '**အထဲမှာ**/ətʰέ-hmά/'는 모든 형식에서 쓰인다.

(20) ကျောက်မျက်ရတနာတို့**တွင်** စိန်သည် အမာဆုံးဖြစ်သည်။

tɕɑuʔ.myɛʔ.yɑdɑnà.tó-**dwin** sein-ði əmà.sòun.pʰyiʔ-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보석중**에(서)** 다이아몬이 제일 딱딱하다.

미얀마어의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ဂိဘတ်/wi.bɑʔ/)를 <표 Ⅱ-3>처럼 명사와 어울려 쓰는 '**နာမ်ဂိဘတ်**/nɑn wi.bɑʔ/', 동사와 어울려 쓰는 '**ကြိယာဂိဘတ်**/tɕiyi.yɑ wi.bɑʔ/'로 분류하였다. 미얀마어 조사 '**နာမ်ဂိဘတ်**/nɑn wi.bɑʔ/'의 하위분류 17 개중에서 한국어의 조사 '에, 에서, (으)로'와 대응되는 조사로서 출발점, 지향점, 도달하는 장소나 시간의 범위, 도구나 수단, 원인이나 이유, 처소, 시간, 다수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구별해 내는 조사 등의 8가지로 처리된다.

1.2.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교착어로서의 특징상 조사가 발달하였다는 유사점을 보였으나 많은 부분에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분류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조사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의 3가지로 분류한다. 반면에 미얀마어의 조사는 'နာမ်ဂိဘတ်/nan wi.baʔ/'와 'ကြိယာဂိဘတ်/ʧiyi.ya wi.baʔ/'의 2가지로 분류한다. 'နာမ်ဂိဘတ်/nan wi.baʔ/'는 한국어의 조사와 대응하며, 'ကြိယာဂိဘတ်/ʧiyi.ya wi. baʔ/'는 한국어의 어미와 대응한다. 따라서 미얀마어 조사는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둘째, 한국어의 격 조사는 기능에 따라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 호격 등의 7개로 하위분류한다. 반면에 미얀마어 'နာမ်ဂိဘတ်/nan wi.baʔ/'의 경우 주격, 목적격, 출발, 지향, 도달, 도구나 수단, 원인이나 이유, 대상, 처소, 시간, 관형격, 상황, 공통 격, 다수에서 구별해 냄, 무언가나 누군가를 위함, 자소의 지속, 시간의 지속 등 17개로 하위분류한다. 즉 한국어의 격 조사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미얀마어의 'နာမ်ဂိဘတ်/nan wi.baʔ/'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 조사만 유사하다. 미얀마 조사에서 부사격 조사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조사는 8개가 존재하다. 보격 조사와 호격 조사는 미얀마어에는 조사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보조사와 접속 조사는 품사 체계에 포함되지만, 조사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 중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낼 때는 조사 '에'를 사용하며,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를 나타낼 때는 조사 '에서'를 사용한다. 즉 문장 안에서 의미 해석에 따라 '에'와 '에서'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형태를 바꿔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반면에 미얀마어 조사 '၌/hnaiʔ/, မှာ/hma/, တွင်/dwin/, ဝယ်/wɛ/'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존재지'와 '행위지'의 의미를 구별 없이

그 동일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형태를 바꾸어 사용해도 문장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셋째,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의 형태적 차이이다. 한국어의 조사는 선행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형태가 존재하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라는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 '비'는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조사 '가'를 사용한다. 반면에, 미얀마어에서는 단어가 항상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형태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한국어 조사는 높임 표현, 단체와 같이 쓰이는 형태가 따로 존재하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뒤에 붙인 주격 조사는 '이' 대신 높임을 나타내는 '께서'이다. 반면에 미얀마어 조사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공대 명사, 단체 명사에 따라 조사의 형태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의미에 따른 형태 사용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로서 '에'와 '에서'가 있는데 조사 '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방향, 도착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조사 '에서'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출발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다. 즉 '에'라는 형태 하나가 '존재지, 방향, 도착지' 등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미얀마어의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는 모두 존재지, 행위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사 'မှ/hmá/, က/ká/'는 출발점, 조사 'သို့/ðò/'는 방향, 조사 'သို့/ðò/,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 တိုင်အောင်/tɑin.ɑun/'는 도달하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즉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 '에'는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다. 반면에 그와 대응되는 미얀마어의 조사 'သို့/ðò/,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 တိုင်အောင်/tɑin.ɑun/'는 '도달점'과 '도달 시간'의 의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이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대조

종류와 기능		한국어		미얀마어	
		형태		형태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높임)	-	သည်/ði/, မှာ/hma/	က/ká/
목적격 조사		을/를	-	ကို/go/	ကို/go/
관형격 조사		의	-	၏/i/	ရဲ့/yɛ́/
호격 조사		아/야, (이)여	-	-	-
부사격 조사	존재지	에	-	၌ / h n ɑ i ʔ / , တွင် /dwin/, ဝယ်/wɛ/	မှာ/hmɑ/, က/ká/
	행위지	에서	-		
	도착지	에	-	သို့/ðó/, ထိအောင် /tʰi.ɑun/, တိုင်အောင်/tain. aun/(도착지)	ကို/go/, ထိ/ətʰi/, အ ထိ/ətʰi/
				သို့/ðó/, ထိအောင် /tʰi.ɑun/, တိုင်အောင် /tain. aun/ (도착시간)	ထိ/ətʰi/, အ ထိ/ətʰi/
	출발점	에서	-	မှ/hmá/	က/ká/
	방향	에, (으)로	-	သို့/ðó/	ကို/go/
	시간	에	-	၌ / h n ɑ i ʔ / , တွင် /dwin/, ဝယ်/wɛ/	မှာ/hmɑ/, က/ká/
	대상(상대편에게)	에게, 께(높임)	한테, 더러, 보고	အား/à/	ကို/go/
	대상(상대편으로부터)	에게서, (으)로 부터	한테서	-	-
	자격이나 신분	(으)로, (으)로서	-	-	-
	자료,도구, 수단	(으)로, (으)로써	-	ဖြင့်/pʰyin/, နှင့်/hnin/	နဲ့/nɛ́/
	원인·이유	에, (으)로	-	ဖြင့်/pʰyin/	ကြောင့်/ʤáun/
보조사		은/는, 만, 밖에, 뿐, 도, 까지, 마저, 조차, 부터	-	-	-
접속 조사		과/와, 에(다가), (이)며	하고, (이)랑	နှင့်/hnin/, နှင့် အတူ/hnin.ətu/, နှင့် တကွ /hnin.tɑgwɑ/,	နဲ့/nɛ́/, နဲ့ တူ/nɛ́.ətu/
기타	다수에서 구별해 냄	-	-	တွင်/dwin/, အနက်/ənɛʔ/, အထဲမှ/tʰɛ́.hmá/	အ ထဲ မှာ/ətʰɛ́.hmɑ/
	무언가나 누군가를 위함	-	-	အဖို့/əpʰó/	ဖို့/pʰó/, အတွက်/ətwɛʔ/
	지속한 시간	-	-	တိုင်တိုင် /tain.tain/, ပတ်လုံး/pɑʔ.lòun/,	တ ိုင် အ ာ ဉ် /tain.aun/, လုံးလုံး /loun.lòun/

2.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조사의 의미관

본 연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 Ⅱ장에서 제시한 대조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교육적 적용에 있어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언어를 인간의 '인지'와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언어학적 접근법이다(임지룡, 2020: 14). 인지언어학의 설명에서는 언어가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인간 마음속의 개념적 조직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유한 방법을 강조하다(Evans & Green, 2006:111). 임지룡(2020)에서는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개념 체계, 지각, 신체화된 경험, 세상에 대한 지식, 문화적 배경 등 인지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언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2 언어학습과 교육을 흥분되는 설명이 가능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 조사 '에, 에서, (으)로'를 교육하는 데 적용해 보려고 한다.

2.1. 원형 의미

원형(prototype)이란 인간의 인지 중에서 범주화(categorization)할 때 작용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 즉 대표성을 갖는 원소성(member ship)을 말한다(조은숙, 2012). 원형(prototype)[2]은 한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가리킨다(임지

2) 랭거커(Langacker, 1987:416-419)에서는 한 단어의 여러 의미가 하나의 원형 의미와 연결되어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범주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원형'의 의미를 볼 수 있다. A가 한 범주에 속하고, 또 다른 구조 B를 범주화한다면, B는 같은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가장 분명한 범주화는 A가 B에 대한 도식이고, B가 A를 '정교화(elaborate)' 혹은 '실례화(instantiate)'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것을 A→B로 표시한다.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연합(association)'이나 유사성을 기반으로 같은 범주로 범주화될 때는 점선 화살표를 사용하여 A⇢B로 표시한다. 이때 A를 '원형(prototype)'이라 하고 B는 A로부터의 '확장(extension)'이라 부른다(임지룡·정병철, 2009:199에서 재인용).

룡, 1996:321). 원형 의미(prototypical meaning)에 대해 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임지룡(1997:239)에서는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 노금송(2010:37)에서는 '한 단어의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의미', 즉 어떤 단어를 제시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라고 하였다. 맹경흠(2016:330)에서는 '한 다의어의 원형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기술된 첫 번째 의미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본고의 원형 의미도 임지룡(1997), 노금송(2010), 맹경흠(2016)에 따라 '기본적 의미, 가정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 일차적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동기화와 의미망

동기화(motivation)는 인지언어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한가지로, 동기화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Haiman, 1980, 1985), '어떤 A와 어떤 B가 '말이 되는' 연결 관계(Lakoff, 1987:448), '구조와 의미 간의 비자의적 관계'(Hiraga, 1994:8),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어떤 특성 기능을 유도하는 의미 있는 것'(Heine, 1997:3), '언어 구조는 언어 내에서 다른 구조와 관련된 확장'으로 동기화된다(Taylor, 2004:57). 인지언어학에서 특정한 언어 표현이 주어진 상황을 개념화하는 특정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언어 표현의 구조는 인지의 직접적 반영이다. 따라서 언어의 구조와 의미는 인지적 필터를 통해 이해하고 '동기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정수진, 2011:82). 동기화는 언어의 구조와 의미가 자의적이기보다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련성을 동기화라고 한다. 동기화는 언어의 자의성과 대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인지적 작용과 언어의 구조화 사이에 맺어진 일정한 관련성을 말한다고 한다(홍고은, 2017:25). 인지적 접근법에서는 원형 의미가 동기화의 과정을 통해 확장되며, 확장 의미들은 연결망, 즉 의미망을 형성한다고 본다. Evans & Green(2006), 임지룡·김동환(2008:353)에 따르면 의미망은 원형 의미로부터 확

장된 것이며, 구분되는 의미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모형이라고 한다.

3.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3.1.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3.1.1. 원형 의미

본고에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를 임지룡(1993, 1995, 1996), 이기동(1981), 임지룡·정병철(2010), 조재형(2014), 맹경흠(2014), 정수진(2010,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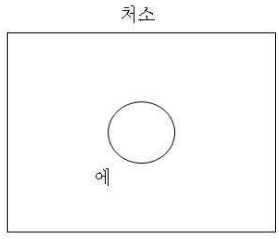
① 처소 관계의 '에'

조사 '에'의 의미를 사전[3] 에서 '처소'와 관련된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으며 '처소, 장소, 존재 위치'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에'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원형 의미, 동기화, 의미망 등에 주목한 정수진(2011), 맹경흠(2016), 조재형(2014) 등의 연구를 통해서 '에'의 원형 의미를 살펴보았다.

(1) 부모님은 집**에** 계신다.
(2) 지갑**에** 돈이 많습니다.
(3) 민수는 방**에** 있다.

3) 국립국어원(1995),『표준국어대사전』, 양명희(외, 2018),『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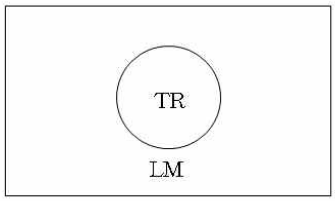
예문 (1~3)은 조사 ‘에’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 즉 사물이나 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위치해 있는 ‘소재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1)은 ‘부모님’이 구체적 장소 ‘집’과 맺고 있는 처소의 관계가 조사 ‘에’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대상이 지표와 관련하여 소재함을 나타낸다. 정수진(2011: 90)에서는 ‘에’를 기본적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대상 즉 지표(landmark)가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명시된다고 제시하며 ‘에’의 원형 의미를 소재지의 공간적 의미로 보고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 ‘에’의 원형 장면 (정수진, 2011:92)

예문 (2)에서 ‘돈’은 탄도체 역할을 하고, 지표인 ‘지갑’의 공간적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맹경흠(2016: 334)에서는 ‘에’의 의미를 공간적 접촉으로 보았으며, 여러 형태의 공간적 접촉 중에서도 포함 접촉(containing contact)이 원형 의미와 가깝다고 보았으며[4] ‘에’의 원형 의미를 다음 [그림 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4) 맹경흠(2016:330)에는 사전에 기술된 첫 번째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적 접촉(spatial contact)’으로 간주하였으며, ‘탄도체(trajector,TR)’와 ‘지표(landmark, LM)’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로 도식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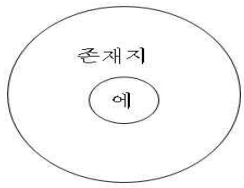


[그림 Ⅱ-2] ‘에’의 영상 도식: 포함 접촉 (맹경흠, 2016:338)

예문 (3)은 ‘방’이라는 공간에 대상인 ‘민수’가 존재할 때는 ‘방’을 표면적인 ‘위치’로 인식할 수 있다. 조재형(2014: 1039)에서는 ‘에’의 원형 의미를 ‘공간을 차지하지만, 속이 채워져 있어서 표면만을 점유할 수 있고, 안과 밖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 즉 공간성을 가진 비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그림 Ⅱ-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3] ‘에’의 원형 장면 (조재형, 2014:1039)

위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처소 관계인 조사 ‘에’의 원형 의미를 정리해 보면 ‘부모님, 돈, 민수’가 ‘집, 지갑, 방’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처소와 관련한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지’를 원형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4] '에'의 원형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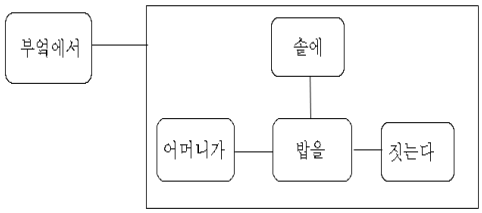
② 처소 관계의 '에서'

조사 '에서'의 의미는 사전들[5] 에서 '처소'와 관련된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으며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로 정리되어 있다.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를 이기동(1981), 정수진(2011), 조재형(2014)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4) 나무 위**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5)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6)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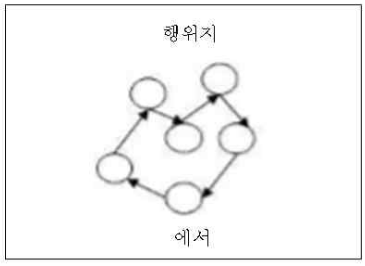
예문 (4~6)은 조사 '에서'의 '행위지'의 의미, 즉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4)는 '나무 위'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사건의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조사 '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지'의 공간적 의미로 추정할 수 있다. 이기동(1981: 28)에서는 '에서'의 원형 의미를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배경'으로 보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솥에 밥을 짓는다'라는 예문을 통해서 다음 [그림 Ⅱ-5]와 같이 제시하였다.

5) 국립국어원(1995),『표준국어대사전』, 양명희(외, 2018),『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그림 Ⅱ-5] '에서'의 원형 장면 (이기동, 1981:28)

예문 (5)는 '공부'의 행위가 구체적 장소 '도서관'과 맺고 있는 처소의 관계가 조사 '에서'를 통해 표현된다. 이처럼 조사 '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위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정수진(2011:92)에서는 '에서'의 원형 의미를 물리적 대상의 공간적 의미로 보았고 다음 [그림 Ⅱ-6]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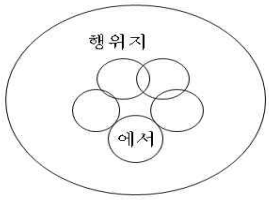


[그림 Ⅱ-6] '에서'의 원형 장면 (정수진, 2011:92)

예문 (6)은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축구'를 하는 움직임이 가능하는 것을 조사 '에서'를 통해 표현되며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행위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조재형(2014:1039)에서는 '에서'가 [-surface, +empty, +movement]라는 의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공간을 차지하고, 속이 비어 있어서 안과 밖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림 Ⅱ-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7] ‘에서’의 원형 장면 (조재형, 2014:1039)

위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처소 관계인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를 정리해 보면 ‘만남, 공부함, 축구를 함’이라는 행위들이 ‘학교 앞, 도서관, 운동장’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는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행위지’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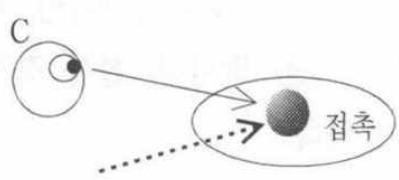
[그림 Ⅱ-8] ‘에서’의 원형 장면

③ 이동 관계의 ‘에’

‘이동’이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리적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의 위치가 지각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정의된다(임지룡, 1998: 181). 이동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 대상과 특정한 위치 관계를 맺는 대상이 지표이다. 지표는 ‘시작-중간-끝’으로 구성된 복잡 지표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의미 특성에 따라 도달점과 출발점, 지향점, 경로 등으로 세분화된다(정수진, 2010:154). 이동 관계 ‘에’의 원형 의미를 정수진(2010), 정병철(2010), 맹경흠(2016)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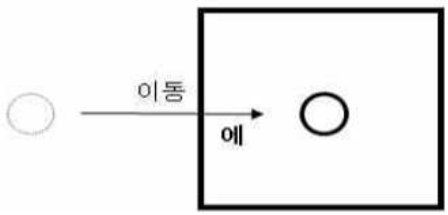
(7)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다.
(8)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가신다.
(9) 동생은 꽃나무**에** 물을 준다.

예문 (7~9)는 '에'의 '진행 방향', '도달점(목적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7)은 '어머니'의 움직임이 목표영역인 '시장'에 접촉하여 이동의 관계가 조사 '에'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조사 '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병철(2010ㄱ:285)에서는 '에'의 기본 의미는 이동에 따른 접촉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발생시키는 거울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다음 [그림 Ⅱ-9]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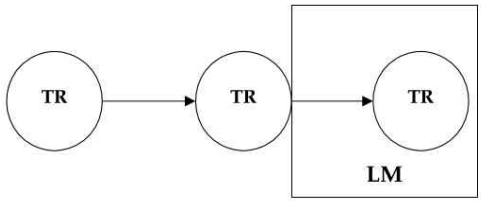
[그림 Ⅱ-9] 이동의 접촉 영역 장면 (정병철, 2010:285)

예문 (8)은 '선생님'의 움직임이 '교실'이라는 목적지에서 끝나는 이동의 관계가 조사 '에'를 통해 보여 준다. 따라서 '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동에 의한 도달점의 공간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정수진(2010:156)에서는 어떤 대상이 구체적인 장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동의 끝을 의미하며, 이동의 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동의 끝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포함된다고 제시하였다. 정수진(2010:156)은 물리적 대상이 이동의 목적이 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과 관련하여 '에'가 이동의 끝점인 '도달점'이라고 보았으며 다음 [그림 Ⅱ-10]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0] 이동의 도달점 장면 (정수진, 2010: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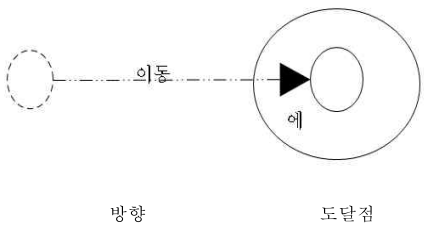
예문 (9)는 '물'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꽃나무'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며, 2차원 3차원 공간을 통과하여 목적지인 지표로 가까이 이동해 가는 것을 '에'를 통해 보여 준다. 따라서 조사 '에'의 기본 의미는 동적 접촉으로 볼 수 있다. 맹경흠(2016:342)에 따르면 탄도체가 이동하는 시작 단계는 출발점(source)에 해당하고 중간 단계는 경로(path)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완결 단계는 목적지(goal)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는 이동 관계 '에'의 원형 의미를 '동적 접촉'으로 보았으며 영상 도식으로 다음 [그림Ⅱ-1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1] '에'의 동적 접촉 도식 (맹경흠, 2016:342)

위에서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동 관계인 조사 '에'의 원형 의미를 정리해 보면 어머니가 목적지인 시장에 접촉하기 위한 이동의 방향,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곳, 동생이 물을 주는 곳, 즉 이동의 끝이다. 이동의 끝에 도달하기 위하여 '들어가다, 주다' 같은 행동, 즉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 관계인 '에'의 원형 의미는 목적지에 향해 가는 '방향'의 의미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목적에 도달한다는

‘도달점’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Ⅱ-1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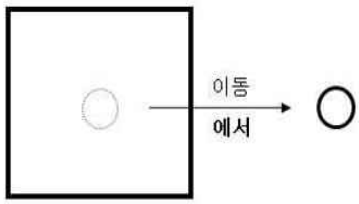
[그림 Ⅱ-12] ‘에’의 방향, 도달점 장면

④ 이동 관계의 ‘에서’

조사 ‘에서’의 장소와 관련된 의미 중에서 이동 관계 ‘에서’의 원형 의미를 정수진(2010), 조재형(2014),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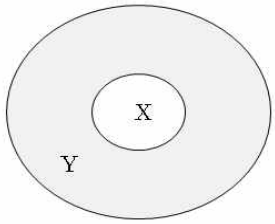
(10) 지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11)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요?

예문 (10~11)은 조사 ‘에서’의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10)에서는 ‘화자’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장소인 ‘학교’에서 시작되는 이동의 관계를 조사 ‘에서’를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에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수진(2010:159)에서는 물리적 대상이 이동의 목적이 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과 관련하여 조사 ‘에서’는 이동의 출발점을 나타낸다고 보였으며 다음 [그림 Ⅱ-13]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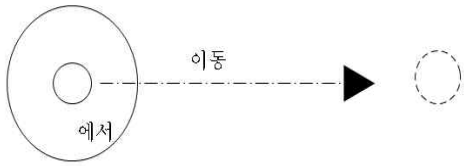
[그림 Ⅱ-13] ‘에서’의 출발점 장면 (정수진, 2010:160)

예문(11)도 ‘화자’의 출발점이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하는 이동의 관계가 ‘에서’를 통해 보여 준다. 따라서 조사 ‘에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조재형(2014:1034)에서는 이기동(1981:31)의 연구를 바탕으로 ‘에서’의 기본 의미는 ‘동작의 출발점’으로 보였다. ‘에’의 의미에 모습 X가 바탕 Y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그림 Ⅱ-1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4] ‘에서’의 의미 도식 (조재형, 2014:1034)

위에서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동 관계인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를 정리해 보면 물리적 대상이 구체적인 장소, 즉 ‘학교, 집’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이나 출발’, 즉 ‘출발점’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1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15] '에서'의 출발점

⑤ 이동 관계의 '(으)로'

조사 '(으)로'도 사전에서 '처소(방향)'의 의미가 제일 먼저 제시되었다. 이동 관계의 '(으)로'의 원형 의미를 박정운(1999), 정수진(2011)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12) 민수는 부산**으로** 갔다.
(13) 민수가 총을 위**로** 쏘았다.
(14) 버스는 버스 전용 도로**로** 다닌다(박정운, 1999:409-410).
(15) 민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운동장**으로** 갔다.
(16) 이쪽**으로** 가면 사무실이 나와요.

예문 (12, 13, 15)는 '방향'의 의미, 예문 (14, 16)은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12)에는 민수가 이동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해 가는 경로(방향), (13)도 '총'이 향해 가는 '위'는 경로(지향점), (14)는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는 경로의 의미가 '(으)로'를 통해 나타낸다. 박정운(1999)에서는[6] '(으)로'의 의미를 공간 영역의 경로(방향, 지향점,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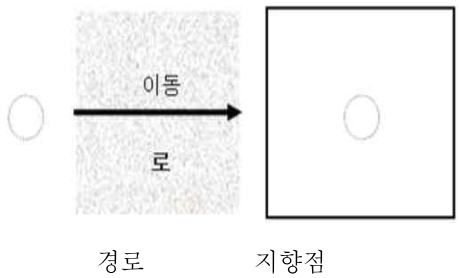
6) 박정운(1999:408)에서는 '로'를 접사로 보았으며, 다의어 구조인 '로'를 '사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험은 공간 경험의 예 중 하나라고 하였다. 공간 경험에 내재된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는 공간상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path)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Johnson, 1987:113-117).

로)로 보았으며 다음 [그림 Ⅱ-1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6] '(으)로'의 경로 도식 (박정운, 1999:409)

예문 (15)는 이동 대상인 '민수'가 도달점인 '운동장'으로 향해 가는 '이동 방향'의 의미이다. 예문 (16)은 이동 대상이 출발점에서 도달점 '사무실'로 이동하는 데 직접 거쳐 가는 공간 '이쪽'이 조사 '로'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로'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지향점과 경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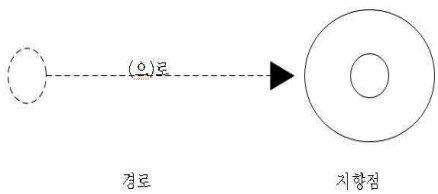
정수진(2010:163)에서는 '(으)로'는 이동 대상의 이동 경로로 '출발점→ 통로→ 도달점'으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이동의 중간 과정인 '통로'는 일정한 '방향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하였으며, 다음 [그림 Ⅱ-1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7] 이동의 지향점과 경로 (정수진, 2010:163)

위에서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동 관계인 조사 '(으)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동 대상이 '부산, 운동장, 위'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지

향점, 즉 방향,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도로, 이쪽'을 지나가는 통로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지향점)의 의미로, 어떤 목적에 나아가는 데 지나가는 공간 즉 '경로'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1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18] '(으)로'의 지향점과 경로

3.1.2. 확장 의미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의적 쓰임과 의미 기능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박정운(1999), 정수진(2010), 정병철(2010ㄴ), 맹경흠(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① '에'

앞에서 제시한 조사 '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처소와 관련된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의 존재 위치나 지향점, 출발점, 도달점, 경로 등의 의미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다의적 확장 양상을 언어적 동기화, 은유, 의미망 등에 주목한 정병철(2010), 정수진(2011), 맹경흠(2016) 등의 흐름을 바탕으로 '에'의 확장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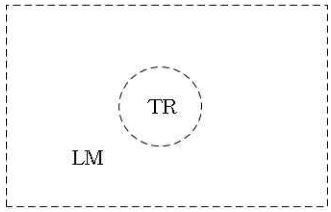
(17) 고산 식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8)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19) 그의 행동은 예의**에** 어긋난다.
(20)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예문 (17)은 '범위'의 의미, (18)은 '환경'의 의미, (19)는 '기준이 되는 대상'의 의미, (20)은 '시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17)은 '식물'이 조사 '에'를 통해 범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수진(2010)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머물러 있는 구체적인 장소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경계는 처소 관계에 있는 대상의 기능이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조사 '에'의 공간적 의미가 제한된 범위라는 추상적 의미로 확장된다고 보였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는 대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을 이루어 그 환경은 대상의 속성을 판단하는 조건이나 기준의 의미로 확장된다. 따라서 예문 (18)의 '생각'은 '결정'의 환경이 되며, 예문 (19)의 '예의'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또한, 예문 (20)에서는 '6시'의 시간과 '일어남'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처럼 시간은 일정한 경계를 갖는 공간으로 개념화되며, 조사 '에'도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수진(2010)은 조사 '에'의 의미는 '구체적 장소(소재지)에서 범위, 상황, 기준, 시간'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맹경흠(2016)[7]에서는 조사 '에'는 탄도체와 지표 간이 표현 접촉을 나타내는 공간적 의미에서 나아가 추상적인 '기준·단위', '그릇 도식 은유'의 작용으로 '범위, 원인, 시간$_1$, 상황·환경'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 의미는 정수진(2010)에서 제시한 것과 같으며, [그림 Ⅱ-19]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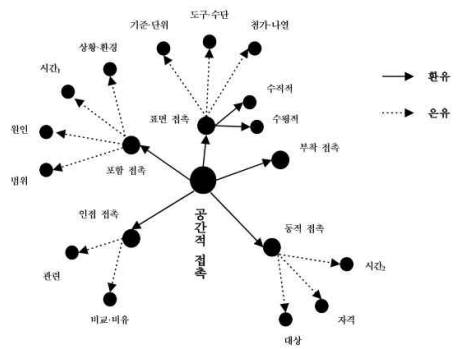
7) 맹경흠(2016:362)에서는 '에'의 의미 범주를 구성하는 모든 의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공간적 접촉'을 꼽았으며, '공간적 접촉'은 원형 의미가 되어 이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펼쳐진다고 하였다. '에'의 덜 원형적인 의미가 원형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9] '그릇 도식'에 의한
'에'의 확장 의미 장면 (맹경흠, 2016:350)

(21) 이 약은 소화**에** 좋다.
(22) 예전에는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23) 옷이 비**에** 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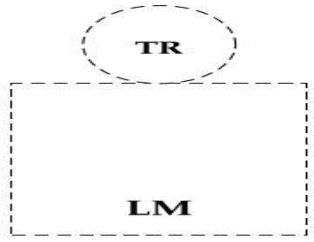
예문 (21)은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 (22)는 '수단'의 의미, (23)은 '원인'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정수진(2010)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장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동의 끝을 의미하는데, 그 이동의 끝에 이루기까지 과정(→)과 이동의 끝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포함된다. 즉 도달점은 '실현 목적과 방법'의 의미가 포함하는데, '실현 목적'은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실현 방법'은 행동의 수단이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조사 '에'의 공간적 의미는 목적, 기준, 방법, 이유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문 (21)은 '소화'가 목적이 되고, 예문 (22)의



‘등잔불’은 ‘수단’이 되며, 예문 (23)의 ‘비’는 ‘원인’의 의미가 조사 ‘에’를 통해 확장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24) 나는 하루**에** 두번씩 세수를 한다.
(25) 솜옷**에** 털외투까지 입었다.

예문 (24)는 ‘단위’의 의미, (25)는 ‘더하여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맹경흠(2016)에서는 공간적 접촉은 일차적으로 환유의 과정, 즉 ‘영상 도식 변환(transformation of image schema)’을 통하며, 이차적으로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의미가 세부적으로 확장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에’의 다양한 추상적 의미는 공간화 은유, 즉 ‘상하 도식, 그릇 도식, 주변 도식, 경로 도식’ 등 영상 도식(image schema)[8] 은유로 원형 의미에서 비 공간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문 (24)에서 지표인 ‘하루’는 탄도체인 ‘세수’를 세는 수량의 ‘단위’이다. 예문 (25)에서 지표인 ‘솜옷’ 위에 탄도체인 ‘털외투’가 접촉하여 쌓여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조사 ‘에’는 ‘상하 도식’에 의해 ‘기준, 단위, 도구, 수단, 첨가, 나열’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20]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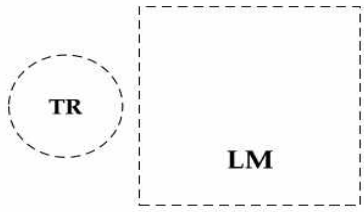


[그림 Ⅱ-20] ‘상하 도식’에 의한
‘에’의 확장 의미 장면 (맹경흠, 2016:346)

8) 영상 도식(image schema)이란 우리의 지각과 언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를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원리로서(Lakoff 1987:440), 우리가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를 말한다.

(26)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 가까웠다.

예문 (26)은 '비교'의 의미이다. 맹경흠(2016)에서는 공간에서의 '에'의 의미가 추상화될 때 '주변 도식 은유'의 작용으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고 보였다. 즉 탄도체와 지표가 추상적인 거리가 가깝고 서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26)은 탄도체인 '답안'은 지표인 '완벽'에 인접하여 비교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였으며, 다음 [그림 Ⅱ-21]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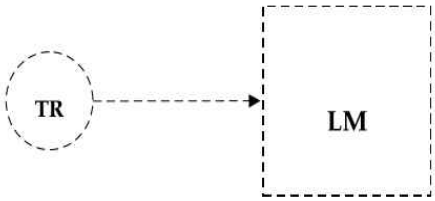
[그림 Ⅱ-21] '주변 도식'에 의한 '에'의
확장 의미 장면 (맹경흠, 2016:355)

(27)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28)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예문 (27)은 '대상'의 의미, (28)은 '시간'의 의미이다. 맹경흠(2016)에서는 공간에서의 동적 접촉을 나타낸 '에'는 '경로 도식 은유'를 통하여 '대상, 자격, 시간'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문 (27)에서는 지표인 '화분'은 탄도체인 '물'이 주어지는 대상이며, 예문(28)의 '봄'은 진달래가 피는 시간 즉 종료된 시간[9]을 의미로 보였다. 이는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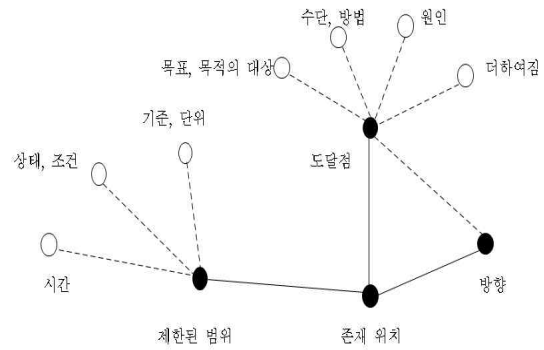
9) 맹경흠(2016:360)에서는 공간에서 탄도체가 지표를 향하여 이동해 가는 동시에 시간도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의 흐름은 탄도체의 이동 경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탄도체가 목적지인 지표에 도착하여 그것과 정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시간도 저절로 종료된다고 하였다.

[그림 Ⅱ-22]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Ⅱ-22] '경로 도식'에 의한 '에'의
확장 의미 장면 (맹경흠, 2016:357)

앞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에'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보면 모두 처소와 관련되며 존재 위치, 도달점, 방향 등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보였다. 이런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언어적 동기화, 영상 도식 은유, 의미망에 의해 처소 관계에서 '제한된 범위, 조건, 환경, 상태, 기준이 되는 대상, 시간'의 의미로, 이동 관계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 수단, 방법, 원인, 단위, 더하여짐(첨가), 비교의 대상,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 종료된 시간' 등 추상적인 의미까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2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23] '에'의 의미 도식

② ‘에서’

앞에서 제시한 조사 ‘에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처소와 관계된 ‘행위지’의 의미와 이동 관계 ‘출발점’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보였다. 이런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언어적 동기화에 주목한 정수진(2010)의 논문을 통해서 조사 ‘에서’의 의미 확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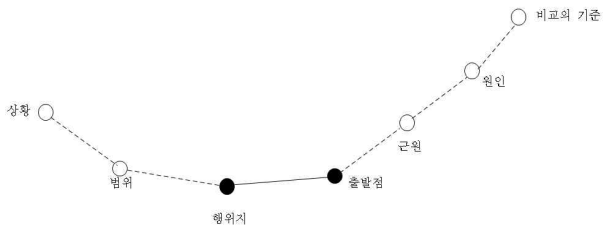
(29) 나는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찌개가 제일이다.
(30) 좋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나온다.
(31) 사람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피하려고 바다나 산을 찾았다.
(32) 산이 높다 한들 하늘**에서** 더 높겠는가.
(33)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문 (29)는 ‘범위’의 의미, (30)은 ‘근원’의 의미, (31)은 ‘상황’의 의미, (32)는 ‘기준’의 의미, (33)은 ‘원인’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정수진(2010:153)에서는 어떤 대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며, 그 경계는 처소 관계에 있는 대상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한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간적 의미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그 제한된 범위는 대상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작용하므로, 어떤 대상이 특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에서’의 의미는 행위지에서 ‘범위, 상황’으로 확장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문 (29)의 ‘한국 음식’은 범위의 의미, 예문 (30)의 ‘교육’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원’이 되며, 예문 (31)의 ‘무더위 속’은 상황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한다.

정수진(2010:160)에서는 어떤 대상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동의 시작에는 출발점을 벗어나는 과정(→)과 이동이 비롯되는 근본(□)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이동의 출발점은 ‘실현의 본질과 방법’의 의미가 포함되는데, ‘실현 본질’은 행동 및 판

단의 근거나 기준이 되고, ‘실현 방법’은 행동의 원인이 된다. 즉 ‘에서’의 공간적 의미는 ‘근원, 범위의 시작점, 기준, 원인’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32)의 ‘하늘’이 ‘비교의 기준’이 되고, 예문 (33)의 ‘고마운 마음’이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를 바탕으로 ‘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 보면 모두 처소 관계에서 ‘행위지’의 의미, 이동 관계에서 ‘출발점’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보였다. 이런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행위지’에서 ‘제한된 범위, 상황’의 의미로, ‘출발점’에서 ‘근원, 원인, 비교의 기준’ 등 다양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2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24] ‘에서’의 의미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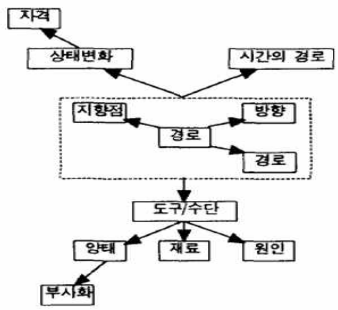
③ ‘(으)로’

앞에서 제시한 조사 ‘(으)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처소와 관계된 ‘방향, 경로’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보였다.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는 ‘은유, 의미망, 언어적 동기화’ 등에 주목한 박정운(1999), 정병철(2010ㄴ), 정수진 (2011)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34) 얼음이 물**로** 되었다.
(35) 그분이 회장**으로** 뽑히다.
(36) 시험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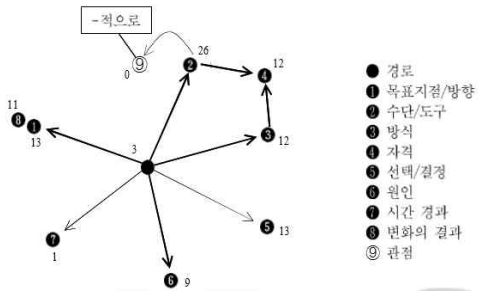
(37) 사진**으로** 설명을 한다.
(38)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
(39) 얼음**으로** 빙수를 만들었다.
(40) 그 사람은 암**으로** 죽었다.

예문 (34)는 '변화의 결과'의 의미, (35)는 '자격'의 의미, (36)은 '시간'의 의미, (37)은 '도구'의 의미, (38)은 '이유'의 의미, (39)는 '재료'의 의미, (40)은 '원인'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박정운(1999)에서 '(으)로'를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사 '-로'로 기술하였으며, '-로'는 공간 영역에서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어 경로의 의미, 상태 영역에서 상태변화와 자격의 의미, 시간 영역에서 시간상 경로의 의미, 행동 영역에서 도구, 원인, 재료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문 (34)는 '얼음'이 '물'의 상태, 예문 (35)는 그분의 '회장'의 지위로 뽑혔음을 나타낸다. 예문 (36)은 시험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상의 경로, 예문(37)의 '사진'은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예문 (38)에서 그가 바쁜 것은 '일'이 이유가 되며, 예문 (39)는 '빈수'를 만들 때 '얼음'은 재료, 예문(40)은 '암'은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조사 '(으)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운(1999:422)에서 '-로'의 의미를 경로를 중심으로 다음 [그림 Ⅱ-25]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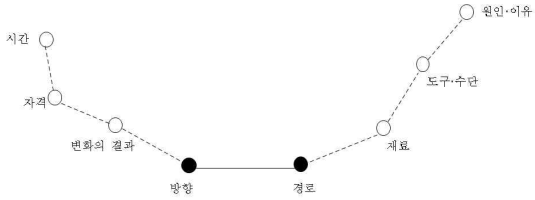
[그림 Ⅱ-25] '(으)로'의 의미망 (박정운, 1999:422)

정수진(2010:164)에서는 조사 '(으)로'는 구체적인 공간 의미 '지향점'이 추상적 의미 '변화의 결과'로, 변화된 결과는 '상태'로, 상태는 '판단의 기준'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통로의 '(으)로'는 과정을 통해 '재료, 원인, 방법'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정병철(2010ㄱ)에서는 '-로'의 기분 의미를 '경로'로 보았고, 동반 경험을 통해서 확장 의미들이 발생하였다고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확장 의미들은 원형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 Ⅱ-2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26] '(으)로'의 의미망 (정병철, 2010ㄱ:239)

위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으)로'의 확장 의미를 정리해 보면 '방향, 경로'의 의미에서 '변화의 결과, 자격, 시간, 도구, 원인, 재료, 시간' 등 추상적인 의미까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2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Ⅱ-27] '(으)로'의 의미 도식

3.2. 처소 관련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3.2.1. 원형 의미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임지룡(1996)에서 정의한 '원형 의미(prototypocal meaning)'는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는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 노금송(2010)에서 제시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 맹경흠(2016)에서 제시한 사전에 기술된 '첫 번째 의미' 등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미얀마어 사전』, 『문법 교육』, 『미얀마어 배우기』 등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10] 다음 여러 용례를 참고하여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를 검토해 보자.

① 처소(존재지, 행위지)를 나타내는 조사

처소란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위치나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어떤 물리적 대상이 처소 및 이동과 관련되어 존재하는 위치와 행위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41) မိဘတွေက ရန်ကုန်မြို့ **၌ / မှာ / တွင် / ဝယ်** ရှိသည်။
mi.bɑ.dwe-gɑ yangon.myó **hnaiʔ / hmɑ/ dwin/ wɛ** ɕi-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10) 미얀마어 조사에 대한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다루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서 임지룡(1996), 노금송(2010), 맹경흠(2016), Ministry of Education(2008),『미얀마어사전』, Khin Minn(2018),『문법 교육』, Ministry of Education(2016), 『미얀마어 공부하기』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 ↓

부모님은 양곤**에** 계세요.

(42) ကလေးများ ကစားကွင်းထဲ **၌ / မှာ / တွင် / ဝယ်** ကစားနေကြသည်။

kʰalè.myɑ̀ ɡəzà. **hnaiʔ / hmɑ/ dwin/ wɛ** ɡəzà.ne.tɕá-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43) အမေသည် သားကို အိမ်ဝ **က / မှာ** စောင့်သည်။

əme-θi θà-go ein.wɑ -**ká / hmɑ** sáun.-ði.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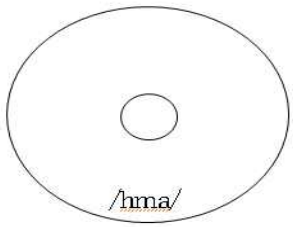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 ↓ ↓ ↓

어머니께서 아들을 집**에서** 기다리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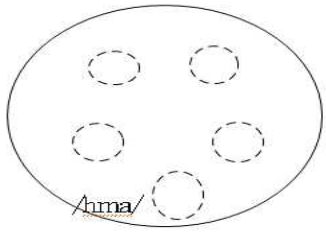
예문 (41)은 '존재 위치'의 의미, (42~43)은 '행위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41)에서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는 선행 명사 '양곤' 뒤에 붙는데 어느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 서술어 '있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처소, 또는 장소'라는 의미를 보여 준다. 이는 탄도체(trajector, TR)인 'မိဘ/mi.bɑ/'는 지표(landmark, LM)[11] 인 공간적 범위 내 '양곤'에 포함되어 있으며, 둘은 상대적으로 접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정한 장소에서 머물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다음 [그림Ⅱ-2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1) 인지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경화되는 대상을 탄도체(TR)라고 하고, 배경화되는 대상을 지표(LM)라 한다.



[그림Ⅱ-28] 존재지 '၌/hnaiʔ/, မှာ/hma/, တွင်/dwin/, ယ်/wɛ/' 의 영상 도식

예문 (42~43)의 '၌/hnaiʔ/, မှာ/hma/, တွင်/dwin/, ယ်/wɛ/, က/ká/'는 선행 명사 '놀이터, 집' 뒤에 붙는데 움직임을 의미한 서술어 '놀다, 기다리다' 같은 동사와 관계를 맺고 행위가 일어나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놂, 기다림'의 행위가 구체적 장소 '운동장'과 맺고 있는 처소의 관계가 조사 '၌/hnaiʔ/, မှာ/hma/, တွင်/dwin/, ယ်/wɛ/, က/ká/'를 통해 표현된다. 이처럼 조사 '၌/hnaiʔ/, မှာ/hma/, တွင်/dwin/, ယ်/wɛ/, က/ká/'는 기본적으로 행위지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29]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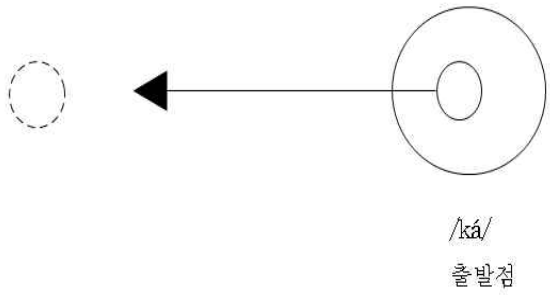
[그림Ⅱ-29] 행위지 '၌/hnaiʔ/, မှာ/hma/, တွင်/dwin/, ယ်/wɛ/, က/ká/' 의 영상 도식

②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어떤 대상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동의 시작을 의미하다. 이를 조사 'က/ká/, မှ/hmá/'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44) ရန်ကုန် က / မှ လာသည်။
yɑngon **ká/hmá** lɑ-ði.
↓ ↓
부사어 서술어
↓ ↓
양곤**에서** 왔다.

예문 (44)는 '출발점'의 의미이다. 예문 (44)에서 화자의 움직임이 '양곤'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작되는 이동의 관계가 조사 'က/ká/, မှ/hmá/'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사 'က/ká/, မှ/hmá/'는 기본적으로 시작점, 즉 출발점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Ⅱ-30]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Ⅱ-30] 출발점 'က/ká/, မှ/hmá/' 의 영상 도식

③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어떤 대상이 이동의 목적이 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은 방향의 의미이다. 이를 조사 'သို့/ðó/'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45) ရောဝ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addy-myiʔ-ɵi myɑuʔ-bɛʔ-hmá tɑun-bɛʔ **ðó** sisin-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46) မင်းစိုးသည် ကျောင်း **သို့** သွားသည်။
min.soe-ɵi dzàuɴ̀ **ðò** ɵwà-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민수가 학교에 간다.

예문 (45~46)은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45)는 이라와디강이 흘러가는 데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조사 '**သို့**/ðó/'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예문 (46)도 민수가 향해 가는 곳이 '학교'라는 것을 조사 '**သို့**/ðó/'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사 '**သို့**/ðó/'의 원형 의미를 목적지로 향해 가는 방향의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3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31] 방향 '**သို့**/ðó/'의 영상 도식

④ 도달점, 한계점을 나타내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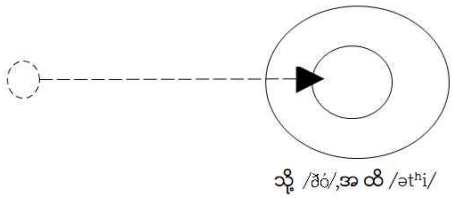
어떤 대상이 구체적인 장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동의 끝을 의미하

다. 또한, 그 이동의 끝이 '한계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조사 'သို့/ðó/, အ ထိ/ətʰi/, ထိအောင်/tʰi.aun/'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47) ယူမီသည် ညနေ ၅ နာရီတွင် အိမ် **သို့** ပြန်ရောက်သည်။
yumi-ɵi ɲáne ŋà nayi-dwin ein-**ðó** pyan.yau?-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유미는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한다.

(48) ရန်ကုန်မှ နေပြည်တော်**အ ထိ ထိအောင်** ရထားဖြင့် သွားနိုင်သည်။
yangon-hmɑ ne.pyi.dɔ̀ **ə tʰi /tʰi.aun yətʰà** ɵwà-nain-ði.
↓ ↓
부사어 서술어
양곤에서 네삐더**까지** 기차로 갈 수 있다.

예문 (47)은 '도달점'의 의미, (48)은 '한계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47)은 유미의 움직임이 목적지인 '집'에 도달한다는 이동의 끝점이 'သို့/ðó/'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 예문 (48)의 '네삐더'는 이동이 끝나는 한계점, 즉 이동 범위의 끝점이 'အ ထိ/ətʰi/'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သို့/ðó/, အ ထိ/ətʰi/, ထိအောင်/tʰi.aun/'는 기본적으로 '도달점'과 '한계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3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Ⅱ-32] 도달점, 한계점 'သို့/ðó/,အ ထိ/ətʰi/, ထိအောင်/tʰi.aun/' 의 영상 도식

⑤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어떤 대상이 이동의 목적이 되는 곳을 향하여 가는 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를 이용하다. 이를 조사 'ဖြင့်/pʰyin/, နှင့်/hnin/'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49) ယူမီသည် ကျောင်း သို့ကား ဖြင့် /နှင့် သွားသည်။

yumi-ɵi dzàuǹ-ðò car **pʰyin /hnin** pɵwà-ð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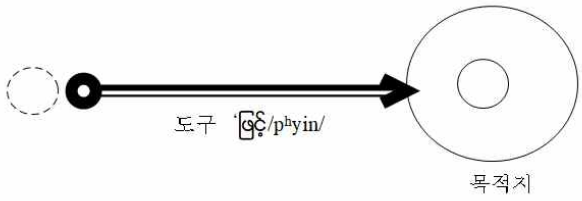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유미가 학교에 차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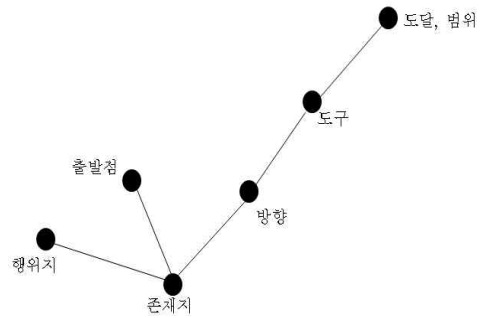
예문 (49)는 '도구'의 의미이다. 이 경우 유미가 목적지인 학교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인 차를 이용하는 것을 'ဖြင့်/pʰyin/, နှင့်/hnin/'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ဖြင့်/pʰyin/, နှင့်/hnin/'는 기본적으로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3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Ⅱ-33] 도구 'ဖြင့်/pʰyin/, နှင့်/hnin/' 의 영상 도식

지금까지 처소와 관련된 조사 '၌/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မှ/hmá/,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ɑun/, တိုင်အောင် /tɑin.ɑun/, ဖြင့်/pʰyin/, နှင့်/hnin/'의 원형 의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물리적 대상이 처소와 관련하여 ‘존재 위치’, 이동과 관련하여 ‘행위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다른 이동이 시작되는 ‘출발점’, 이동이 향하는 ‘지향점’, 이동이 끝나는 ‘도달점과 범위’, 또한, 이동하는 데 사용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조사 ‘ဌ်/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မှ/hmɑ́/,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ɑun/, တိုင်အောင်/tɑin.ɑun/, ဖြင့်/pʰyin/, နှင့်/hnin/’는 기본적으로 처소와 관련된 원형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 Ⅱ-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Ⅱ-34] 처소와 관련된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 장면

*존재지 ဌ်/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행위지 ဌ်/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출발점 က/ká/, မှ/hmɑ́/
*방향 သို့/ðó/
*도구 ဖြင့်/pʰyin/, နှင့်/hnin/
*도달점, 범위 သို့/ðó/,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

3.2.2. 확장 의미

⑥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

시간은 추상적 개념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은유라는 인지

과정을 통하여 공간에서부터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wɛ/, က/ká/'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50) စာမေးပွဲများကို တပေါင်းလ **၌ / မှာ** ကျင်းပလေ့ရှိသည်။

sɑ.me.pwɛ̀.myà-go dəbàun.lá **hnɑiʔ/ hmɑ** tɕin.pɑ-lé ɕi-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시험은 3월**에** 치르곤해요.

(51) ယူမီသည် မနက် ၆-နာရီ**တွင်** / **၏** အိပ်ယာက နိုးသည်။

yumi-θi mənɛʔ 6 nɑyi **dwin /wɛ** eiʔ.ya-ka nò-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52) အမေသည် ကြက်သားဟင်းကို မနေ့**က** ချက်သည်။

əme-θi tɕɛʔ.θɑ.hin-ko mənéˊ **kɑ** tɕʰɛʔ-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어머니께서 닭고기를 어제(**에**) 만들었다.[12]

(53) ယူမီသည် မနက် ၁နာရီ **ထိ/အ ထိ/ထိအောင်** စာဖတ်လေ့ရှိသည်။

yumi-θi mənɛʔ tiʔ-nɑyi hti/ətʰi/tʰi.ɑun sɑ.pʰɑʔ-lé-ɕi-ði.

---

12) 한국어에는 조사 '에'는 시간명사 '어제, 오늘, 내일'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특이 미얀마어의 /ká/는 시간 명사 '어제'와 같은 과거의 의미를 각지는 명사 뒤에 결합하며 '오늘, 내일'이라는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는 시간 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유미는 새벽 한시<u>까지</u> 공부하곤 해요.

예문 (50~53)은 시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50~52)에서 '3월, 6시, 어제' 등의 시간이 '시험, 일어남, 만듦'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hnɑiʔ/, မှာ/hmɑ/, တွင်/dwin/, ၀ယ်/wɛ/, က/ká/'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hnɑiʔ/, မှာ/hmɑ/, တွင်/dwin/, ၀ယ်/wɛ/, က/ká/'의 의미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간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또한, 시간은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제공하는 환경이므로, 예문 (53)의 조사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는 공부의 사태가 지속하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의 의미는 '시간의 한계점'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⑦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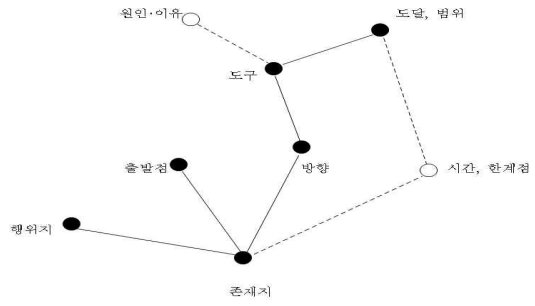
어떤 대상이 이동의 중간 과정으로서 그 끝점에 이르기까지의 방법이나, 그 끝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포함된다. 이를 조사 'ဖြင့်/pʰyin/, ကြောင့်/ʤáun/'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

(54) သူသည် နှလုံးရောဂါ<u>ဖြင့် /ကြောင့်</u> ကွယ်လွန်သည်။
θu-θi hnə.lòun.yɔ̀gɑ <u>pʰyin/ʤáun</u> kwɛ.lun-ði.
↓ ↓ ↓
주어 부사어 서술어
↓ ↓ ↓
그는 심장병<u>으로</u> 돌아가셨다.

예문 (54)는 '원인'의 의미이다. 이 경우 '심장병'이 '죽음'의 원인이 되

는 것을 조사 'ဖြင့်/pʰyin/, ကြောင့်/ʤáun/'를 통해 나타낸다. 따라서 조사 'ဖြင့်/pʰyin/, ကြောင့်/ʤáun/'는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확장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바 미얀마어 조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처소와 관련되며,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ယင်/wɛ/'는 '존재지'의 의미, '၌/hnaiʔ/, မှာ/hmɑ/, တွင်/dwin/, ယင်/wɛ/', က/ká/'는 행위지의 의미, 'က/ká/, မှ/hmá/'는 '출발점'의 의미, 'သို့/ðó/'는 '방향(지향점)'의 의미, 'ဖြင့်/pʰyin/, နှင့်/hnin/'는 '도구'의 의미, 'သို့/ðó/,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는 '도달점'의 의미를 원형의 의미로 확인하였다. 이런 의미 기능을 비롯하여 인간의 행위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공간에서 추상적인 시간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ယင်/wɛ/, က/ká/'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시간도 뚜렷한 경계를 통해 일정한 범위를 갖는 공간으로 개념화되며 '사건의 한계점'의 의미로 확장된 것을 보았으며 조사 'ထိ/tʰi/, အ ထိ/ətʰi/, ထိအောင်/tʰi.ɑun/'는 '한계점'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확장되었다. 따라서 조사 'ဖြင့်/pʰyin/, ကြောင့်/ʤáun/'는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다음 [그림 Ⅱ-3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Ⅱ-35] 장소 관련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장면

* 존재지, 행위지 ၌/hnaiʔ/, မှာ/hmɑ/, တွင်/dwin/, ယင်/wɛ/, က/ká/

* 출발점 က/ká/, မှ/hmá/
* 방향(지향점) သို့/ðó/
* 도달점, 범위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
* 도구, 수단 ဖြင့်/pʰyin/, နှင့်/hnin/
* 원인 ဖြင့်/pʰyin/, ကြောင့်/ʤáun/
* 시간, 한계점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
*_____ 원형 의미
*-------- 확장 의미

3.3.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3.3.1. 원형 의미 대조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를 다음의 선행 연구를 통해 대조해 보았다. 먼저 한국어 조사 '에'의 원형 의미에 대해 살펴본바 정수진(2011)에서는 공간 조사로 기술하였으며 '처소 관계(소재지)와 이동 관계(도달점)'로, 조재형(2014)에서 '공간성을 가진 비어 있지 않은 표면'으로, 맹경흠(2016)에서는 공간에서 탄도체와 지표가 만나 이루어진 접촉 관계로 보았으며 '공간적 접촉(포함 접촉)과 동적 접촉'으로 기술하였다. 즉 조사 '에'의 원형 의미는 처소와 관련된 '존재 위치', 이동 관계의 '방향, 도달점'의 의미로 추정하였다.

미얀마어 조사의 원형 의미를 살펴보면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는 '존재 위치', 이동 관계의 'သို့/ðó/'는 방향(지향점),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는 '도달점과 범위'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추정하였다. 즉 미얀마어 조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 처소와 관련되며 처소 관계의 '존재 위치', 이동 관계의 '지향점'과 도달점'의 의미가 원형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한국어와 다르게 미얀마어의 조사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는 '도달점' 외 '범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는 이기동(1981)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배경’으로 기술하였다. 정수진(2011)에서 ‘처소 관계(행위지)와 이동 관계(출발점)’로, 조재형(2014)에서 처소 영역에서의 ‘공간성을 가진 비어 있는 표면’, ‘동작의 출발점’으로 기술하였다. 즉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는 처소 관계의 ‘행위지’, 이동 관계의 ‘출발점’의 의미로 추정하였다.

미얀마어의 경우 조사 ‘၌/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는 ‘행위지’의 의미, 조사 ‘က/ká/, ‘မှ/hmá/’는 출발점의 의미가 처소와 관련한 원형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어 조사 ‘에서’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는 박정운(1999)에서 ‘공간 영역의 경로(방향, 지향점, 경로)’로, 정수진(2010)에서 ‘지향점과 통로’, 정수진(2011)에서 ‘방향(지향점), 경로’, 정병철(2010ㄴ)에서 ‘경로’로 기술하였다. 즉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는 ‘방향(지향점), 경로’의 의미로 추정하였다.

미얀마어의 경우 처소 관련 조사 ‘သို့/ðó/’는 ‘방향’의 의미가 원형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조사 ‘(으)로’의 ‘방향(지향점)’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미얀마어 조사 ‘သို့/ðó/’는 한국어처럼 ‘경로’의 개념이 없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에 제시한 첫 번째 의미 해석으로 본 미얀마어 조사 ‘ဖြင့်/pʰyin/, နှင့်/hnin/’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원형 의미로 추정하였지만, 한국어의 ‘도구’의 의미는 확장 의미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3.3.2. 확장 의미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의 확장 의미를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해 대조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사 ‘에’의 확장 의미를 살펴보면 정수진(2010)에서는 구체적인 장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실험 목적과 방법의 의미가 포함한

다고 하며 실험 목적에서 기준으로, 실험 방법에서 수단이나 이유, 시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정수진(2011)에서는 구체적 장소(소재지)에서 추상적인 '목적, 기준, 이유, 방법, 시간의 끝점'의 의미로, 맹경흠(2016)에서는 다양한 추상적 의미가 은유의 작용으로 '기준· 단위, 도구· 수단, 첨가· 나열, 범위, 원인, 시간, 상황· 환경, 관련, 비교· 비유, 대상, 자격'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것을 보았다. 즉 조사 '에'는 처소 관계의 '존재 위치'에서 '제한된 범위, 기준, 상태, 시간'의 의미, 이동 관계의 '도달점'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 수단, 방법, 원인·이유, 더하여짐, 비교의 대상,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 등 다양한 추상적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얀마어의 경우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는 구체적인 장소 '존재 위치' 즉 공간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시간'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미얀마어의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သို့/ðó/'는 '존재 위치'에서 '시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한, 조사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도 '범위'의 의미에서 '시간의 한계점'의 의미로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면 한국어의 조사 '에'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었지만, 미얀마어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tʰi.aun/, တိုင်အောင်/tain.aun/'는 '시간, 시간의 한계점'의 의미까지 화장된 것이 차이점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는 정수진(2010)에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동의 '시작', 즉 이동의 '출발점'은 실현의 본질과 방법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 '실현 본질'은 행동 및 판단의 근거나 기준으로, 실현 방법은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정수진(2011)에서는 어떤 대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경계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제공한다고 보였으며, '제한된 범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나아가서 일정한 범위는 환경을 만들어 그 환경은 대상의 속성을 판단하는 조건이나 기준

으로 작용하며 ‘상황’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위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간’도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시간을 이동의 출발점으로 개념화한다고 보였으며 출발점에서 ‘시간의 시작점’ 의미로 기술하였다. 즉 조사 ‘에서’는 처소 ‘행위지’의 의미에서 ‘범위, 상황’의 의미, ‘출발점’의 의미에서 ‘근원, 원인, 비교의 기준, 사간의 시작점’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한국어 조사 ‘에서’와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 ‘ဦ/hnɑ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 က/ká/’는 처소와 관련된 ‘행위지’의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 즉 한 가지 의미로만 확장된 것이 차이점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는 박정운(1999)에서는 공간 영역의 경로에서 상태 영역의 ‘변화, 시간 영역의 경로, 행위 영역의 도구’로 확장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정수진(2011)에서는 방향에서 ‘결과, 상태, 판단의 기준’, 통로에서 ‘재료, 원인, 방법’으로, 정수진(2010)에서는 공간 조사 ‘(으)로’는 기본적으로 ‘지향점’의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인 ‘변화의 결과’로, 변화된 결과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대로 지속하여 있는 ‘상태’로, 상태를 통해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 ‘판단의 기준’의 의미로, ‘시간’이 대상의 이동과 관련된 지표로 개념화되면서 ‘시간’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어떤 행위가 이동의 개념으로 개념화됨에 따라 행위의 시작 단계는 재료가 되며, 끝점에 이르기까지의 방법이나 끝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정병철(2010ㄴ)에서는 경로에서 ‘수단, 도구, 자격, 원인, 시간 경과, 변화의 결과’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즉 조사 ‘(으)로’는 ‘방향, 경로’의 의미에서 ‘변화의 결과, 자격, 시간, 도구, 원인, 재료, 시간’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한국어 조사 ‘(으)로’와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 ‘ဖြင့်/pʰyin/, နှင့်/hnin/’는 원형 의미인 ‘도구’의 의미에서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 차이점으로 보였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

을 살펴보면 양 언어는 표현 방식에 따라 '존재 위치, 행위지, 출발점, 도달점, 경로' 등 의미들은 처소와 관련한 원형 의미로 나타낸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 쪽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의 조사 '에'는 처소 관계의 '존재지', 이동 관계의 '도달점'으로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된다. 마찬가지 조사 '에서'도 처소 관계의 '행위지', 이동 관계의 '출발점'으로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의미나 그 이상의 의미로 나타난 것을 보였다. 반면 미얀마어 조사 '၌/hnaiʔ/, မှာ/hmɑ/, တွင်/dwin/, ဝယ်/wɛ/'는 '존재지', 'က/ká/, မှ/hmá/'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다양한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 다르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를 다음 <표 Ⅱ-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Ⅱ-5> 인지 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 대조

형태	한국어		형태	미얀마어	
	원형 의미	확장 의미		원형 의미	확장 의미
에	존재 위치	제한된 범위	၌/hnaiʔ/, မှာ/hmà/, တွင်/dwin/, ဝယ်/wɛ/	존재 위치	시간
		기준, 단위			
		상황, 조건, 환경			
		시간			
	도달점	목표, 목적의 대상	သို့/ðó/ အ ထိ/ətʰi/ ထိ/tʰi/ ထိအောင် /tʰi.aun/ တိုင်အောင် /tain.aun/	도달점, 범위	시간
		수단, 방법			
		원인			
	방향	더하여짐	သို့/ðó/	방향 (지향점)	–
		대상			
		자격			
에서	행위지	범위	၌/hnaiʔ/, မှာ/hmà/, တွင်/dwin/ ဝယ်/wɛ/, က/ká/	행위지	시간
		상황			
	출발점	근원	က/ká/, မှ/hmá/	출발점	시간
		원인			
		비교·비교의 기준			
(으)로	방향	변화된 결과	ဖြင့်/pʰyin/ နှင့်/hnin/, နဲ့/nɛ́/	도구, 수단	원인·이유
		자격			
		시간			
	경로	재료			
		도구·수단			
		원인·이유			

III.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1.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관한 설문 조사의 설계

1.1. 설문 조사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의 각 테스트는 인지적 접근법을 적용한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사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ent Test)[13] 는 4지 선다형 방식 즉 주어진 응답에서 적절한 응답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 유형인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Multiple Choice)로 구성하였다. 이 테스트는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다양한 세부 의미의 용법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사를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 2개(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관련 문제)로 작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Error Correction Test)는 오류 수정형인 '틀린 조사 고쳐쓰기 문제'(Rewrite Post-position Correctly)로 구성하였다. 이 테스트는 문법적 능력과 문장 구성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 2개(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관련 문제)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모국어로 작성한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이다. 이 테스트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번역할 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식 차이

13)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제2 언어 습득 및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문법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이다(Gass, 1994).

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격 조사 교육 연구 도구의 전체적 구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미얀마인 학습자 대상 격 조사 교육 연구 도구

테스트 방식	문항	내용
설문지	10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의 개인 정보, 어려운 기능 항목, 어려운 조사 항목, 어려운 격 조사 항목, 선호하는 학습 방법, 교수 학습 시 선호하는 언어, 선호하는 설명법, 모국어의 영향 여부에 대해 수집한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20개	주어진 응답에서 적절한 응답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형식이다.
오류 수정 테스트	20개	주어진 문장에서 틀린 조사를 고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문법적인 능력과 문장 구성까지 평가하여 대상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형식이다.
번역 테스트	20개	미얀마어로 주어진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테스트 방식으로서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의 인식 차이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형식이다.

설문 대상자는 현재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인 학부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별 50명씩 총 200명이며, 이들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 및 다양한 변인들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먼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성별, 나이, 학년, 한국어 능력 시험 여부, 한국어 학습 시 가장 어려운 기능, 조사 및 격 조사 중에서 어려운 항목, 선호하는 학습 방법, 교사가 설명하는 데 선호하는 언어, 선호하는 설명법, 모국어의 영향 여부 등 객

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초 조사 자료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조사 교육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설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두 달간 진행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사용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 사용 시 조사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적당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른 분석 단계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분석 단계

→ 기초 조사 설문지
→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 실시
→ 결과 분석
→ 한국어 교육에 적용

1~4학년 학습자용 각 실험 테스트에서는 주로 '에'를 '에서'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에서'를 '에'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에'를 '로'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미얀마어와 의미적 인식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설계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 오류 분석을 진행할 때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의 결과를 정답과 오답으로 구분하여 오류 비율 및 양상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원인을 관찰하고 그 빈도를 계산할 때는 리처드(Richard, 1971), 브러운(Brown, 2000)과 이정희(2002, 2019)의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리처드(Richard, 1971)에서는 오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모국어의 영향에 의해 일어나는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규칙의 불안전한 적용으로 일어나는 언어 내적 오류(interlingual error)와 교실이나 교과서 등 제한된 학습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 나름대로 언어에 대한 가설을 세워 나타나는 발달 오류(development error)로 분류하였다.

브라운(Brown, 2000)에서는 오류의 유형을 발생 원인에 따라 언어 간 전이 (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 전이(Interlingual Transfer), 학습 맥락(Context of learning)과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 언어 간 전이는 제2 언어학습 시 초급 단계에 많이 나타나는데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언어 내 전이는 목표어 내에서의 일반화 현상으로 나타나며 학습 맥락에 의한 오류는 제2 언어를 배우는 배경, 즉 학습 교재, 교사의 교육 내용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 마지막인 의사소통 전략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정희(2002, 2019)에서는 학습자의 제2 언어의 오류 발생의 원인을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 목표어 학습 과정에 나타나는 발달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와 결과 판정에 따른 범주별 오류와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로 세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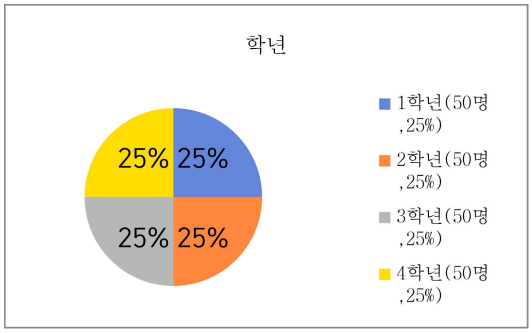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오류 분석을 목표어와 모국어의 영향에 따른 언어 간 전이 오류, 목표어 내에서의 적용에 의한 언어 내적 오류(과잉 일반화 오류), 교육과정에 따른 오류(교재 및 자료에 의한 오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오류)로 세분화하였다.

1.2. 기초 설문 및 한국어 인식 조사

① 학습자 수

본고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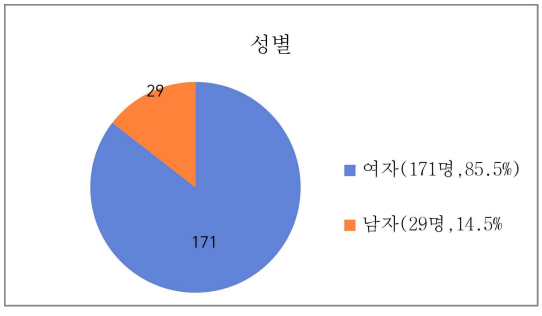
국어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습자로 학년별 50명씩 총 200명이다.



[그림 Ⅲ-1]학습자 수 분포

② 학습자의 나이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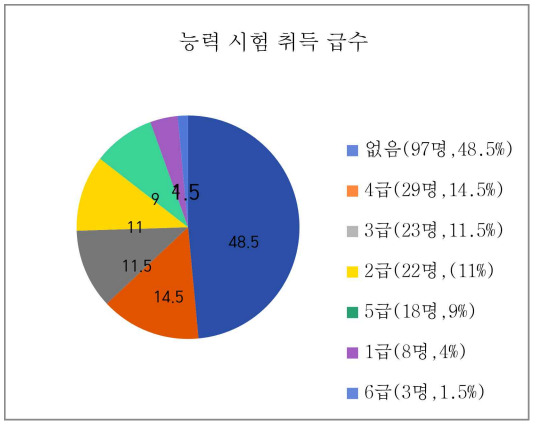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는 18세 이상이 가장 많고, 20세 이상이 다음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학생 29명(14.5%), 여학생 171명(85.5%)으로 여학생 수가 많았다. 남녀 비율의 격차가 큰 것은 미얀마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성비가 여학생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림 Ⅲ-2] 전체 응답자 성별 분포

③ 한국어 능력 시험 취득 급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급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토픽 자격증이 없는 학습자 수가 97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1학년과 2학년 학습자 수가 나머지 학년보다 더 많았다. 학습자 중 토픽 4급이 29명(14.5%), 토픽 3급이 23명(11.5%), 토픽 2급이 22명(11%), 토픽 5급이 18명(9%), 토픽 1급이 8명(4%), 토픽 6급이 3명(1.5%)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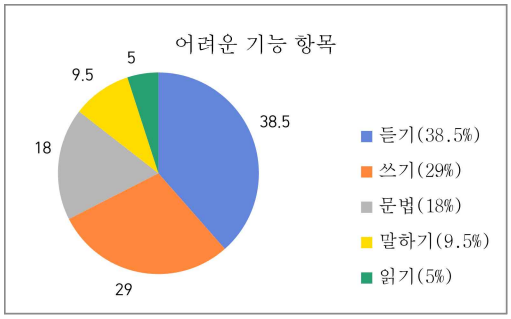


[그림 Ⅲ-3] 능력 시험 취득 급수

④ 어려운 기능 항목

다음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전체 학습자의 38.5%가 듣기 기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제2 언어로서의 듣기에 학습자들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쓰기가 2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문법이 18%, 말하기 9.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려움을 적게 겪는 것은 읽기 기능이었는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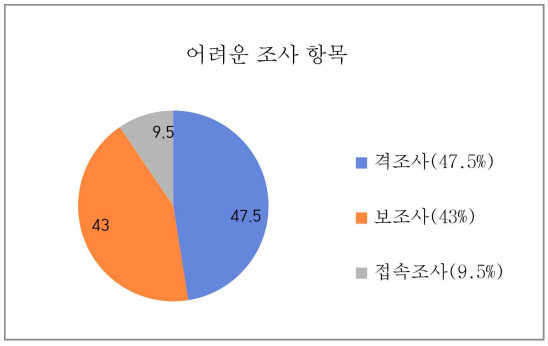
로 응답한 학생은 5%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Ⅲ-4]는 미얀마 학습자들이 학습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기능 항목이다.



[그림 Ⅲ-4] 어려운 기능 항목

⑤ 어려운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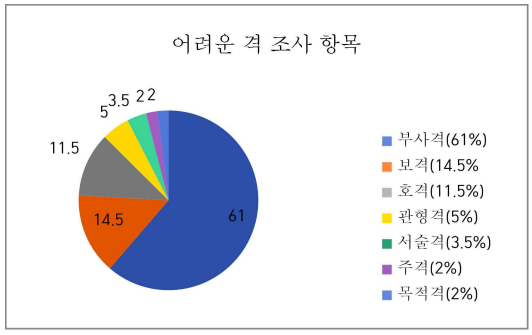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조사 항목으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응답자의 47.5%가 격 조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조사는 43%가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에 접속 조사는 9.5%로 덜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 있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여러 개념과 용법의 복잡성을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조사 항목은 다음 [그림 Ⅲ-5]와 같다.



[그림 Ⅲ-5] 어려운 조사 항목

⑥ 어려운 격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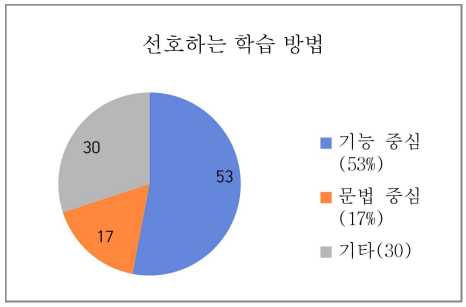
한국어를 배울 때 학습들이 어려워하는 격 조사로는 응답자의 61%가 부사격 조사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보격 조사 14.5%, 호격 조사 11.5%, 관형격 조사 5%, 서술격 조사 3.5%,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각각 2%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Ⅲ-6]은 미얀마 학습자들한테 어려운 격 조사 항목 순이다.



[그림 Ⅲ-6] 어려운 격 조사 항목

⑦ 선호하는 학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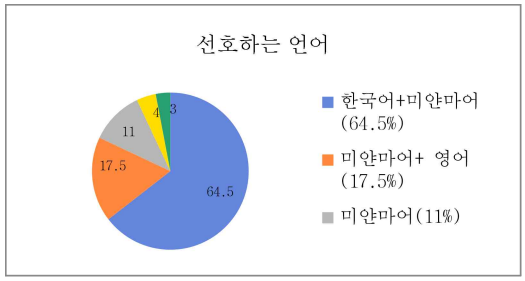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급부터 고급 학습자까지 응답자의 53%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법 중심의 교육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17%였다. 그 외 다른 학습 방법을 택한 학습자는 0.5%에 불과하였다. 다음 [그림 Ⅲ-7]은 미얀마 학습자들이 학습 시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림 Ⅲ-7] 선호하는 학습 방법 분포

⑧ 교수 학습 시 선호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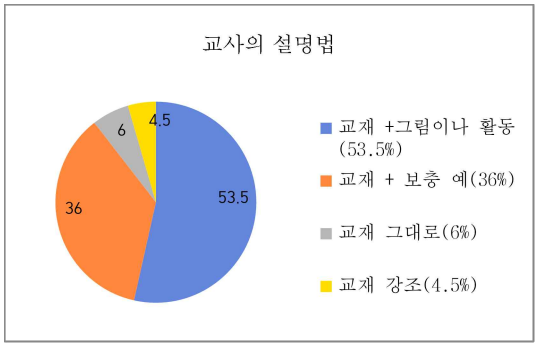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학습 시 선호하는 언어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목표어인 한국어로 설명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모국어인 미얀마어와 섞어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 비율은 64.5%로 꽤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모국어인 미얀마어로 설명하다가 필요할 때 영어로 섞어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17.5%, 모국어인 미얀마어로만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한국어로만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4%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섞어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의 비율은 3%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Ⅲ-8]은 교수 학습 시 선호하는 언어의 순이다.



[그림 Ⅲ-8] 선호하는 언어 분포

⑨ 교수 학습 시 선호하는 설명법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유일한 한국어 입력이자 모방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법도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들도 교사한테서 기대하는 설명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설명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학습자의 53.5%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외에도 필요하면 그림이나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6%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만 아니라 다른 예문들로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만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6%, 나머지 4.5%는 교재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그림 Ⅲ-9]는 교수 학습 시 선호하는 설명법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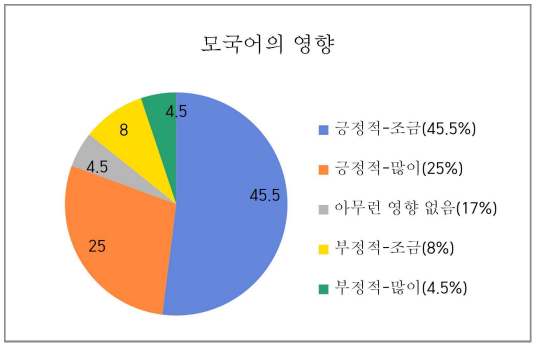


[그림 Ⅲ-9] 선호하는 설명법 분포

⑩ 모국어의 영향

제2 언어학습에 있어 모국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국어의 영향에 대한 미얀마인 학습자들도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학습자의 45.5%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25%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다는 응답률은 8%,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는 응답률은 4.5%에 불과하였다. 이를 보면 한국어 학습 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모국어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Ⅲ-10]은 미얀마인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 비율이다.



[그림 Ⅲ-10] 모국어의 영향 분포

2.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본 연구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사용 양상 및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 등 실험 도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들의 사용오류 양상 및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불충분하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응답들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50문항에 한해서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2.1. ‘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1.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문법성 판단 테스트

조사 ‘에’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3[14]은 오답률이 6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지향하는 목적지’의 의미가 있는 문항 2는 오답률이 16.5%, 처소 관계인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1은 오답률이 10%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1) 철수는 화분에게(√에) 물을 주었다.
(2) 저는 제주도에서(√에) 가보고 싶어요.
(3) 교실에서(√에) 학생들이 있어요.

예문 (1)은 ‘어떤 움직임이나 착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이다. 대상인 ‘화분’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게’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그 쓰임을 구별하지 못해 ‘에게’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모국어(미얀마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다.[15]

예문 (2)는 ‘지향하는 목적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화자가

14) 이 문항들은 각 설문 조사의 문제에 배치된 번호이다.
15) 미얀마어에서는 ‘주고 받는 대상’을 나타낼 때 조사 ‘အား/a:/(문어체), ကို/go/(구어체)’를 사용하며, 앞에 있는 명사가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향해 가는 목적지인 ‘제주도’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 데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접한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 가다’를 숙지하지 못해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문 (3)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학생들이 존재하는 위치인 ‘교실’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 데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와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서’를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생겼다고 보았다. 이는 문장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곳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조사 ‘에’는 주로 ‘있다, 없다’ 등 서술어와 자주 함께 쓰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문장을 번역하는 데서 생긴 오류도 있었다. 이는 모국어에서 처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로 구별하지 않으며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 이런 모국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오류도 있었다. 다음 <표 Ⅲ-3>은 조사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3>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	72	36%	128	64%	에게
2	167	83.5%	33	16.5%	에서
3	180	90%	20	10%	에서

다음으로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된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조건’의 의미가 있는 문항 2는 오답률이 58.5%,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이 있는 문항 3은 오답률이 55.5%,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가 있는 문항 1은 오답률이 41%, ‘제한된 범위’

의 의미가 있는 문항 4는 40%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4) 모든 것은 생각하기가(√에) 달려 있어요.
(5) 국물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더 맛있다.
(6) 이 약은 감기를(√에) 좋아요.
(7) 포유류가(√에) 무엇이 있지?

예문 (4)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생각하기'는 조건이 되며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가'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에'의 확장된 '조건'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5)는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이며 명사 '국물'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과'로 대치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이해하지 못해 문장을 번역해서 '무엇에 더하다'라는 뜻 대신에 '무엇과 무엇을'이라는 뜻으로 '과'를 대치한 오류로 판단하였다.[16]

다음 예문 (6)은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대상인 '감기'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를'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의 '목적의 대상'이라는 확장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7)은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범위인 '포유류'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가'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에'의 '제한된 범위'라는 확장 의미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4>는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16) 모국어(미얀마어)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사 'နှင့်/hnin/'가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하다.

<표 Ⅲ-4>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	83	41.5%	117	58.5%	가
5	89	44.5%	111	55.5%	과
6	118	59%	82	41%	를
7	120	60%	80	40%	가

(2) 오류 수정 테스트

조사 ‘에’의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오답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행위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문항 4는 오답률이 48.5%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3의 오답률이 35%,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항 2는 오답률이 14.5%, 문항 1은 오답률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8) 미선이는 서울대학교에서(√에) 입학했어요.
(9) 여기에서(√에) 이름을 쓰세요.
(10) 식당에서(√에) 사람이 많아요.
(11) 냉장고에서(√에) 우유가 없어요.

예문 (8)은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목적지인 ‘서울대학교’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뒤에 오는 동사 ‘입학하다’는 ‘-에,-을 입학하다’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장을 모국어로 번역하면 ‘ᨠᩣ/hmɑ/’로 대응된다. 그 조사 ‘ᨠᩣ/hmɑ/’도 한국어의 ‘에’와 ‘에서’에 해당하다. 이런 목표어

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자주 헷갈려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예문 (9)는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이다. 동작 ‘쓰다’가 미치는 위치인 ‘여기’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에’의 용법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로 보였다. 또한, 문장을 번역해서 파악할 때 모국어에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ᨠᩣ/hmɑ/’는 ‘존재지’와 ‘행위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다. 이런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예문 (10)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이다. 사람이 많이 있는 위치인 ‘식당’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마찬가지 예문 (11)도 우유가 있는 곳인 ‘냉장고’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존재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와 ‘행위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서’를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또한, ‘존재지’의 경우 ‘있다, 계시다, 없다, 많다’ 등의 서술어와 어울려 쓰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 <표 Ⅲ-5>는 조사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5>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8	103	51.5%	97	48.5%	에서
9	130	65%	70	35%	에서
10	171	85.5%	29	14.5%	에서
11	175	87.5%	25	12.5%	에서

다음으로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원인’을 나타내는 문항 3은 오답률이

36%, ‘수단’을 나타내는 문항 4는 오답률이 27.5%, ‘기준이 되는 단위’를 나타내는 문항 2는 오답률이 17%,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1은 오답률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12) 그는 요란한 소리로서(√에) 잠을 깼다.
(13) 마리아는 칼과(√에) 손을 베였어요.
(14) 나는 하루는(√에) 두 번씩 세수한다.
(15) 동생은 매일 아침에서(√에) 운동한다.

예문 (12)는 ‘원인’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화자가 ‘잠을 깬’ 이유인 ‘요란한 소리’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로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에’의 다른 용법을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문 (13)은 ‘수단’의 의미이다. 손을 베였을 때 수단이 된 ‘칼’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과’를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의 다른 용법을 인식하지 못해 문장을 번역해 뜻이 통하는 조사 ‘과’로[17] 대치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14)는 ‘기준이 되는 단위’의 의미이다. 화자가 세수하는 기준인 ‘하루’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는’을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 전체를 생각할 때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에’를 이미 숙지한 강조의 의미로 알고 있는 ‘는’과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15)는 ‘시간’의 의미이다. 동생이 운동하는 시간 ‘아침’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를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서술어인 동사 ‘운동하다’를 보고 행동이 일어나

17) 미얀마어에서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ဖြင့်/pʰyin/(문어체), နဲ့/né/(구어체)’를 사용하다. 구어체인 ‘နဲ့/né/’는 미얀마어에 접속사로 사용하는 조사와 동일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배치한 오류로 보인다.

는 ‘시간’의 의미를 ‘처소’의 의미로 생각해서 대치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6>은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6>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2	128	64%	72	36%	로서
13	145	72.5%	55	27.5%	과
14	166	83%	34	17%	는
15	168	84%	32	16%	에서

(3) 번역 테스트

조사 ‘에’의 ‘번역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동 관계’인 ‘도달점’을 나타내는 문항 5는 오답률이 21%,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문항 1은 오답률이 8%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16) ကလေးများသည် တိရိစာ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

kʰɑlè.myɑ: -ɵi tiyeisanyoun-ðó yautɔəhkar əlun pyɔ kya-ði.

아이들이 동물원으로(√에) 도착했을 때 아주 즐거워했어요.

(17)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တွင် ရှိသည်။

Shwedagon pagoda-ɵi yangon myó-dwin shi-ði.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서(√에) 있습니다.

예문 (16)은 ‘도달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아이들이 도달하는 장소인 ‘동물원’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으)로’를 사용한 오류였다. ‘도달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에는 ‘에’와 ‘로’가 있는데, ‘도달점’을 나타내는 문장의 서술어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미치다’

등이 있다. 이를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가 생겼다고 본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장을 번역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도 있었다.[18)]

예문 (17)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이다. 쉐다곤 파고다가 위치한 '양곤'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빈번히 접한 '에 있다'의 사용을 주의하지 못해 생긴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7>은 조사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7> '에'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한국어로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6	158	79%	42	21%	으로
17	184	92%	16	8%	에서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된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의미가 있는 문항 14는 오답률이 9.5%, '기준이 되는 대상'의 의미가 있는 문항 12는 오답률이 8%, '시간'을 나타내는 문항 11은 오답률이 3.5%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18) အိမ်မှာ မနေ့က ဟင်းမချက်လို့ ဂယ်စားခဲ့တယ်။

ein hma məne-gα hin matɕʰɛʔ loe. wɛsaːkʰè-dɛ.

어제에(√어제) 집에 요리하지 않아서 사 먹었어요.

(19) တစ်လကို နှစ်သိန်းလောက်ရတယ်။

təlá-gɔ hniʔthein:lauʔ yədɛ.

---

18) 미얀마어에서 조사 'သို့/ðò/'는 하나의 형태가 '방향'과 '도달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의 의미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으)로'에 해당하며, '도달점'의 의미는 한국어의 '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동한 경우가 많다.

한 달을(√에) 이십만 원쯤 받아요.

(20) မတ်လ မှာ မြန်မာပြည်သွားမယ်။

maʔ-lá-hmɑ̀ myanma-pyi θwà-mɛ.

3월에서(√에) 미얀마에 가겠어요.

예문 (18)은 '시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요리 안 하는 시간인 '어제'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없는데 학습자들이 조사 '에'를 첨가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시간 조사 '에'는 '어제, 오늘, 내일, 언제' 등 뒤에 생략한다는 것을 주의하지 못한 오류로 보였다. 또한, 미얀마어의 경우 시간 조사 'က/ká/'는 '어제'라는 과거형 뒤에 생략할 수 없다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조사 '에'를 첨가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문 (19)는 '기준이 되는 대상'의 의미이다. '기준'인 '한 달'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에'의 다른 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생겼다고 본다. 또한, 문장을 번역할 때 미얀마어의 구어체인 조사 'ကို/go/'는 목적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 이는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20)도 '시간'의 의미이다. 화자가 미얀마에 갈 시간인 '삼월' 뒤에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번역할 때 미얀마어에서는 '처소'와 '시간'을 나타낼 때 같은 조사 'မှာ/hma/'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 <표 Ⅲ-8>은 조사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8>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8	181	90.5%	19	9.5%	에(첨가)
19	184	92%	16	8%	을
20	193	96.5%	7	3.5%	에서

위에서 분석한 조사 ‘에’의 실험 도구에 따른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조사 ‘에’의 정확한 사용, 즉 대상이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의 경우 대상이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양 언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10%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19]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의미 인식으로 학습 시 어려움이 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조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문항은 오답률이 5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로/가’로 대치하였다.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은 오답률이 40%로 덜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가/에서’로 대치하였다.[20] 이는 학습자들은 대상 조사의 의미 사용을 파악하지 못해 뜻이 통하는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19)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의 원형 의미의 오류율 기준은 전체 항목의 평균 0≤13%보다 많으면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적으면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정하였다.

20)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의 확장 의미의 오류율 기준은 전체 항목의 평균 0≤17%보다 많으면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적으면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48.5%로 높았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36%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로서'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의 의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문장을 파악할 때 모국어 번역으로 뜻이 통한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12.5%로 낮게 나타났다.[21]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의미 사용으로 학습자들은 오류가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21%로 높게 나타났다.[22]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번역할 때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미치다' 등 서술어를 선택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미 숙지한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오답률이 8%로 낮게 나타났다.[23] 확장 의미 중에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제일 낮은 9.5%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의 의미를 잘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의미들보다 오류가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실험 도구에 따른 학습자들의 발생한 오류율을 확인해 보면 원형 의미에 비하면 확장 의미의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도구 중에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오류율이

---

21)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의 원형 의미의 오류율 기준은 전체 항목의 평균 0≤17%보다 많으면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적으면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정하였다.

22)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의 확장 의미의 오류율 기준은 전체 항목의 평균 0≤12%보다 많으면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적으면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정하였다.

23)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 오류율 기준은 전체 항목의 평균 0≤11%보다 많으면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적으면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정하였다.

높았으며 번역 테스트에는 오류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의 다양한 세부 의미의 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문장을 평가할 때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뜻이 통한다고 생각한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이 다른 문항과 한국어와 인식이 다른 문항에서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문항의 대치 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조사 '에'를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 과, 에게, 를, 는, 로서, 으로' 순이었다.

2.1.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1~2학년 학습자

1~2학년 학습자의 조사 '에'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철수는 화분에게(√에) 물을 주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78%, 2학년 학습자는 74%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향하는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저는 제주도에서(√에)가보고 싶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40%로 오류율이 높았다. 2학년 학습자는 낮은 1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반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실에서(√에) 학생들이 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10%, 2학년 학습자는 12%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또한,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약은 감기를(√에) 좋아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92%로 오류율이 제일 높았고, 2학년 학습자는 50%로 오류율이 덜 높았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것은 생각하기가/로(√에) 달려 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74%로 오류율이 높았으며 조사 '가'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76%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가'로 대치하였다.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이 있는 '국물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더 맛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74%, 2학년 학습자는 6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포유류가(√에) 무엇이 있지?' 문항은 1학년 학습자는 70%로 오류율이 높았으며, 2학년 학습자는 38%로 오류율이 덜 높았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가'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미선이는 서울대학교에서(√에)입학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52%, 2학년 학습자는 60%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에서(√에) 이름을 쓰세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48%, 2학년 학습자는 3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식당에서 사람이 많아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32%, 2학년 학습자는 1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또한, '냉장고에서(√에) 우유가 없어요'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1학년 학습자가 24%, 2학년 학습자는 14%로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또한,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는 요란한 소리로서(√에) 잠을 깼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72%, 2학년 학습자는 40%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로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마리아는 칼과(√에) 손을 베였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0%, 2학년 학습자는 2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시간'의 의미가 있는 '나는 하루는(√에) 두 번씩 세수한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42%, 2학년 학습자는 2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는'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동

생은 매일 아침에서(√에) 운동한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30%, 2학년 학습자는 1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ကလေးများသည် တိရိစ္ဆာ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kʰɑlè.myá-ɵi tiyeisanyoun ðó yautɔəhkar əlun pyɔ kya-ði) 아이들이 동물원으로(√에) 도착할 때 아주 즐거워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2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1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တွင် ရှိသည်။ (Shwe dagon pagoda-ɵi yangon myó dwin shi-ði)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서(√에) 있습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12%, 2학년 학습자는 4%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기준이 되는 대상'의 의미를 보여주는 'တစ်လကို နှစ်သိန်းလောက်ရတယ်။(tiʔla go hniʔthein lauʔ yə-dɛ)한 달을(√에) 이십만원 쯤 받아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24%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반면에 2학년 학습자는 6%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မတ်လမှာ မြန်မာပြည်သွားမယ်။(maʔla-**hma** myan-mar pyi ɵwà-mɛ) 3월에서(√에) 미얀마에 갈 거예요' 문항은 1~2학년 학습자들은 6%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9>와 같다.

<표 Ⅲ-9>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실험 도구	의미	1학년				2학년				대치 오류 유형
		정답		오답		정답		오답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11	22%	39	78%	13	26%	37	74%	에게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5	90%	5	10%	44	88%	6	12%	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 조건	4	8%	46	92%	12	24%	38	76%	로/가
	제한된 범위	15	30%	35	70%	31	62%	19	38%	가
오류 수정 테스트	행위의 목적지	24	48%	26	52%	20	40%	30	60%	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38	76%	12	24%	43	86%	7	14%	에서
	원인	14	28%	36	72%	30	60%	20	40%	로서
	시간	35	70%	15	30%	41	82	9	18%	에서
번역 테스트	도달점	40	80%	10	20%	43	86%	7	14%	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4	88%	6	12%	48	96%	2	4%	에서
	기준이 되는 대상	38	76%	12	24%	47	94%	3	6%	을
	시간	47	94%	3	6%	47	94%	3	6%	에서

숙달도 별 조사 ‘에’의 다양한 의미 사용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1학년 학습자는 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대상 조사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습득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제2 언어학습에서 혼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에’의 다양한 의미별 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확장 의미 중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나 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은 낮게 나타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에’의 의미 사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학습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

고 원형 의미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1~2학년 학습자들의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그들 간의 오류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2학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부터 빈번히 접한 조사 '에'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에게'의 사용 차이를 2학년에 이르러서도 잘 학습하지 못한 이유로 보였다. 또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이 다른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테스트 중에서 '에'의 기본적인 의미인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다른 의미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도 1~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 1~2학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에'의 '존재지'와 '시간'의 의미는 다른 의미에 비하면 어려움을 덜 겪은 것으로 보였으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인식으로 오류가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학년 학습자들은 각 문항에서 조사 '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뜻이 통한다고 생각한 조사 '에서, 가, 를, 과, 는, 로서, 에게' 등 다양한 조사로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2) 3학년 학습자

3학년 학습자의 조사 '에'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철수는 화분에게(√에) 물을 주었다' 문항은 높은 5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게'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실에서(√에) 학생들이 있어요' 문항, '지향하는 목적지'의 의미가 있는 '저는 제주도에서(√에) 가보고 싶어요' 문항에서는 각 12%, 10%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에’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조건’의 의미를 보여 주는 ‘모든 것은 생각하기가(√에) 달려 있어요’ 문항은 5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가’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이 있는 ‘국물과(√에) 밥을 말라 먹으면 더 맛있다’ 문항은 4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포유류가(√에) 무엇이 있지?’ 문항은 30%로 오류율이 덜 높았으며, 조사 ‘가’로 대치하였다. 반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이 약은 감기를(√에) 좋아요’ 문항은 18%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행위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미선이는 서울대학교에서(√에) 입학했어요’ 문항은 36%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또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에서(√에) 이름을 쓰세요’ 문항은 3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반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냉장고에서(√에) 우유가 없어요’, ‘식당에서(√에) 사람이 많아요’ 문항에서 각 8%, 6%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는 요란한 소리로서(√에) 잠을 깼다’ 문항은 22%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로서’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마리아는 칼과(√에) 손을 베였어요’ 문항,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생은 매일 아침에서(√에) 운동한다’ 문항에서 각 10%, 나는 하루는(√에) 두 번씩 세수한다’ 문항에서 6%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 ‘에서’, ‘는’로 대치하였다.

마지막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오류율이 높은 ‘도달점’을 나타내는 ‘ကလေးများသည် တိရိစ္ဆာ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kʰɑlè.myá-ɵi tiyeisanyoun-ðó yautɔəhkar əlun pyɔ kya-ði) 아이들이 동물원으로(√에) 도착할 때 아주 즐거워요’ 문항은 높은 20%의 오류율

을 보였으며 ‘에’로 대치하였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가 있는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တွင် ရှိသည်။ (Shwedagon pagoda-θi Yangon myó dwin shi-ði)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서(√에) 있습니다’ 문항은 12%의 덜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시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အိမ်မှာ မနေ့က ဟင်းမချက်လို့ ဝယ်စားခဲ့တယ်။(ein hma məne-gɑ hin matɕʰɛʔ loe. wɛsaːkʰ è-dɛ) 어제에(√어제) 집에 요리하지 않아서 사 먹었어요’ 문항은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를 첨가한 오류였다. ‘မတ်လမှာ မြန်မာပြည်သွားမယ်။ (maʔla- hma myan -mar pyi θwà-mɛ) 3월에서(√에) 미얀마에 갈 거예요’ 문항은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서’로 대치하였다. ‘기준이 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တစ်လကို နှစ်သိန်းလောက်ရတယ်။(tiʔla go hniʔthein lauʔ yə-dɛ) 한 달에 이십만 원쯤 받아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21	42%	29	58%	에게
	지향하는 목적지	45	90%	5	10%	에서
	조건	21	42%	29	58%	가
	목표나 목적의 대상	41	82%	9	18%	를
오류 수정 테스트	행위의 목적지	32	64%	18	36%	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7	94%	3	6%	에서
	원인	39	78%	11	22%	로서
	기준이 되는 단위	47	94%	3	6%	는
번역 테스트	도달점	40	80%	10	20%	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4	88%	6	12%	에서
	시간	48	96%	2	4%	에(첨가)
	기준이 되는 단위	50	100%	0	0	-

조사 ‘에’의 의미별 사용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1~2학년 학습자보다 낮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나 문법성 한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의미인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확장 의미 중에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1~2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낮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도 학습 단계가 올라가도 1~2학년 학습자들과 마찬가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에’의 특성에 대해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행위의 목적지’ 의미가 오류율이 높았으며 확장 의미에서 ‘원인’의 의미에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들도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문장 구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 조사의 의미 차이 및 용법을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마지막 번역 테스트에서는 다른 테스트와 다르게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보다 낮은 오류 양상을 보였다[24]. 원형 의미의 오류율도 1~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얀마어의 조사 ‘သို့/ðò/’는 ‘도달점’과 ‘방향’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번역하면 ‘에’와 ‘으로’에 해당하여 학습자들은 혼동하여 구별하지 못한다. 한국어에도 ‘행위가 향하는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에’와 ‘으로’를 사용하지만, ‘도착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조사 ‘에’는 ‘도착하다, 이르다’와 같은 서술어와 함께 쓸 수 있다. 반면 ‘지향점이나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으로’는 ‘도착하다, 이르다’와 같은 서술어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인해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도 헷갈려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4) 이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유사한 의미로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덜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법 과목이 3학년에 필수 과목으로 다루어 있어서 다른 학년보다 세밀하게 학습이 되며 조사 사용에 어려움이 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학년 학습자도 1~2학년 학습자들과 마찬가지 '에'의 기본적인 의미인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다른 의미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조사 '에'의 확장 의미인 '기준이 되는 단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접한 조사 '에'의 의미는 모국어에 있는 의미와 일대일로 대응되어 미얀마어 학습자들은 학습 시 어려움 없이 습득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문항에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에서, 과, 에게, 를, 가, 는, 로서, 으로' 등과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3) 4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의 조사 '에'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철수는 화분에게(√에) 물을 주었다' 문항은 높은 4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실에서(√에) 학생들이 있어요' 문항, '지향하는 목적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저는 제주도에서(√에) 가보고 싶어요' 문항은 각 6%, 2%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을 나타내는 '국물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더 맛있다' 문항에서 높은 4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이 있는 '국물과(√에) 밥을 말라 먹으면 더 맛있다' 문항은 40%,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포유류가(√에) 무엇이 있지?' 문항은 22%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 '가'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이 약은 감기를(√에) 좋아요' 문항은 제일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미선이는 서울대학교에서(√에) 입학했어요’ 문항에서 46%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에서(√에) 이름을 쓰세요’ 문항은 3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반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냉장고에서(√에) 우유가 없어요’, ‘식당에서(√에) 사람이 많아요’ 문항에서 각 4%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수단’의 의미를 보여 주는 ‘마리아는 칼과(√에) 손을 베였어요’ 문항에서 높은 1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그리고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는 요란한 소리로서(√에) 잠을 깼다’ 문항은 10%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로서’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생은 매일 아침에서(√에) 운동한다’ 문항은 6%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서’로 대치하였다.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세수한다’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문항 중에서 ‘도달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ကလေးများသည် တိရိစ္ဆာ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 (ǁkʰɑlè.myá-ɵi tiyeisanyoun-ðó yautɔ əhkar əlun pyɔ kya-ði) 아이들이 동물원으로(√에) 도착할 때 아주 즐거워요’ 문항은 높은 3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တွင် ရှိသည်။(Shwedagon pagoda-ɵi yangon myó dwin shi-ði)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서(√에) 있습니다’ 문항은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အိမ်မှာ မနေ့က ဟင်းမချက်လို့ ဂယ်စားခဲ့တယ်။(ein hma məne-gɑ hin ma ʦʰɛʔ loe. wɛsaːkʰè-dɛ) 어제에(√어제) 집에 요리하지 않아서 사 먹었어요’ 문항은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를 첨가한 오류였다. 반면에 ‘시간’의 의미가 있는 ‘မတ်လမှာ မြန်မာပြည်သွားမယ်။(maʔla-hma myanmar pyi ɵwà-mɛ) 3월에 미얀마에 갈 거예요’ 문항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27	54%	23	46%	에게
	지향하는 목적지	49	98%	1	2%	에서
	무엇이 더 하여짐	30	60%	20	40%	과
	목표나 목적의 대상	48	96%	2	4%	를
오류 수정 테스트	행위의 목적지	27	54%	23	46%	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8	96%	2	4%	에서
	수단	41	82%	9	18%	과
	기준이 되는 단위	50	100%	0	0	-
번역 테스트	도달점	35	70%	15	30%	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48	96%	2	4%	에서
	시간	48	96%	2	4%	에(첨가)
	시간	50	100%	0	0	-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의 의미별 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1~3학년 학습자들보다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1~3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조사 ‘에’의 세부 의미인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또한, 목표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모국어에는 유정명사, 무정명사를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양 언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장 의미 중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

항에서도 1~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았으나 3학년 학습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4학년 학습자들은 문장을 파악할 때 '국물에다가 밥을 더함'의 뜻을 '국물과 밥을 같이'의 뜻으로 착각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오류 수정 테스트 중 오류율이 높은 문항들을 확인해 보면 원형 의미 중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와 확장 의미 중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3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태는 문항의 경우 학습자들은 문장을 파악할 때 '에'의 의미 사용을 이해하지 않아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모국어로 번역하면 'မှာ/hmɑ/'로 대응된다. 그 'မှာ/hmɑ/'도 한국어의 '에'와 '에서'에 해당함으로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 모국어로 번역하면 'နဲ့/né/'로 대응된다. 그도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번역 테스트에서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1~3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4학년 학습자들도 다른 학습자들과 마찬가지 문장을 번역할 때 미얀마어의 조사 'သို့/ðò/'는 '도달점'과 '방향'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옮기면 조사 '에'와 '으로'에 해당하다. 한국어의 경우 '도착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도착하다, 이르다'와 같은 서술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헷갈려 오류를 범하였다. 즉 목표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즉 4학년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조사 '에'에 대한 세부 의미 차이에 인식이 부족한 부족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확장 의미에는 1~3학년 학습자들보다 낮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그중에서 '시간'이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는 조사 '에'의 확장 의미에서 다른 의미 사용보다 학습이 잘 되어가는 양상으로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조사 ‘에’의 숙달도에 따른 조사 사용오류 양상을 정리해 보면 초급 단계인 1~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중·고급 단계인 3~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초급 학습자들은 원형 의미보다 확장 의미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3~4학년 학습자는 1~2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4학년 학습자는 3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1~4학년 학습자들의 의미별 사용오류 양상을 보면 학습자의 대다수는 원형 의미인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류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이 문항에서 1~2학년 학습자는 3~4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1~4학년 학습자들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류율이 가장 낮았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1~4학년 학습자들은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이 문항에서 1~3학년 학습자보다 2~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다른 의미보다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특히 이 문항에서 1~2학년 학습자보다 3~4학년 학습자들의 오류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확장 의미 중에서 ‘목표나 목적의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에서’로 대치하였다. 이 문항에서도 특이하게 1학년 학습자보다 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3학년 학습자보다 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로서’로 대치하였다. 이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제일 높았으며 2~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에’를 첨가한 오류를 보였다. 이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2~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실험 도구별, 숙달도별로 조사 '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실험 도구에 따른 오류 양상에는 조사 '에'를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에게, 를, 로, 가, 과' 등 순이었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오류 수정 테스트의 오류율은 번역 테스트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조사 '에'의 다양한 세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조사 '에'를 조사 '에서, 에게, 는, 로서, 과, 를, 을, 가' 등 다양한 조사로 대치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문장을 파악할 때 문장 구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문장에 알맞은 조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목표어와 모국어 간 사용 인식이 다른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테스트의 숙달도 별 오류 양상에는 1~2학년 학습자는 3~4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4학년 학습자는 1~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보다 낮았지만 3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다. 또한, 4학년 학습자는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1~3학년 학습자의 오류율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는 초급 단계부터 접한 조사 '에'의 모든 세부 의미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데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2. '에서'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2.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문법성 판단 테스트

조사 ‘에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8은 오답률이 61.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5는 오답률이 22%,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6은 오답률이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21) 나무 위에(√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22)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23) 서울에(√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예문 (21~22)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행위지’의 의미이다. 예문 (21)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처소인 ‘나무 위’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습자들은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예문 (22)도 ‘만남’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처소인 ‘도서관’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숙지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즉 ‘존재지’의 의미가 있는 ‘에’와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행위지’의 의미가 있는 ‘에서’를 구별하지 못해 조사 ‘에’로 대치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모국어(미얀마어)의 영향으로 오류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다.[25]

예문 (23)은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화자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서울’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습자들이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에서’와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에’를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다음 <표 Ⅲ-12>는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25) 미얀마어에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한 경우가 많다.

<표 Ⅲ-12>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1	77	38.5%	123	61.5%	에
22	156	78%	44	22%	에
23	164	82%	36	18%	에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된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근거’를 나타내는 문항 6은 오답률이 12.5%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24) 고마운 마음과(√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문 (24)는 ‘근거’의 의미이다. 화자의 동기인 ‘고마운 마음’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의 다른 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조사로 대치하였다. 또한, 문장을 파악하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의 뜻으로 생각하였다. 그 때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조사 ‘(으)로’는 미얀마어로 옮기면 구어체 형식인 ‘နဲ့/né/’와 대응된다. 그 ‘နဲ့/né/’도 ‘도구’의 의미와 ‘동반’의 의미 등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 (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그 조사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자주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다음 <표 Ⅲ-13>은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13>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고르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4	175	87.5%	25	12.5%	과

(2) 오류 수정 테스트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의 사용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8은 오답률이 55.5%, 문항 6은 오답률이 38%, 문항 7은 15.5%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25) 그는 한국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26) 사람들이 가게 앞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 미선 씨는 이 물건을 시장부터(√에서) 사 왔습니다.

예문 (25~27)은 모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25)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한국'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 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예문 (26)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가게 앞'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를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숙지했던 유사한 의미가 있는 조사 '에서'와 '에'를 구별하지 못한 오류, 즉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6] 또한, 미얀마어의 경우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행위지'와 '존재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예문 (27)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시장'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부터'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이해하지 못해 뜻이 통한 다른 조사로 대치한 오류로 보였

26) 외국어대학교에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세대 한국어(1-1:1997)에서는 'It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n action'이라는 설명이 있으며, '신촌에서 삽니다'라는 예문이 나와 있다. 그런데 서술어인 '살다' 같은 동사의 경우 '에' '에서'가 모두 쓰일 수 있지만, 문장에서 '행복하게'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살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하면 '존재'보다 '행위'의 뜻이 강해지며 '에서'만 가능하다(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005:420).

다. 다음 <표 Ⅲ-14>는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14>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5	89	44.5%	111	55.5%	에
26	124	62%	76	38%	에
27	169	84.5%	31	15.5%	부터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 중에서 '비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6은 오답률이 9%로 나타났으며,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5는 오답률이 7%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28) 내가 먹었던 과자 중 이 제품이 맛에(√에서) 제일이다.
(29) 한국 음식 중을(√중에서) 무엇이 맛이 있어요?

예문 (28)은 '비교'의 의미이다. '내가 먹었던 과자 맛과 이 제품의 맛' 즉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이 제품이 맛'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 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의 의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해서 문장을 번역하는 데 의미가 통하는 조사로 대치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29)는 '제한된 범위'의 의미이다. 범위인 '한국 음식 중' 뒤에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의 의미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15>는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15>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8	182	91%	18	9%	에
29	186	93%	14	7%	을

(3) 번역 테스트

조사 ‘에서’의 ‘번역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문항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예문 3은 오답률이 82.5%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항 2는 오답률이 76%, 문항 6은 오답률이 14.5%,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7은 오답률이 7%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30)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ဝယ်** ပျံဂဲနေသည်။

pyàmyà-θi pɑǹ.pin-tʰɛʔ-wɛ pyɑn-wɛ̀ ne-ði.

꿀벌들이 나무 위에(√에서) 맴돌고 있다.

(31) မိဘတွေက နိုင်ငံခြား**မှာ** နေတယ်။

mi.bɑ.dwe-gɑ nainŋancha.hmɑ ne-dɛ.

부모님이 외국에(√에서) 삽니다.

(32) အမေသည် သားကို အိမ်ရှေ့**က** စောင့်သည်။

əme-θi θà-go ein.she.-kɑ sáun.-ði.

어머니께서 아들을 집 앞에(√에서) 기다리고 있다.

(33) မင်းစိုးသည် ဘူဆန်**မှ** ပြန်လာသည်။

minsoe-θi busan hma pyanla-ði.

민수 씨가 부산부터(√에서) 돌아왔어요.

예문 (30~32)는 모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장들이다. 예문 (30)은 꿀벌들이 맴돌고 있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나무 위'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예문 (31)도 부모님이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외국'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빈번히 접한 조사 '에서'와 '에'의 미묘한 의미 구별을 이해하지 못한 오류, 즉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27)]

예문 (32)도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집 앞'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한국어에는 처소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 즉 '존재지'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행위지' 등 의미에 따라 '에'와 '에서'가 다르게 사용된다. 반면에 미얀마어에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로 구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옮길 때 혼동하여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문 (33)은 '출발점'의 의미이다. 민수가 출발한 곳 '부산'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부터'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조사로 대치하였다. 또한, 조사를 사용할 때 그 조사의 의미를 모국어에 있는 의미와 헷갈려 발생한 오류로 보였다.[28)] 다음 <표 Ⅲ-16>은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

27) 한국어의 경우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나타낼 때 '에서'를 사용하는데 서술어인 '살다' 같은 동사는 '에'와 '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에'를 사용하면 존재하는 위치를, '에서'를 사용하면 실제로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다(국립국어원, 2015:419).

28) 한국어 학습 시 '격 조사'로서 '부터～까지'(부터= ᄒᆞᆫ/hmá/～까지=ᄯᅡ/tʰi/) 즉 '범위의 처음과 끝'의 의미를 학습자들이 '보조사'로서 '부터'(부터= ᄒᆞᆫ/hmá/) 즉 '시작'의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학습자는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부터'만 보고 '시작'의 'ᄒᆞᆫ/hmá/'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표 Ⅲ-16>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0	35	17.5%	165	82.5%	에
31	48	24%	152	76%	에
32	171	85.5%	29	14.5%	에
33	186	93%	14	7%	부터

그 다음으로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제에서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15는 오답률이 1.5%, ‘비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16은 오답률이 0.5%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34) ဆရာသည် ကျောင်းသားများအထဲမှ တစ်ယောက်ကို အတန်းမှူးအဖြစ် ရွေးချယ်လိုက်သည်။

saya-əi tɕàunðà-myà-ətʰɛ́.**hmá** tiʔ-yauʔ-go ə.tàn.mhù-əpʰyiʔ ywè.dzɛ.laiʔ-ði.

선생님이 학생에게 (√중에서) 한 명을 반장으로 뽑았어요.

(35) ကျောက်မျက်ရတနာတို့ထဲ**တွင်** စိန်သည် အမာဆုံးဖြစ်သည်။

tɕauʔ.myɛʔ.yadanà.tó-dwin ein-ði əmà.sòun-pʰyiʔ-ði.

보석으로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해요.

예문 (34)는 ‘제한된 범위’의 의미이다. 범위인 ‘학생 중’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예문 (35)는 ‘비교’의 의미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보석’ 뒤에 조사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대상 조사 ‘에서’의 의미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조사로 대치하였다. 다음 <표 Ⅲ-17>은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17> ‘에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4	197	98.5%	3	1.5%	에게
35	199	99.5%	1	0.5%	으로

위에서 조사 ‘에서’의 실험 도구에 따른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6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에서’의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행위지’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국어의 경우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는 ‘행위지’와 ‘존재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반면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18%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낮은 12.5%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인식으로 학습자들이 학습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높은 55.5%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행위지’의 의미와 ‘존재지’의의 의미를 잘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목표어와 모국어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사용 차이로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확장 의미’ 중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9%,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7%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이 유사함으로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이 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각 82.5%, 76%의 제일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문장을 번역할 때 모국어의 조사 'ဝယ် /wɛ/, ဟာ/hma/'는 '행위지'와 '존재지'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목표어의 경우 '행위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에서'를 사용하며 '존재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국어와 목표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출발점'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7%, '확장 의미' 중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1.5%, '비교'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0.5%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목표어와 모국어 조사의 유사한 사용으로 오류를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조사 '에서'의 의미 확장에 따른 오류 양상을 보면 번역 테스트와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는 오류율이 제일 높은 의미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테스트가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 유형에서 여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에'와 '에서'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류, 또한,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 등으로 학습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실험 도구에 따른 학습자들이 발생한 대치 오류 양상을 보면 조사 '에서'를 '에'로 대치한 오류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터, 과, 를' 순이었다.

2.2.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1~2학년 학습자

1~2학년 학습자의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무 위에(√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72%, 2학년 학습자는 50%의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서울에(√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32%, 2학년 학습자는 22%의 덜 낮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32%, 2학년 학습자는 18%의 덜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근거'의 의미를 보여 주는 '고마운 마음과(√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항은 1학년 학습자는 높은 3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2학년 학습자는 낮은 16%의 오류율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한국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0%, 2학년 학습자는 50%의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게 앞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여'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0%, 2학년 학습자는 3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미선 씨는 이 물건을 시장부터(√에서) 사왔습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32%, 2학년 학습자는 18%의 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부터'를 사용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한국 음식 중을/이(√중에서) 무엇이 제일 맛이 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높은 2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2%의 아주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이'로 대치하였다. '비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내가 먹었던 과자 중 이 제품이 맛에(√에서) 제일이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24%의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2학년 학습자는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다. 1~2학년 학습자 모두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 ပျံဝဲနေသည်။(pyà-myà-ɵi paǹ.pin-tʰɛʔ-**wɛ** pyan - wɛ̀ ne-ði) 꿀벌들이 나무 위에(√에서) 맴돌고 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86%, 2학년 학습자는 74%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မိဘတွေက နိုင်ငံခြားမှာ နေတယ်။ (mi.bɑ.dwe-gɑ nainŋancha.hmɑ ne-dɛ) 부모님이 외국에(√에서) 삽니다' 문항에서 1~2학년 학습자들은 각 7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မင်းစိုးသည် ဘူဆန်မှ ပြန်လာသည်။ (minsoe-ɵi busan hma pyanla-ði) 민수 씨가 부산부터/에(√에서) 돌아왔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덜 높은 1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부터'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 'အမေသည် သားကို အိမ်၌**ကု** စောင့်သည်။(ʔəme-ɵi ɵà-go ʔein-**kɑ** sáun.-ði) 어머니께서 아들을 집에(√에서) 기다리신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 2학년 학습자는 1학년 학습자보다 높은 1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를 첨가한 오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ဆရာသည် ကျောင်းသားများအထဲမှ တစ်ယောက်ကို အတန်းမှူးအဖြစ် ရွေးချယ်လိုက်သည်(။saya-ɵi ʨàun ðà-myà-ətʰé.**hmά** tiʔ-yɑuʔ-go ə.tàn.mhù-əpʰyiʔ ywè.dzɛ.lɑiʔ-ði) 선생님이 학생에게/안에(√중에서) 한 명을 반장으로 뽑았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도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 'ကျောက်မျက်ရတနာတို့တွင် စိန်သည် အမာဆုံးဖြစ်သည်။(ʨɑuʔ.myɛʔ.yɑdɑnà.tó-dwin ein-ði əmà.sòun-pʰyiʔ-ði) 보석으로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낮은 2%의 오류율 보였으며 '으로'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실험 도구	의미	1학년				2학년				오류
		정답		오답		정답		오답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문법성 판단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14	28%	36	72%	25	50%	25	50%	에
	출발점	34	68%	16	32%	39	78%	11	22%	에
	근거	33	66%	17	34%	42	84%	8	16%	과
오류 수정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20	40%	30	60%	25	50%	25	50%	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34	68%	16	32%	41	82%	9	18%	에
	제한된 범위	37	74%	13	26%	49	98%	1	2%	을, 이
	비교	38	76%	12	24%	49	98%	1	2%	에
번역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7	14%	43	86%	13	26%	37	74%	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47	94	3	6%	43	86%	7	14%	에
	제한된 범위	48	96%	2	4%	49	98%	1	2%	에게, 안에
	비교	49	98%	1	2%	50	100%	-	-	으로

1~2학년 학습자의 조사 ‘에서’ 사용오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 학습자는 2학년 학습자보다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에서도 ‘근거’의 의미에서 1학년 학습자보다 2학년 학습자의 오

류율이 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이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이는 1~2학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존재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에'와 '행위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에서'를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미얀마어에서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1~2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를 '에'와 과'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나타난 사용오류 양상을 살펴 정리해 보면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에서는 1학년 학습자와 2학년 학습자 모두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오류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제한된 범위'의 의미와 '비교'의 의미에서는 1년 학습자에 비하면 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오류율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에는 '존재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와 '행위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에서'의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이 다른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 양상을 보았다. 1~2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를 '에, 부터, 을, 이' 등으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에서 나타난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원형 의미 중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에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다. 1학년 학습자는 2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접한 '행위지'의 의미와 '존재지'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 '행위지'와 '존재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가 다르지만, 미얀마어의 조사 'ဝယ်/wɛ/'는 '행위지'와 '존재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같은 형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사용 차이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1~2학년 학습자는 확장 의미 중에서 '범위'와 '비교'의 의미에서 낮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오류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사용으로 인해 오류가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3학년 학습자

3학년 학습자의 조사 '에서' 관련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무 위에(√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문항은 높은 5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서울에(√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문항에서 낮은 1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3학년 학습자는 확장 의미와 관련한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한국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항에서 높은 4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미선 씨는 이 물건을 시장부터(√에서) 사 왔습니다' 문항은 낮은 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부터'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비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내가 먹었던 과자 중 이 제품이 맛에(√에서) 제일이다' 문항에서 아주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마지막 번역 테스트에서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၀ယ် ပျံဝဲနေသည်။(pyà-mya̰-ɵi pàn.pin-tʰɛʔ-wɛ pyan - wɛ̀ ne-ði) 꿀벌들이 나무 위에(√에서) 맴돌고 있다' 문항은 제일 높은 8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출발점'을 나타내는 'မင်းစိုးသည် ဘူဆန်မှ ပြန်လာသည်။(minsoe-ɵi busan-hma pyanla-ði) 민수 씨가 부산

으로(√에서) 돌아왔어요' 문항은 낮은 1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확장된 의미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의미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22	44%	28	56%	에
	출발점	44	88%	6	12%	에
	근거	50	100%	-	-	-
오류 수정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26	52%	24	48%	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46	92%	4	8%	부터
	비교	49	98%	1	2%	에
	제한된 범위	50	100%	-	-	-
번역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7	14%	43	86%	에
	출발점	45	90%	5	10%	으로
	제한된 범위	50	100%	-	-	-
	비교	50	100%	-	-	-

3학년 학습자들의 테스트 별 사용 오류 양상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 번역 테스트 등 각 테스트에서 오류율이 높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에서 1~2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큰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올라와도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접한 '존재지'와 '행위지'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여전히 오류가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미얀마어의 경우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각 테스트의 확장 의미인 '근거, 제한된 범위, 비교'의 의미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대상 조사에 대해 학습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를 '에, 부터, (으)로'로 대치한 양상을 보였다.

(3) 4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의 '에서'에 관련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무 위에(√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문항에서 높은 6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출발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서울에(√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문항에서 낮은 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는 확장 의미인 '근거'의 의미가 있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한국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항에서 높은 6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미선 씨는 이 물건을 시장에(√에서) 사 왔습니다' 문항에서 낮은 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자 '에'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가 먹었던 과자 중 이 제품이 맛에(√에서) 제일이다’ 문항에서 낮은 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 음식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맛이 있어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ဝယ် ပျံဝဲနေသည်။(pyà-myà-θi pàn.pin-tʰɛʔ- wɛ pyan - wɛ̀ ne-ði) 꿀벌들이 나무 위에(√에서) 맴돌고 있다’ 문항에서 높은 8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မင်းစိုးသည် ဘူဆန်မှ ပြန်လာသည်။(minsoe-θi busan-hma pyanla-ði) 민수 씨가 부산으로(√에서) 돌아왔어요’ 문항에서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20>와 같다.

<표 Ⅲ-20>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16	32%	34	69%	에
	출발점	47	94%	3	6%	에
	근거	50	100%	-	-	-
오류 수정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18	36%	32	64%	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48	96%	2	4%	에
	비교	46	92%	4	8%	에
	제한된 범위	50	100%	-	-	-
번역 테스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8	16%	42	84%	에
	출발점	49	98%	1	2%	으로
	제한된 범위	50	100%	-	-	-
	비교	50	100%	-	-	-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사용오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 번역 테스트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다른 학습자들과 마찬가지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특이한 것은 2~3학년 학습자의 오류율보다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1학년 학습자의 오류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가 고급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에서'의 의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한국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이 다른 미얀마어의 영향, 즉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각 테스트의 확장 의미와 관련된 ‘근거, 제한된 범위, 비교’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는 1~3학년 학습자보다 습득이 잘 되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를 ‘에, 으로’로 대치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2.3. ‘(으)로’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2.3.1. 실험 도구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문법성 판단 테스트

조사 ‘(으)로’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10은 57.5%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9는 오답률이 20%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36) 그 버스는 시청을(√으로) 해서 갑니다.
(37) 사무실은 이길에서(√로) 가십시오.

예문 (36)은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가 있는 문항이다. 버스가 지나가는 경로인 ‘시청’ 뒤에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으)로’의 의미 쓰임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경로의 의미인 ‘시청으로 해서’는 ‘장소+조사+해서’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반면에 미얀마어의 경우 ‘경로’의 개념이 없으며, 어떤 장소에 지나간다는 뜻으로 ‘장소+조사(ကို /go/)+지나가다(동사)’를 사용하며 ‘해서’와 같은 어휘가 없는 형식으로 표

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뜻이 통하는 조사 'ᄆᆞᆯ/go/'를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예문 (37)은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이다. 사무실에 향해 가는 '이 길' 뒤에 조사 '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으)로'의 '방향'의 의미를 '출발점'의 의미로 착각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21>은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21>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6	85	42.5%	115	57.5%	을
37	160	80%	40	20%	에서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 관련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자격'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7은 오답률이 47.5%,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문항 10은 오답률이 42.5%,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문항 8은 오답률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38) 그는 회장을(√으로) 뽑혔다.
(39) 그는 나를 바보로써(√로) 여겼다.
(40) 얼음이 물처럼(√로) 변했다.

예문 (38)은 '자격'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자격인 '회장'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조사 '(으)로'의 의미 사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문장을 번역할 때 '회장으로 뽑히는'의 의미를 '회장을 뽑다'의 의미로 착각해서 조사 '을'을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39)는 '생각하는 바'의 의미이다. 그가 생각하는 '바보'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으)로'의 여러 의미 사용을 파악하지 못해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

예문 (40)은 '변화의 결과'의 의미이다. 얼음이 물 상태로 되어가는 결과인 '물'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처럼'으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으)로'의 여러 쓰임을 숙지하지 못해서 문장을 번역해 보고 '변화'의 의미를 '비교'의 의미와 헷갈려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 다음 <표 Ⅲ-22>는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22>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알맞은 조사 골라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8	105	52.5%	95	47.5%	을
39	115	57.5%	85	42.5%	로써
40	132	66%	68	34%	처럼

(2) 오류 수정 테스트

조사 '(으)로'의 '오류 수정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에서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10은 오답률이 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9의 오답률은 16.5%에 불과하였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41) 한국을(√으로) 해서 일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42) 나는 부산에(√으로) 떠났어요.

예문 (41)은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이다. 목적지 일본으로 가는 데 직접 거쳐 가는 경로인 '한국'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 '(으)로'를 파악하지 못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국어에서는 '경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뜻이 통하는 다른 조사로 대치한 오류로 보였다.

예문 (42)는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이다. 화자가 향해 가는 곳인 '부산'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접한 '(으)로'가 '방향'의 의미를 나타낼 때 '떠나다, 향하다, 출발하다' 등 동사와 어울려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로 보였다. 즉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모국어로 생각하여 뜻이 통한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였다[29]. 다음 <표 Ⅲ-23>은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23>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1	28	14%	172	86%	을
42	167	83.5%	33	16.5%	에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하여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에서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단'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8은 오답률이 58.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가 있는 문항 9는 오답률이 38%, '재료'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7은 오답률이 29%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29) 미얀마어에는 향해 가는 곳 즉 지향점을 나타낼 때 조사 'ကို/ðò/'를 사용하며 '방향', '경로'의 의미 구별이 없다. 번역하면 한국어의 '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으)로'를 사용하는 자리에 '에'를 쓰는 경우가 많다.

(43) 올해 지하철에서(√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44)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의(√로) 바쁘다.

(45) 이 안경은 유리를(√로) 만들어서 무겁다.

예문 (43)은 '수단'의 의미이다. 출근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인 '지하철'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수단'의 의미를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로 생각해서 조사 '에서'를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

예문 (44)는 '이유'의 의미이다. 화자가 바쁜 이유인 '회사일' 뒤에 조사 '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이'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회사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의 의미를 '일이 많다'는 '평범한 의미'로 이해하여 조사 '이'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예문 (45)는 '재료'의 의미이다. 안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유리' 뒤에 조사 '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를'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조사 '(으)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24>는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24>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틀린 조사 고쳐 쓰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3	83	41.5%	117	58.5%	에서
44	124	62%	76	38%	이
45	142	71%	58	29%	를

(3) 번역 테스트

조사 '(으)로'의 '번역 테스트'에서 원형 의미와 관련된 문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가 있는 문항 9는 오답률이 8%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46) ဧရာဝ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addy-myi?-ei myau?-bɛ?-hmá taun-bɛ?- ðó sisin-ði.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을(√으로) 흘러가요.

예문 (46)은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이다. 이라와디강이 흘러가는 방향인 ‘남쪽’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번역할 때 미얀마어 조사 ‘သို့/ðo/’와 대응되는 한국어의 조사를 이해하지 못해 뜻이 통한다고 생각한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문장을 번역하는데 모국어의 영향[30]으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25>는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표 Ⅲ-25> ‘(으)로’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6	184	92%	16	8%	을

다음으로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20은 오답률이 7%, ‘도구’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 10은 오답률이 5%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30) 미얀마어에는 방향을 나타낼 때 ‘သို့/ðo/’와 ‘ကို/go/’를 사용하다. 그중에서 사용 빈도가 많은 구어체 형식의 ‘ကို/go/’는 목적격 조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 ‘ကို/go/’와 동일한 형태이다. 번역하면 한국어의 ‘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한다.

(47) သူသည် နှလုံးရောဂါ**ဖြင့်** ကွယ်လွန်သည်။

θu-θi hnə.lòun.yɔ̀gɑ-**pʰyin** kwɛ.lun-ði.

그는 심장병과(√으로) 사망했어요.

(48) စာမေးပွဲဖြေသောအခါ ဘောပင်**ဖြင့်**ရေးပါ။

same:bwɛ: pʰyetɔ akʰa bɔ:pin pʰyin. yè-ba.

시험을 볼 때 볼펜과(√으로) 쓰세요.

예문 (47)은 '이유'의 의미이다. 화자가 사망한 이유인 '심장병'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번역해서 파악할 때 대상 조사의 의미 사용을 파악하지 못해 미얀마어 조사 '**ဖြင့်**/pʰyin/'의 구어체 형식인 '**နဲ့**/nɛ́/'로 옮겨 생각하여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31]

예문 (48)은 '도구'의 의미이다. 시험 볼 때 사용하는 도구인 '볼펜' 뒤에 조사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습자들이 '과'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접한 조사 '(으)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문장을 파악할 때 미얀마어 조사 '**ဖြင့်**/pʰyin/'의 구어체 형식인 '**နဲ့**/nɛ́/'로 옮겨 생각하여 그와 형식이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보였다.[32] 다음 <표 Ⅲ-26>은 조사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이다.

31) 미얀마어에는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ဖြင့်**/pʰyin/'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형태로는 '**နဲ့**/nɛ́/'가 있다. '**နဲ့**/nɛ́/'는 다양한 의미에 쓰이는 데 그중에서 접속 조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နဲ့**/nɛ́/'는 한국어의 '과'와 대응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한다.

32) 미얀마어에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ဖြင့်**/pʰyin/'를 사용하며 구어체로는 '**နဲ့**/nɛ́/'를 사용한다. 구어체 '**နဲ့**/nɛ́/'는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한다.

<표 Ⅲ-26> '(으)로'의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별 오류 비율

문항	번역하기 문제				오류
	정답		오답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7	186	93%	14	7%	와
48	190	95%	10	5%	과

위에서 제시한 조사 '(으)로'의 실험 도구에 따른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5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 모국어에 없는 인식으로 학습 시 어려움을 겪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47.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반면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20%의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출발점'의 의미와 착각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8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대상 조사의 의미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문장 구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모국어에 없는 인식 차이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마찬가지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높은 58.5%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 구성을 평가할 때 해석을 잘못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반면 학습자들은 '움직임이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답률이 16.5%로 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평가할 때 뒤에 오는 서술어인 동사 '떠나다'를 주의하지 못해 유사한 의미인 '에'와 헷갈려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 중에서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8%로,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답률이 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와 모국어의 유사한 의미 사용으로 학습 시 어려움이 덜 겪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습자들이 발생한 대치 오류 유형을 보면 조사 '(으)로'를 '을'로 대치한 오류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에서, 에, 를, 와, 처럼, 로써, 이' 순이었다.

2.3.2.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

(1) 1~2학년 학습자

1~2학년 학습자의 조사 '(으)로'에 관련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버스는 시청을(√으로) 해서 갑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76%, 2학년 학습자는 54%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사무실은 이 길에서(√로) 가십시오' 문항에서는 1학년 학습자는 34%, 2학년 학습자는 18%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또한,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변화의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얼음이 물처럼(√로) 변했다' 문항은 1학년 학습자는 6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처럼'으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4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는 회장을(√으로) 뽑혔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60%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2학년 학습자는 4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생각하는 바'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는 나를 바보로써(√로) 여겼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가 48%, 2학년 학습자는 44%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을(√으로) 해서 일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86%, 2학년 학습자는 88%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나는 부산에(√으로) 떠났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38%, 2학년 학습자는 1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올해에 지하철에서(√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86%, 2학년 학습자는 64%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재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안경은 유리를(√로) 만들어서 무겁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4%, 2학년 학습자는 28%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이(√로) 바쁘다’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60%, 2학년 학습자는 38%의 덜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이’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ဧရာဝ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 addymyiʔ-ɵi myɑuʔ-bɛʔ-hmá tɑun-bɛʔ- **ðó** sisin-ði) 이라와디 강이 북쪽에서 남쪽을/에(√으로) 흘러가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높은 2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덜 높은 1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သူသည် နှလုံးရောဂါဖြင့် ကွယ်လွန်သည်။(ɵu-ɵi hnə.lòun.yàgɑ-**pʰyin** kwɛ.lun-ði) 그는 심장병과/로써(√으로) 사망했어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높은 2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낮은 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စာမေးပွဲဖြေသောအခါ ဘောပင်ဖြင့်ရေးပါ။(samèː bwɛː pʰyetɔ akʰa bɔːpin **pʰyin.** yè-ba) 시험을 볼

때 볼펜과/을(√으로) 쓰세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는 높은 1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2학년 학습자는 낮은 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1~2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실험 도구	의미	1학년				2학년				오류
		정답		오답		정답		오답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12	24%	38	76%	23	46%	27	54%	을
	움직임의 방향	33	66%	17	34%	41	82%	9	18%	에서, 을
	변화의 결과/자격	16	32%	34	68%	23	46%	27	54%	을
	생각하는바/변화의 결과	26	52%	24	48%	30	60%	20	40%	로써, 처럼
오류 수정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7	14%	43	86%	6	12%	44	88%	을
	움직임의 방향	31	62%	19	38%	45	90%	5	10%	에
	수단	7	14%	43	86%	18	36%	32	64%	에서
	원인이나 이유/재료	20	40%	30	60%	36	72%	14	28%	를
번역 테스트	움직임의 방향	40	80%	10	20%	45	90%	5	10%	을, 에
	이유	40	80%	10	20%	47	94%	3	6%	과, 로써
	도구	43	86%	7	14%	47	94%	3	6%	와

숙달도 별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 사용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1학년 학습자보다 2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오류 비율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조사 '(으)로'에 대해 학습이 숙지하지 못했으나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습득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별 오류 양상을 원형 의미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각 테스트 중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2학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으)로'에 대한 학습할 때 '경로'의 의미보다 '방향'의 의미를 학습하였으므로 '경로'에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미얀마어 조사에서 '방향'의 의미만 있으며 '경로'의 개념이 없다. 이런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확장 의미 중에서 '변화의 결과, 자격, 수단,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들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얼음이 물처럼 변했다',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회장을 뽑다',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퇴근 후에도 회사일이 바쁘다'와 같은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조사 '(으)로'에 대해 다양한 의미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 문장을 번역하는 데 해석이 잘못되어 다른 조사를 대치한 양상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움직임의 방향, 도구'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들은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양상을 보였다. 이는 1~2학년 학습자들은 목표어와 모국어의 조사는 의미가 유사하거나 사용 인식에 차이가 없으면 학습 시 어려움을 덜 겪으며 학습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학년 학습자들은 각 문항에서 조사 '(으)로'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조사 '을, 를, 에서, 로써, 에, 처럼, 이, 와, 과' 등 다양한 조사를 사용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2) 3학년 학습자

3학년 학습자의 조사 '(으)로'에 관련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 버스는 시청을(√으로) 해서 갑니다' 문항은 높은 4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무실은 이 길에서(√로) 가십시오' 문항은 낮은 1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자격'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회장을(√으로) 뽑혔다' 문항은 높은 4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바'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나를 바보로써(√으로) 여겼다' 문항은 40%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변화'의 의미를 보여 주는 '얼음이 물처럼(√로) 변했다' 문항에서 덜 높은 1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처럼'으로 대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한국을(√으로)해서 일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항에서 높은 8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는 부산에(√으로) 떠났어요' 문항은 낮은 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 문항 중에서 '수단'의 의미를 보여 주는 '올해에 지하철에서(√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문항은 높은 5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이(√로) 바쁘다' 문항은 28%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이'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재료'의 의미를 보여 주는 '이 안경은 유리를(√로) 만들어서 무겁다' 문항은 낮은 1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ရောဂါကို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addy-myiʔ-ɵi myɑuʔ-bɛʔ-hmɑ́ tɑun-bɛʔ-ðó sisin-ði)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에(√으로) 흘러가요' 문항은 낮은 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도구'의 의미와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3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28	56%	22	44%	을
	움직임의 방향	44	88%	6	12%	에서
	자격	28	56%	22	44%	을
	변화의 결과	41	82%	9	18%	처럼
오류 수정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8	16%	42	84%	을
	움직임의 방향	47	94%	3	6%	에
	수단	25	50%	25	50%	에서
	재료	43	86%	7	14%	를
번역 테스트	움직임의 방향	47	94%	3	6%	에
	원인이나 이유	50	100%	-	-	-
	도구	50	100%	-	-	-

숙달도에 따른 3학년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해 보면 1~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원형 의미보다 확장 의미의 오류율이 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은 1~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아졌으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가 높은 3학년 학습자는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접한 조사 '(으)로'의 '방향'의 의미를 잘 인식하였으나 '경로'의 의미에는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미얀마어 조사에서 '방향'의 개념이 있었으나 '경로'의 개념이 없어서 학습자들은 목표어와 모국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장 의미에서 '수단'의 의미와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오류율이 덜 높았으며 오류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회장을 뽑다'와 같은 문항들은 해석이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은 대상 조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문장을 해석해서 의미가 유사한 조사나 뜻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사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즉 3학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 단계가 올라가도 습득이 향상되지 않으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반면 '움직임의 방향, 재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특히 '원인이나 이유,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3학년 학습자들도 목표어와 모국어의 의미와 사용이 유사할 때 학습 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학년 학습자들은 각 문항에서 조사 '(으)로'를 조사 '을, 에서, 에, 처럼, 로써, 이' 등으로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3) 4학년 학습자

4학년 학습자의 조사 '(으)로'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

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 버스는 시청을(√으로) 해서 갑니다' 문항은 높은 5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무실은 이 길에서(√로) 가십시오' 문항은 덜 높은 1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생각하는 바'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나를 바보로써(√로) 여겼다' 문항은 높은 38%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작격'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회장을(√로) 뽑혔다' 문장은 32%의 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 '변화의 결과'의 의미를 보여 주는 '얼음이 물을(√로) 변했다' 문항은 낮은 1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한국을(√으로) 해서 일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항은 제일 높은 8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는 부산에(√으로) 떠났어요' 문항은 낮은 1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 문항 중에서 '수단'의 의미를 보여 주는 '올해에 지하철에서(√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문항은 높은 34%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이(√으로) 바쁘다' 문항은 덜 높은 2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이'로 대치하였다. 반면 '재료'의 의미를 보여 주는 '이 안경은 유리를(√로) 만들어서 무겁다' 문항은 낮은 10%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를'로 대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 테스트의 '원형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방향'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ဧရာဝ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Irrawaddymyiʔ-ɵi myɑuʔ-bɛʔ-hmɑ́ tɑun-bɛʔ-ðó sisin-ði)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에(√으로) 흘러가요' 문항은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확장 의미'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သူသည် နှလုံးရောဂါဖြင့် ကွယ်လွန်သည်။(θu-θi hnə.lòun.yɔ̀gα-pʰ yin kwɛ.lun-ði) 그는 심장병으로써(√으로) 사망했어요’ 문항은 낮은 2%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조사 ‘으로써’로 대치하였다.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높은 오류율과 낮은 오류율, 대치 오류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4학년 학습자의 테스트 별 조사 사용오류 비율

테스트	각 문항의 이미	정답		오답		오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문법성 판단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22	44%	28	56%	을
	움직임의 방향	42	84%	8	16%	에서
	생각하는 바	31	62%	19	38%	로써
	변화의 결과	45	90%	5	10%	을
오류 수정 테스트	움직임의 경로	7	14%	43	86%	을
	움직임의 방향	44	88%	6	12%	에
	수단	33	66%	17	34	에서
	재료	45	90%	5	10%	를
번역 테스트	움직임의 방향	49	98%	1	2%	에
	원인이나 이유	50	100%	-	-	-
	도구	50	100%	-	-	-

숙달도에 따른 4학년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정리해 보면 원형 의미의 오류율은 1학년 학습자보다 낮았지만, 2~3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확장 의미에 오류율에는 1~3학년 학습자의 오류율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숙달도

가 높은 4학년 학습자는 학습 단계가 올라가도 조사 '(으)로'의 쓰임에 대한 다단계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양상을 보였다.

4학년 학습자들은 1~3학년 학습자들과 마찬가지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하에서 높은 오류 양상을 보였으며 오류율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4학년 학습자들도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으)로'의 '방향'의 의미와 '경로'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숙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대응되는 미얀마어 조사는 '방향'의 개념이 있었으나 '경로'의 개념이 없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의미 사용 차이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즉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학습이 잘 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확장 의미 중에서 '생각하는 바'의 의미와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오류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조사 '(으)로'와 '로써'를 헷갈려 잘못 사용한 오류, '수단'의 의미를 '존재지'의 의미로 잘못한 해석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숙달도가 높은 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 사용을 파악하지 못할 때 조사 '을, 를, 에, 에서, 로써, 이' 등으로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을'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위에서 분석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사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관련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30>과 같다.

<표 Ⅲ-30>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문법성 판단 테스트)

	항목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 검정 (Scheffe)
원형의미	에	1~2	50	.4650	.15899	15.590	.000*	1~2학년< 3, 4학년
		3	50	.5500	.17496			
		4	50	.6150	.14472			
	에서	1~2	50	.4675	.20918	2.960	.054	
		3	50	.5500	.18898			
		4	50	.5000	.17496			
	으로	1~2	50	.5050	.37264	7.622	.001*	1~2학년< 4, 3학년
		3	50	.7200	.33746			
		4	50	.6700	.31315			
확장의미	에	1~2	50	.3225	.23915	62.134	.000*	1~2학년<3학년 <4학년
		3	50	.6350	.29542			
		4	50	.7700	.21333			
	에서	1~2	50	.3750	.21760	16.417	.000*	1~2학년< 3, 4학년
		3	50	.5000	.00000			
		4	50	.5000	.00000			
	으로	1~2	50	.3575	.25439	12.904	.000*	1~2학년< 3, 4학년
		3	50	.4950	.21718			
		4	50	.5500	.21429			

*p<0.05

<표 Ⅲ-30>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별 조사 '에'의 사용오류 양상을 확인해 보면 먼저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원형 의미'에서 조사 '에'는 (p=0.000)으로 1~2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장 의미'에서 조사 '에'는 (p=0.000)으로 1~2학년 학습자와 3,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급 단계인 1~2학년 학습자에 비하면 중·고급 단계인 3~4학년 학습자는 조사 '에'의 다양한 의미와 그들 간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잘 인식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습득이 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 '에서'는 (p=0.054)로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으)로'에서는 (p=0.001)로 1~2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에서’도 (p=0.000)으로 1~2학년 학습자와 3,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 조사 ‘(으)로’에서도 (p=0.000)으로 1~2학년 학습자와 3,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별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별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대체로 저학년에 비하면 고학년이 더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저학년 때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여러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습득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보다 확장 의미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양상도 보였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 접한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인식이 학습 단계가 올라가도 다양한 의미 용법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류 수정 테스트’에 관련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오류 수정 테스트)

	항목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 검정 (Scheffe)
원형의미	에	1~2	50	.6525	.27729	8.000	.000*	1~2학년< 4, 3학년
		3	50	.8000	.24223			
		4	50	.7900	.20429			
	에서	1~2	50	.6150	.27848	5.868	.003*	1~2학년< 4, 3학년
		3	50	.7500	.24223			
		4	50	.7300	.23604			
	으로	1~2	50	.4450	.29211	2.760	.066	
		3	50	.5500	.23146			
		4	50	.5100	.25734			
확장의미	에	1~2	50	.6175	.27856	35.254	.000*	1~2학년< 3, 4학년
		3	50	.8800	.22154			
		4	50	.9150	.13933			
	에서	1~2	50	.8650	.31667	5.572	.004*	1~2학년< 3학년
		3	50	.9900	.07071			
		4	50	.9600	.13702			
	으로	1~2	50	.3250	.25251	22.949	.000*	1~2학년< 3, 4학년
		3	50	.5200	..23604			
		4	50	.5750	.19724			

*p<0.05

<표 Ⅲ-31>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 수정 테스트'를 통해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에서 조사 '에'는 1~2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조사 '에서'도 1~2학년 학습자와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으)로'에서는 학습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확장 의미'에서 조사 '에'는 1~2학년 학습자와 3, 4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에서'도 1~2학년 학습자와 3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 '(으)로'의 경우 1~2학년 학습자와 3,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사용 양상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 테스트'에 관련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번역 테스트)

	항목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 검정 (Scheffe)
원형의미	에	1~2	50	.5833	.14506	.665	.515	
		3	50	.5600	.19564			
		4	50	.5533	.17314			
	에서	1~2	50	.5675	.19738	.492	.612	
		3	50	.5350	.21435			
		4	50	.5450	.20006			
	으로	1~2	50	.8500	.35887	3.839	.023*	1~2학년< 4학년
		3	50	.9400	.23990			
		4	50	.9800	.14142			
확장의미	에	1~2	50	.6525	.15849	11.308	.000*	1~2학년< 3, 4학년
		3	50	.7350	.05997			
		4	50	.7350	.07841			
	에서	1~2	50	.9800	.09847	2.052	.131	
		3	50	1.0000	.00000			
		4	50	1.0000	.00000			
	으로	1~2	50	.8550	.29555	3.163	.044	
		3	50	.9600	.13702			
		4	50	.9100	.21876			

*p<0.05

<표 Ⅲ-32>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학년별 '에, 에서, (으)로'의 오류율을 보면 '원형 의미'에서 조사 '에'는 (p= 0.515)로 학년별 학습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조사 '에서'도 (p=0.612)로 학년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 '(으)로'에서는 (p=0.023)으로 1~2학년과 4학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확장 의미'에서 조사 '에'는 (p=0.000)로 1~2학년 학습자와 3, 4학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 '에서'와 '(으)로'에서는 학년별 학습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별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저학년에 비하면 고학년이 더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초급 단계에는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학습 단계가 향상되면서 인식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 에서, (으)로'의 평균값을 자세히 살펴보면 1~3학년까지 평균값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4학년에 평균값이 낮아지는 후퇴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원형 의미에 비해 확장 의미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양상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학습 단계가 올라가도 향상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고급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다의적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었다.

4. '에, 에서, (으)로' 사용의 오류 원인 분석

4.1. 언어 간 전이 오류

본 절에는 앞에서 살펴본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오류 양상을 오류의

원인과 관련하여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를 사용 시 어떤 오류를 범하였는지 그 오류 유형을 정리하며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조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Brown, 2000), 코더(Corder, 1974)에서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는 제2 언어에 대한 학습의 경우 초기 단계에 많이 나타나는데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제2 언어에 대한 학습의 경우 모국어로 구성된 언어 체계가 학습자에게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받아들이기에 제1 언어와의 접촉은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모국어의 영향이 강한 경우 학습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측정할 수 있다. 모국어가 목표어에 미치는 영향의 사례로는 목표 언어의 조사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번역을 그대로 목표어로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가 대표적이다. 이는 1~2학년 학습자들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33] 특히 1~2학년 학습자는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용법을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였다.

먼저 조사 '에'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1~4학년 학습자들은 오류율이 높은 문항인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철수는 화분에게(√에) 물을 주었다' 문항에서 1~4학년 학습자 대다수는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에 따라 조사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조사 '에게'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와 대응되는 미얀마어의 경우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구별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번역을 그대로 목표어로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이해하지 않을 때 모국어로 번역해서 뜻이 통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조사를 사용하였다. '더하여짐'의 의미를 보여

33) 응답자 중에서 몇몇 학습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응답을 고를 때 '조사의 용법을 모를 때 어떻게 응답했냐'는 질문에 초급 학습자는 응답을 모를 때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고급 학습자는 번역하지 않고 직관으로 판단해서 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주는 ‘국물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더 맛있다’ 문항은 ‘국물에 밥을 더함’의 의미인데 학습자들이 ‘국물과 밥을 같이 먹다’라고 생각하여 모국어의 조사를 번역한 대로 조사 ‘과’로 대치하였다. 미얀마어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사 ‘နှင့်/hnin.(문어체), ‘နဲ့/nɛ́/(구어체)’가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수단’의 의미를 보여 주는 ‘마리아는 칼과(√에) 손을 베였어요’ 문항에서도 이런 오류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 ‘시간’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အိမ်မှာ မနေ့က ဟင်းမချက်လို့ ဂယ်စားခဲ့တယ်။(ein hma məne-gɑ hin matɕʰɛʔ loe. wɛsa:kʰè-dɛ) 어제에(√어제) 집에 요리하지 않아서 사 먹었어요’ 문항에서 학습자들이 조사 ‘에’를 첨가한 대치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목표어에는 시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제, 오늘, 내일, 언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에’가 붙지 않으며, 반면 미얀마어는 시간 조사는 어제, 오늘 등 뒤에 생략할 수 없다. 이런 미얀마어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어제’뒤에 조사 ‘에’를 첨가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사 ‘에서’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1~4학년 학습자들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인 ‘행위지’의 의미를 보여 주는 ‘나무 위에(√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문항에서 학습자 대다수는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처소에는 ‘존재지’의 의미와 ‘행위지’의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에 따라 ‘에’와 ‘에서’를 구별해서 사용한다. 반면 미얀마어의 경우 처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는 ‘존재지’와 ‘행위지’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를 사용한다. 이런 목표어의 영향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조사 ‘에’와 ‘에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오류가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상황인 번역 테스트의 문항 중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인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ယိ ပျံဝဲနေသည်။ (pyà-myà-θi pàn.pin-tʰɛʔ-wɛ pyan-wɛ̀ ne-ði) 꿀벌들이 나무 위에(√에서) 맴돌고 있다’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조사 '에'로 대치하였다. 그 문장에서 사용한 미얀마어 조사 'ဝယ် /wɛ/'는 한국어로 옮기면 조사 '에'와 '에서'에 해당하여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대상 조사의 미묘한 의미 사용을 구별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 '근거'의 의미를 보여 주는 '고마운 마음과(√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항도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의 의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모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문장에서 '고마운 마음과'의 조사 '과'는 미얀마어에는 구어체 형식으로 사용하는 'နဲ့/nɛ́/'이다. 그 'နဲ့/nɛ́/'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과/와'에 해당하며 학습자들은 미얀마어 번역을 그대로 목표어에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였다.

조사 '(으)로'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보여 주는 '한국을(√으로)해서 일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항에서 1~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의 의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문장을 번역하며 뜻이 통한 조사를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미얀마어에서는 '경로'의 개념이 없으며, 어떤 장소에 지나간다는 뜻으로 '장소+조사(ကို/go/)+지나가다(동사)'를 사용하며 '-해서'와 같은 어휘가 없는 형식으로 표현하다. 미얀마어의 조사 'ကို/go/'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을/를'에 해당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미얀마어 번역을 그대로 목표어에 적용한 오류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 '그 버스는 시청을(√으로) 해서 갑니다' 문항에서 학습자들이 조사 '을'로 대치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상 조사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장을 번역하며 미얀마어 번역을 목표어에 적용한 오류로 판단하였다. 이런 형식의 오류를 특히 초급 단계에서 많이 나타났으나 미얀마어 학습자들은 학습 단계가 오라가는 중·고급 단계까지 어려움을 범한 것을 보였다.

한편, 모국어와 목표어의 형태와 의미가 유사할 때 학습하기 쉽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적다. 이는 학습자들의 응답 중 오류율이 낮게 나타난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존재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실(√에) 학생들이 있어요' 문항은 오답률이 낮게 나타난 문항이었다. 이는 '존재지'를 나타

낼 때 사용하는 한국어 조사와 미얀마어 조사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보였다.

다음으로 의미는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도 다르고 의미도 다를 때 적절한 언어 사용이 어려웠다. 이는 언어 구조가 다를 때는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조사 '에, 에서, (으)로'는 처소와 관련된 원형 의미에서 '언어적 동기화, 은유의 작용' 등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미로 확장 의미가 나타났다. 즉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는 '장소'의 의미에서 시간, 조건, 범위, 원인 등 확장된 것을 보았다. 반면에 미얀마어의 조사는 원형 의미에서 한두 가지 의미까지만 확장되었다. 즉 '장소'의 의미에서 시간, 범위까지만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의 확장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여러 의미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보였다.

4.2. 언어 내 전이 오류

학습자들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경향도 있으나 목표 언어 내 전이가 일어나 발생한 원인도 있다. 언어 내 전이 오류(Intralingual Transfer)는 목표어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 즉 목표어 내에서의 일반화 현상으로 나타나며 과잉 일반화 오류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형태적 유사성, 의미적 유사성 등 언어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조사 '에, 에서, (으)로'를 사용 시 문법 교칙을 불완전 및 과용 적용하거나 발달상의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다음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한 의미로 인해 오류율이 높은 사례 중에서 조사 '에'와 관련한 문장인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보여 주는 '철수는 화분에게(√에)물을 주었다' 문항에서 1~4

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게'로 대치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무정명사일 때는 조사 '에'를 사용하며 유정명사일 때는 조사 '에게' 등 쓰이는 용어가 다양하다. 이런 개념이 없는 미얀마 학습자들은 대상 조사를 사용 시 어려움을 겪으며 오류가 발생하였다. 즉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이 의미를 배웠을 때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잉 적용으로 목표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유'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요란한 소리로써(√에) 잠을 깼다' 문항에는 그가 '잠을 깬' 이유는 '요란한 소리' 때문이라는 뜻에서 조사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로써'를 사용한 오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숙지했던 '도구'의 의미와 착각하며 조사 '로써'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번역 테스트에서 '도달점'의 의미를 보여 주는 '**ကလေးများသည် တိရိစာ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kʰɑlè.myá-ɵi tiyeisanyoun-ðó yautɔ əhkar-əlun-pyɔ kya-ði) 아이들이 동물원으로(√에) 도착할 때 아주 즐거워요' 문항에서 1~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으로'로 대치하였다. 이는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뒤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동사들과 어울리며, '방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뒤에 '향하다, 출발하다' 동사들과 어울리는 것을 학습자들이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런 목표어의 미묘한 차이로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에서'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오류 수정 테스트의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보여 주는 '그는 한국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항에서 1~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에서'로 대치하였다. 다음으로 번역 테스트의 '**မိဘတွေက နိုင်ငံခြားမှာ နေတယ်။**(mi.bɑ.dwe-gɑ nainŋancha.hmɑ ne-dɛ) 부모님이 외국에(√에서) 삽니다' 문항에서도 학습자들은 조사 '에'로 대치한 오류가 많았다. 이는 서술어 '살다'는 '행위'와 '존재'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에'를 사용하면 '존재하는 위치', '에서'를 사용하면 실제로 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행복하게'라는 부사어와 쓰게 되면 '존재'의 의미보다는 '행위'의 의미가 강해지므로 조사 '에서'만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국립국어원, 2005: 419). 이런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조사 '에'와 '에서'의 미묘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며, 즉 목표어의 언어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였다.

4.3. 교육과정에 따른 오류

교육 내용 및 교재, 교육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브라운(Brown, 2000)에서는 학습 맥락에 의한 오류는 제2 언어를 배우는 배경, 즉 학습 교재, 교사의 교육 내용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고 하였다. 미얀마인 학습자들도 교육과정과 교수자 등의 영향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학습 교재를 살펴보면 현재 미얀마 외국어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출판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재들을 부교재[34] 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또한,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용 책들도 부족한 상황이다. 주교재인 연세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Ⅲ-33>과 같이 볼 수 있었다.

34) 부교재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시 사용하는 것보다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교사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Ⅲ-33>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에, 에서, (으)로'의 의미

조사 항목		과	설명
에	에[1]	1-2(3)	장소(에 있다/없다)
	에	1-4(1)	방향(에 가다/오다)
	에[2]	1-5(3)	시간
	은/ㄴ 후에	1-9(2)	시간상 뒤
	기 전에	1-10(4)	시간상 앞
	만에	2-9(3)	시간의 간격
	에 비해서	2-6(2)	비교의 대상
	에다가	2-8(1)	동작의 목적지
	에 비하면	4-4(2)	기준
	-에 다(가)-까지	5-2(2)	더하여짐
	(으)ㄴ 끝에	6-3(2)	결과
	(으)ㄴ 탓에	6-5(2)	원인
에서	에서	1-3(4)	행위지
	에서~까지	1-7(2)	출발점,
	중에서	1-10(2)	행위의 근거와 배경
(으)로	(으)로/로[1]	1-7(1)	방향
	(으)로/로[2]	1-7(2)	수단, 원인, 이유, 자격
	(으)로/로하다	2-3(3)	선택
	(으)로/로	2-5(1)	교환의 대상
	로인해	4-5(3)	원인이나 이유
	(으)로 봐서는	4-9(2)	근거나 기준
	(으)로는/로는	4-10(3)	근거
	(으)로/로 말미암아	6-7(2)	원인이나 이유

주교재로 사용한 연세 한국어 교재의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의사소통적 기능과 문법을 함께 제시한다. 그런데 조사 설명은 초급 단계에서 기본 의미를 중·고급에서는 확장 의미를 다루었는데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가 포함된 덩어리 형태로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2학년과 3학년에는 문법 과목이 따로 있지만 1학년과 4학년에는 문법 과목이 따로 있지 않고 말하기 항목에 포함해 교육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인 2학년에서 조사의 기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어도 고급 단계에서는 조사의 확장 의미[35]와 그들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

35) 설문 응답자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한 결과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원형 의미와 화장 의미에 관련 질문에는 학습자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 설명이 원형 의미인지 확장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어학과의 교수법은 한국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번역 식 수업을 한다. 교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문을 들고 번역하므로 조사들 간의 차이점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36]. 따라서 단순 번역 식 수업보다는 교사가 교재 외 부교재를 적용해서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찾아 삽화나 그림으로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미얀마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원어민과 비슷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동시에 한국어 교육 경력도 풍부한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37]

4. 소결론

본고는 학습자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의 '에, 에서, (으)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류 양상을 보면 학습자들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에서 동일하게 대치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학년 학습자들은 3~4학년 학습자보다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

실험 도구에 따른 오류 형태를 확인해 보면 먼저 조사 '에'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생각하는 바'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행위의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부터 4학년 학습자까지 조사 '에'의 다양한 의

36) 조사 '에, 에서, (으)로'를 학습 시 어려운점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를 하나씩 배울 때는 어렵지 않았지만 조사 세 개를 다 배우고 나서 조사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헷갈리며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7) 현재 한국어학과에서 박사 졸업자 2명, 박사과정 수료생 3명, 박사과정 재학생 2명, 석사 졸업자 7명이 있다.

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조사 ‘에서, 에게, 를, 로, 가, 과’로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에서’로 대치한 오류가 대표적이었다.

다음으로 조사 ‘에서’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1학년 학습자부터 4학년 학습자까지 조사 ‘에서’의 다양한 의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조사 ‘에, 과’를 사용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에’와 대치한 오류가 대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으)로’와 관련한 문항 중에서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생각하는 바’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오류율이 높았다. 학습자들은 대상 조상 조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조사 ‘을, 로써’로 대치하였으며 그중에서 조사 ‘를’로 대치한 오류가 대표적이었다.

1~4학년 학습자들의 오류율을 확인해 보면 1~2학년 학습자보다 3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낮은 양양을 보였지만 4학년 학습자의 오류율이 3학년 학습자보다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양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얀마 한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따르며 문법 항목은 2~3학년에만 필수 과목으로 다루었다가 1, 4학년에는 다루지 않았으며 말하기 과목에 포함하여 학습하였다. 이로 인해 초급 단계인 1학년 학습자는 조사에 대한 인식이 단연히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급 학습자들은 조사 ‘에’의 기본적인 의미인 ‘존재지’의 의미와 조사 ‘에서’의 기본적인 의미인 ‘행위지’의 의미에는 학습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학년 학습자와 3학년 학습자는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접한 조사의 다양한 의미 사용에는 학습이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3학년까지 학습이 향상되었다가 4학년에는 오류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4학년에는 문법 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학습자들이 문법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양상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시 문법 설명이 규칙과 예외를 설명하는 전통적

인 문법 번역 식의 단일한 교수 방법으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 즉 전통적으로 문법 교칙을 가르칠 때 그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규칙으로 제시되며, 그 다음으로 '예외'의 목록이 수반된다. 이런 예외는 그 존재 이유가 원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조사 학습 시 한 가지 문법만 학습이 되어가며 그 후 단계에는 전에 숙지한 의미와 헷갈려 그들 조사 간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얀마어 조사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여러 단계의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미얀마어에 없는 개념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당하여 많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문 응답자들한테 추가 내용인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느냐 질문에는 학습자들은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교재에서 나오는 것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앞에서 제시한 1~4학년 학습자들은 조사 사용 시 발생한 오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습자들은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다양한 의미 사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모국어에서 비롯된 고착화 패턴이 목표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을 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어의 패턴을 더욱 완벽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모국어의 전이를 넘어서야 하며 목표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과정을 조사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적에 따라 초급 학습자는 원형 의미와 그 의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중급 학습자는 확장 의미와 그 의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학습자는 모든 세부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법

지식을 재구성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Ⅳ.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 실제

1.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능력을 길러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에 있다. 한국어 능력에는 다양한 언어 활동, 모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또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서 추구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에 대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문법 능력에 속한다.

모국어의 경우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명시적이지 않지만, 언어 사용을 통해서 귀납한 문법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한국어를 모르면 당연히 한국어 문법을 모른다. 따라서 명시적이나 암시적으로 문법을 학습해야 한다. 조사는 한국어의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주요 요소로서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주는 요소이다. 또한,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점, 이형태가 많다는 점, 생략이 쉽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격 조사 ‘에’와 ‘에서’의 교체 인식은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리 필요한 문법 내용이 아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필수적인 문법 내용이다. 구본관 (2017)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조사 교육은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확장 의미를 교수·학습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 목표는 격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핀 Ⅲ 장의 실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조사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 간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이해 차원과 사용 차원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수·학습의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학습자의 학습 단계도 고려해서 단계별 구체적인 교수·학습 목표를 기술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학습 대상인 미얀마인 한국어 전공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의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먼저 초급 단계에서 조사 '에, 에서, (으)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즉 원형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 의미들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중급 단계는 한국어에 익숙해진 단계이므로 전 단계에 학습하지 못한 더 복잡한 확장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 의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 고급 단계에서는 전체 세부 의미들을 문맥에 따라 파악하여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한국어 격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를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목표

구분		교육 목표
초급 단계	이해 차원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 의미들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사용 차원	'에, 에서, (으)로'의 기본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중급 단계	이해 차원	'에, 에서, (으)로'의 확장 의미를 이해시키고, 그 의미 간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사용 차원	'에, 에서, (으)로'의 확장 의미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고급 단계	이해 차원	'에, 에서, (으)로'의 모든 세부 의미를 문맥에 따라 파악한다.
	사용 차원	'에, 에서, (으)로'의 모든 세부 의미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2.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내용

2.1. 원형 의미 그룹

<표 Ⅳ-2>는『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 그룹의 문법 설명이다. 원형 의미 그룹은 주로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기초 의미들이다.

<표 Ⅳ-2> ‘에, 에서, (으)로’의 교재 문법 설명

에, 에서, (으)로	급	문법과 표현	교재 문법 설명
에	1-1	에 [1]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 person or thing. It is used with ‘있다’, ‘없다’, etc.
		에 가다/오다	When the locative particle ‘에’ is used with the verb ‘가다/오다(go/ come),’ it indicates that the place noun preceding ‘-에’ is the destination.
에서	1-1	에서	It is used with a place noun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n action.
(으)로	1-2	으로/로[1]	This particles used with a noun to show direction. It is followed by verbs such as ‘가다, 오다, 돌아가다(to go back), 돌아오다(to come back), 나가다(to go out), 나오다(to come out)) etc’. When a noun ends in a consonant, use ‘으로’, When a noun ends in a vowel or ‘ㄹ’, use ‘로’.

<표 Ⅳ-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의미 기능과 설명을 살펴보면『연세 한국어 1』에서는 조사 ‘에’의 처소(존재지)의 기능을 ‘있다, 없다’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에 가다/오다’ 표현으

로 ‘방향’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사 ‘에서’의 의미 기능을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며, 조사 ‘(으)로’의 의미를 ‘방향’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며 모두 처소와 관련한 원형 의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사 ‘에, 에서, (으)로’는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 간에도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는 조사의 의미 기능을 부분적인 용법으로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확장 의미 그룹

2.1.1. ‘에’

<표 Ⅳ-3>은『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에’가 들어간 확장 의미 그룹의 문법 설명이다.

<표 Ⅳ-3> ‘에’의 교재 문법 설명

급	문법과 표현	교재 문법 설명
1-1	에[2]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time noun to indicate the of time when the action ot the situation takes place. It is not used with the nouns of tome like ‘언제, 오늘, 내일, 어제, 그저께, 모레’.
1-2	-은/ㄴ 후에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ending of the action in the first clause and the subsequent result in the second clause. Verb stems ending in a vowel take ‘-ㄴ 후에’, an verb stem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은 후에’.
1-2	-기 전에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one action took place before other actions.
2-2	만에	It is used with a time to show the interval of time that has elapsed before the following action

		occurred.
2-2	에다가	It is used with noun to show a target spot or space of an action. It is used only with a transitive verbs like '붙이다, 쓰다, 적다, 넣다, 놓다, 꽂다' and it is interchargable with '에'.
1-1	에 ~쯤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or with noun-counting units to indicate a base of units or calculation. '쯤' attaches to a noun to roughly express the quality, time, or places, etc.
3-1	-는 대신에	It is used when another action was compensated or replaced instead of doing the first action. It is attached to an action verb stem.
4-1	에 의하면	뒤 문장에서 어떤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용된 내용의 주체를 밝힐 때 쓴다.
4-1	에 달려 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 어떤 것에 좌우되다'의 의미로 쓴다.
4-2	축에 들다 는/ㄴ 축에 들다	'축에 들다'는 그 부류에 든다는 뜻이다.
4-2	는/은/ㄴ 김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이용하여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할 때 쓴다.
5-1	에도 불구하고	명하나 명사 구실을 하는 표현에 붙어 앞의 행위나 상태의 결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다르거나 반대의 사실이 결과적으로 위에 올 때 쓴다.
6-1	은/ㄴ 끝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힘들게 한 후에'라는 의미로 뒷 문장에는 그 후에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6-1	는/ㄴ 탓에	주로 부정적인 까닭이니 원인으로 주로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남을 나타낸다.
6-2	는 날엔	앞 문장에서는 극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경고의 내용이나 우려하는 결과가 뒤 문장의 내용으로 온다.
2-2	에 대해(서)	It is used with a noun and shows a performance by possessing a content related to the noun. It is often used as '에 대해서', or '에 대한'.
4-2	-는 바람에	앞 문장이 원인이 되어 뒷 문장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쓴다.
2-2	에 비해서	It is used together with a noun to show a standard of a comparison.
4-1	에 비하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를 판단할 때 쓴다.

5-1	에다(가)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하여짐을 나타내는데 '-에다가-까지'의 꼴로 쓰인다.

<표 Ⅳ-3>에서 살펴본『연세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에'는 '시간'의 의미, '기준'의 의미,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 '원인'의 의미, '더하여짐'의 의미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모두 '처소'의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 기능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이미 기능을 덩어리 형식으로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2. '에서'

<표 Ⅳ-4>는『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에서'가 들어간 확장 의미 그룹의 문법 설명이다.

<표 Ⅳ-4> '에서'의 교재 문법 설명

급	문법과 표현	교재 문법 설명
1-1	에서 ~까지	These particles are used with nouns denoting time or place in order to express the starting point ('에서') and finishing point('까지').
6-2	는다는/ㄴ다는/ 다는 점에서	앞 문장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특성을 말하고'-다는 점에서' 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결론을 내릴 때 쓴다.

<표 Ⅳ-4>에서 제시한 조사 '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작 발생의 동작이 발생한 '시작점'과 '끝점'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된 시간'의 의미만 설명하였을 뿐 다른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1.3. ‘(으)로’

<표 Ⅳ-5>는『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으)로’가 들어간 확장 의미 그룹의 문법 설명이다.

<표 Ⅳ-5> ‘(으)로’의 교재 문법 설명

급	문법과 표현	교재 문법 설명
1-2	(으)로[2]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indicate means, cause, reason, status, etc.
2-1	으로/로	It comes before an action verb indicatong change to express the selection of an exchanging object.
4-1	로 인해	명사에 붙어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4-2	만으로는	단독 보조사 ‘만’에 ‘으로’가 붙은 복합 조사이다. 형사 혹은 명사구에 붙어서 쓴다. ‘겨우 그 정도로는’, ‘다른 것 없이 그것만 가지고는’의 뜻을 뒤에 ‘부족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의 표현들이 온다.
4-2	으로 봐서는	앞에 오는 명사는 후행 문처럼 말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나 기준을 나타내며 그 근거나 기준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쓴다.
4-2	으로는/로는	‘로’에 ‘는’이 결합한 복합 조사로,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5-2	으로/로 인해	조사 ‘으로/로’와 동사 ‘인하다’가 함께 쓰여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6-2	으로/로 말미암아	앞 문장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원인이나 이유로 하여 뒷 문장의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음을 나타낼 때 쓴다.

조사 ‘(으)로’에 관련 교재에서 기술한 의미를 살펴보면 ‘재료, 수단, 방향’의 의미를, 다음으로 ‘원이나 이유’의 의미, ‘조건’의 의미, ‘근거나 기준’의 이미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덩어리 형식으로만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방법

3.1. 전통적인 문법 제시 방법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교사들이 ‘에, 에서, (으)로’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들고 구두로 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초급 학습자의 경우 교사는 대상 조사를 교재에 나와 있는 영어로 설명하거나 모국어로, 중·고급 학습자한테는 목표어나 모국어로 설명한다. 그리고 문법 규칙을 예문과 함께 제시되고 각 규칙에 예외가 있으면 같이 설명한다. 학생들이 문법 규칙을 이해했으면 새 어휘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연습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한다. 마지막으로 문법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만들게 하는 숙제를 시키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3.2.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문법 제시 방법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문법 규칙은 물론 의미까지도 고려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을 설명할 때 연역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남성우 외: 67). 본고에서 ‘에, 에서, (으)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삽화나 그림을 사용해 의미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에, 에서, (으)로’에 대한 원형 의미, 확장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원형 장면과 같은 직관적인 방식이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은 앞장에서 제시한 조사 교육 목표에 맞게 학습자들이 이해 수준도 높고 사용 빈도도 높은 원형 의미부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 ‘에’와 같은 조사를 기본 의미를 정

해서 의미가 확장하는 양상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내면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구본관, 2012:299). 따라서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방안을 위해서 원형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익숙한 교재의 삽화를 활용해서 문법 설명 매개체로 적용하며 학습자들이 삽화를 통해 조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세 한국어』에서 먼저 나오는 '에[1]'는 '처소'의 의미이다. 교재에서 문법 형태는 '에 있어요/없어요'로 제시되었으며, 예문은 '필통에 연필이 있습니다, 꽃에 물을 줍니다'로 삽화는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조사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의미이다. 교재에서 문법 형태는 '에서'로 제시되어 있으며, 예문은 '백화점에서 가방을 삽니다'로 삽화는 [그림 Ⅳ-4], [그림 Ⅳ-5]로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으)로'의 '방향'과 '수단'의 의미이다. 교제에서 문법 형태는 '(으)로'로 제시되어 있으며, 예문은 '어디로 갑니까?', '차로 왔습니다', '수저로 먹습니다' 등 삽화는 [그림 Ⅳ-6], [그림 Ⅳ-7], [그림 Ⅳ-8], [그림 Ⅳ-9]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1] '에'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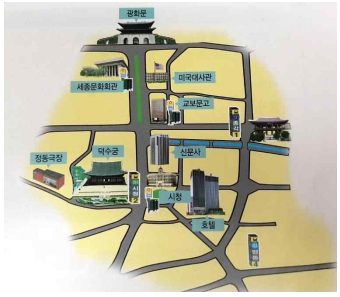
[그림 Ⅳ-2] '에'의 삽화

[그림 Ⅳ-3] '에'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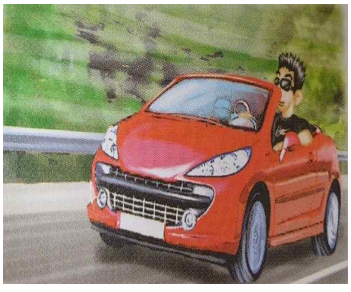
[그림 Ⅳ-4] ‘에서’의 삽화

[그림 Ⅳ-5] ‘에서’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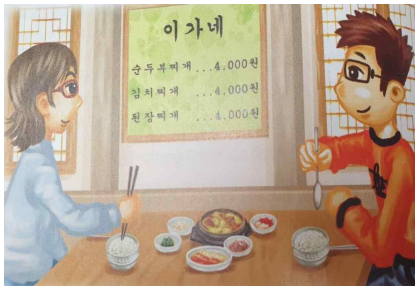
[그림 Ⅳ-6] ‘(으)로’의 삽화



[그림 Ⅳ-7] ‘(으)로’의 삽화



[그림 Ⅳ-8] ‘(으)로’의 삽화



[그림 Ⅳ-9] ‘(으)로’의 삽화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장면을 제시하는 그림 중에서 [그림 Ⅳ-1]은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의 의미, 즉 ‘존재지’의 의미, 다음 [그림 Ⅳ-2], [그림 Ⅳ-3]은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 등을 나타내는 조사 ‘에’의 원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Ⅳ-4]와 [그림 Ⅳ-5]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 즉 ‘존재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의 원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Ⅳ-6]과 [그림 Ⅳ-7]은 ‘(으)로’의 원형 의미인 ‘방향’의 의미, [그림 Ⅳ-8]과 [그림 Ⅳ-9]는 ‘(으)로’의 확장 의미인 ‘수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삽화로 제시되었다.

4.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에, 에서, (으)로’의 교육 실제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조사 사용 양상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아직 조사의 의미를 세세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은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 직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을 중요시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 맞게 조사 ‘에, 에서, (으)로’의 교육 방안을 의사소통식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CLT))[38] 모형을 도입하여 수업 절차를 구성하였다. 남성우 외(2017: 234)에서 인지심리학에 근거한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서 언어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음 <표 Ⅳ-6>의 단계를 거치며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8) 남성우 외(2017: 231)에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기능적 교수법이다. 외국어 학습에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고, 같은 방법으로 학습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며 의미 중심의 교수 활동으로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Ⅳ-6> ‘에’와 ‘에서’의 교수·학습 단계

단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과제 준비	• 교사가 전체 학생들한테 필통,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거시에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본다.(여기에서 이미 학습된 ‘-에 있다’ 표현이 나온다) • 교사는 필통, 지갑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 준다.	•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한다.
과제 설정	• 교사는 서랍, 화분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고 필요한 어휘나 표현들을 써 준다. • 과제의 기능을 그림이나 사진, 삽화 등을 이용하여 칠판에 붙는다. • 과제를 수행할 그룹을 정해주고 역할을 분담한다. 그리고 대화 상대를 바꿔가면서 질문 대답의 형태를 도입할 수도 있다. • 각각의 역할에 따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묻는다.	• 그림이나 사진, 삽화를 보고 과제를 수행할 방법을 생각한다. • ‘에’의 어떤 동작이나 활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와 관련된 듣기 활동을 한다.
과제 수행	• 구성된 그룹별로 대화를 구성하게 한다. • 교사는 각 그룹을 모니터하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 학습자들도 메모하도록 하여 쓰기와 연계시킨다.	• 구성된 그룹별로 대화를 구성한다. • 대화 내용을 메모하여 쓰기와 연계한다.
과제 평가	•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발표를 시키고 발표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한다. • 모범 대화문을 확인 점검한다. • 과제와 관련된 숙제를 준다.	• 자신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확인한다. • 모범 대화문으로 강화한다. • 과제와 관련된 숙제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에’의 구체적인 수업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초급 학습자를 위한 수업 절차

학습 내용	‘에’, ‘에서’
수업 구성	* 1차시(50분) 도입(10분) →제시(10분) →연습(10분) →활용(15분) → 마무리(5분) * 2차시(50분) 도입(10분) →제시(10분) →연습(10분) →활용(15분) → 마무리(5분)
학습 목표	1. ‘에’와 ‘에서’의 원형 의미에 대한 직관을 기른다. 2. ‘에’와 ‘에서’의 원형 의미를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39)
학습자 정보	초급 학습자

39) 설문 응답자에게 추가 인터뷰를 한 결과 ‘에, 에서, (으)로’를 배울 때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면 언제 어렵게 느꼈어요?’ 질문에 학습자들이 조사 하나씩 배울 때 어렵지 않습니다만 모두 배우고 나서 문법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서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으로’도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해가 되는데 방향의 의미로 쓸 때는 ‘에’와 헷갈려서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1교시** (교사 : T, 학생 : S)

구분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인사/ 복습을 통한 유도 (질문/대답)	교사는 '에 있다/없다'를 제시 또는 복습하면서 그 의미를 상기시켜 준다.	삽화나 그림
	삽화를 보면서 말하기	(필통을 보여 주면서) T: 이것이 무엇이에요? S: 필통입니다 T: 그래요. 필통에 무엇이 있어요? S: 볼펜이 있습니다. T: 그해요. 선생님이 무엇을 넣었어요? S: 볼펜을 넣었습니다. T: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필통에 볼펜을 넣었어요. (꽃에 물을 주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무엇을 해요? S: 물을 줍니다. T: 어디에 물울 주어요? S: 꽃을 물을 줍니다. T: 그래요. 꽃에 물을 주어요. 어디에 물을 주어요? S: 꽃에 물을 줍니다. (서류를 주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그 사람이 무엇을 주어요? S: 책을 줍니다. T: 그래요. 서류를 주어요. 누구한테 주었어요? S: 아주머니에 줍니다. T: 그렇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서류를 줍니다.	

		T: 누구한테 서류를 줍니까? S: 아주머니한테 서류를 줍니다.	
제시 (10분)	교사/학생 간 대화 그림을 통한 대화	판서: '에' 유정 명사 +에 (유정 명사는 사람, 동물) 무정 명사 +에게/한테 (무정 명사는 식물) 공대 명사 + 께 (공대 명사는 아버지, 선생님) (상황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다) (학생들 중 한 사람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다) T: __ 씨, 교과서가 있어요? S: 네, 있습니다. T: 책상에 있어요? S: 아니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T: 그래요? 여러분 __씨는 교과서를 어디에 넣었어요? S: 가방에 넣었어요. T: 그래요. __씨는 교과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T: __씨,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S: 아니요, 없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T: 그래요? 고양이에게 밥을 누가 주어요? S: 동생이 고양이에게 밥을 줍니다. T: 여러분, ___ 씨의 고양이에게 누가 밥을 주어요? S: __씨의 동생이 줍니다. T: 그래요. __씨의 동생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요.	
연습 (10분)	짝 활동	짝 활동-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그림을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제시된 표현을 연습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다.	

활용 (15분)	인터뷰	(배운 표현의 내재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제를 주어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짝 활동 : 돌아다니면서 반 친구들한테 질문하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메모하세요.(주요 표현을 판서해 준다) 주요 표현 : __씨는 돈/지갑을 어디에 넣었어요?/ 두었어요? __에 넣었어요./두었어요. __씨 집에 꽃나무가 있어요? 누가 꽃나무에 물을 주어요? __씨 집에 강아지/고양이가 있어요? 누가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어요? 짝 활동이 끝나면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게 한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모법 대화문을 확인해 주고 오류를 수정해 준다.	
마무리 (5분)		숙제: 자신한테 있는 물건이나 동물 등이 있는 자리, 넣는 자리, 그 물건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자기도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글로 써오게 한다.	

*2교시 (교사 : T, 학생 : S)

구분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복습을 통한 유도 (질문/대답)	교사는 '에 있다'를 복습하면서 그 의미를 상기시켜 준다.	삽화나 그림
	삽화를 보면서 말하기	T: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S: 교실에 있어요. T: 교실에서 무엇을 해요? S: 공부를 해요. T: 네,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운동하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S: 운동을 합니다. T: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해요. T: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운동을 해요? S: 밖에서 운동을 합니다. T: 그래요. 밖(강가)에서 운동을 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아주머니는 무엇을 해요? S: 물건을 삽니다. T: 그래요. 물건을 어디서 사요? S: 백화점/시장에서 삽니다. T: 네, 아주머니는 가방을 시장 에서 사요. S: 아주머니는 가방을 시장에서 사요.	

구분	과정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삽화를 보면서 말하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S: 밥을 먹습니다. T: 그래요. 밥을 먹어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S: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T: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S: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제시 (10분)	교사/학생 간 대화, 그림을 통한 대화	판서: '에서' 명사+에서+동작 동사 (Action Verb)(학생들한테 '에'의 의미와 '에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서 의미를 익힌다) (학생 중 한 사람을 골라서 대상으로 삼는다) T: __ 씨,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S: 학생 식당에서 먹어요. T: __ 씨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T: 여러분, __씨는 점심을 어디에서 먹어요? S: __씨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그림을 보여 주면서) T: 아이들이 뭐해요? S: 축구를 해요. T: 어디서 축구를 해요? S: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T: 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S: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연습 (10분)	짝활동	짝 활동 :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그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시된 표현을 연습하게 한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운 조사와 구별할 수 있는 표현도 연습하게 한다.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다.	
활용 (15분)	인터뷰	(배운 표현의 내재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제를 주어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짝 활동 : 돌아다니면서 반 친구들한테 질문하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메모하세요. (주요 표현을 판서해 준다) 주요 표현 : __씨는 어디에서 공부해요? __에서 공부해요. 짝 활동이 끝나면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게 한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모법 대화문을 확인해 주고 오류를 수정해 준다.	
마무리 (5)분		숙제: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하루 일과를 글로 써오게 한다.	

4.2.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수업 절차

학습 내용	'(으)로'의 문법과 표현 복습
수업 구성	* 1차시(50분) 제시(20분) →연습 1(30분) * 2차시(50분) 연습 2(30분)→생성(20분)
학습 목표	3. '(으)로'의 의미에 대한 직관을 기른다. 4. '(으)로'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 간의 차이점을 구별 할 수 있다. 40)
학습자 정보	중·고급 학습자

*** 1교시**

▣ 제시 단계 (20분)

일반 수업의 제시 단계에는 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예문을 읽어 주면서 문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의 수업은 복습 수업이므로 보통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자 한다. 먼저 지난 수업 시간에 숙지한 조사 '(으)로'의 문법과 표현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한테 복습하게 시킨다. 그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한다.

▣ 연습 1. 원형 의미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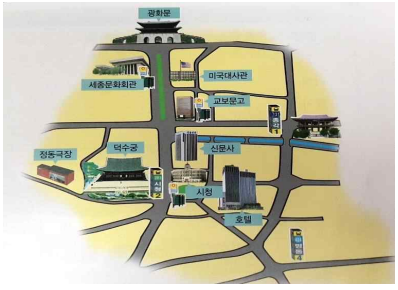
---

40) 설문 응답자에게 추가 인터뷰를 한 결과 '에, 에서, (으)로'를 배울 때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면 언제 어렵게 느꼈어요?' 질문에 학습자들이 조사 하나씩 배울 때 어렵지 않습니다만 모두 배우고 나서 문법 사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서 사용할 때 오류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으로'도 '에'와 헷갈려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보통 연습단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모방하여 모방 연습, 반복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교사와 학생, 그룹과 그룹, 개인과 개인끼리 연습을 하며 문형을 익힌다. 본고에서는 연습단계를 원형 의미에서부터 시작하며 교사는 제시 단계에서 복습한 '에'와 '(으)로'의 의미와 표현 중에서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학습자들이 여러 응답을 듣고 나서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 '첫 번째 의미'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원형 의미에 대해 익혀 준다.

다음으로 교재에 제시된 '(으)로'의 문법 설명을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그림 Ⅳ-6]의 의미는 '(으)로'의 첫 번째 의미로서 '방향'의 의미는 원형 의미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연습을 시킨다. 즉 '(으)로'의 원형 의미는 '위로, 밑으로, 이쪽으로' 등 각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동의 경로를 표시한다는 것을 익혀 준다. 그다음으로 조사 '로'는 인지 주체 자신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험에 대한 삽화를 통해서 익혀 준다. 그리고 [그림 Ⅳ-7]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연습을 시킨다.

[그림 Ⅳ-6] '(으)로'의 원형 의미 장면



[그림 Ⅳ-7] '(으)로'의 원형 의미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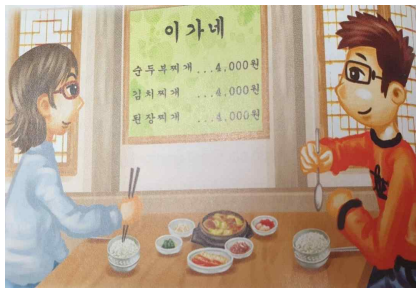
＊ 2교시

▣ 연습 2. 확장 의미 (30분)

'(으)로'의 확장 의미를 연습하기 전에 원형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 확장

의미 연습도 교재의 문법 설명에서 시작한다. 이에 교사는 원형 의미에서 숙지한 '방향'의 의미에서 '수단'의 의미로 확장된 것을 설명한다. 즉 '(으)로'는 이동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으)로'의 의미는 '방향'의 의미에서 '도구'의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을 [그림 Ⅳ-8]을 통하여 학습한다. 다음으로 [그림 Ⅳ-9]를 제시하여 이해하도록 연습을 시킨다.

[그림 Ⅳ-8] '(으)로'의 확장 의미 장면



[그림 Ⅳ-9] '(으)로'의 확장 의미 장면

▣ 생성 (20분)

일반 수업의 경우 생성 단계는 목표 문법의 의미를 잘 숙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연습단계에서 이해한 의미들이 학습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테스트에서 제시한 조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를 접했을 때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사 '(으)로'의 원형 의미인 처소와 관련이 있는 테스트를 먼저 연습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테스트로 연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을 그룹별로 서로의 직관에 관해서 대화하게 시켰다. 그 대화 내용을 메모하여 발표를 시켰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모범 대화문을 확인해 주고 교사의 직관과 다를 때 의견을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Ⅴ. 결론

한국어 조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다. 외국인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국어 문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교육에서 전통적인 문법 설명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에'와 '에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질문이 나왔지만, 이 질문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 한국 조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왜 그 자리에 조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초급에서 규칙과 예외를 알려주는 수준으로 문법이 끝났고, 중·고급에서도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덩어리 방식으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 교육에서 조사의 세부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인지적 접근법을 적용한 한국어 조사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 자체의 규칙보다는 언어학습을 무한한 문장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규칙의 내재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행위를 하려면 규칙 체계를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사 체계를 제시하고 대조하였다. 그다음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기초하여 원형 의미, 확장 의미, 동기화와 의미망을 이론을 검토하였다. 원형 의미는 다의적인 의미를 대표하는 의미이며, 개념적이므로 언어로 사용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리는 의미이다. 원형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동기화라고 하며, 동기화된 의미들은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그 이론들이 학습자들이 다의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미얀마어 조사를 대조하였다.

Ⅲ장에서는 조사 '에, 에서, (으)로'를 대상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조사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법성 판단 테스, 오류 수정 테스트와 번역 테스트’ 등 실험 도구에 따른 상용 및 오류 양상, 숙달도에 따른 사용 및 오류 양상으로 실시하여 그들의 조사 사용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4학년 학습자 대다수는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들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미가 유사하거나 형태가 유사한 다른 조사로 대치하거나, 목표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모국어에는 사용이 다른 양 언어의 인식 차이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앞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격 조사 중 ‘에, 에서, (으)로’의 다양한 의미 사용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교육 목표를 미얀마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년별 이해 차원과 사용 차원의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다음으로 Ⅲ장에서 논의된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오류 양상 및 오류를 바탕으로 조사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로 구별해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에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내용에 따라 초급 한계에서 원형 의미와 그들 간의 유사한 의미를, 중·고급 단계에서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나 도식을 사용하여 단계별 수업 절차를 세워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격 조사 ‘에, 에서, (으)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인식·사용 양상을 추출하였으며, ‘에, 에서, (으)로’의 세부 의미들과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교칙과 예외가 아닌 교육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식 조사에서 ‘에, 에서, (으)로’의 예문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과 실제 수업을 통해서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참고문헌

계은진·김영주(2019),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인지: 자기 조절 읽기 연구, 이중언어학회, 77, 37-64쪽.

고석주(2000), 한국어 조사의 연구-‘가’와 ‘를’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2012),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학습자와 교수자의 매타적 인식 강화를 중심으로-교육 연구 30, 255-313쪽.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지은(1998),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1, 361-393쪽.

김령(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호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측정을 위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발의 쟁점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41, 417-455쪽.

김효신(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부사격 조사 ‘(으)로’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인지언어학회, 4, 65-75쪽.

남성우 외(2017),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맹경흠(2016), 현대 한국어 조사 에의 인지의미론, 한국어연구, 41, 325-366쪽.

박미형(2014),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정운(1999), 한국어 도구 격 조사의 다의어 체계. 언어, 24, 405-425쪽.

벌러러(2017),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백봉자(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한국어, 제1～6권, 문진미디어.
서정숙(2013),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 맥락에 기초한 ‘은/는’, ‘이/가’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나랑(2018),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격 조사 사용 연구-‘이/가, 을/를, 에/에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솜밋두황띠(2017),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 조사 교육 연구- ‘주격, 목적격, 부사격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알레파이 멘나탈라(2013), 아랍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 조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야타나 산다 윈(2007), 한국어와 미얀마어 격 조사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명희 외(20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 집문당.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2002),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8), 연세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연세 한국어 5,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연세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4), 연세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윤단비(2017), 말레이시아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동(1981ㄱ),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
이기동(1981ㄴ), 전치사 AT의 의미· ENGLISH TEACHING, 22, 31-42쪽.

이명자(2017), 교체를 활용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수미(2016),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지영(1996), 한국어 조사의 교수 모형,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찬규·고예진(2013),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에’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연구, 어문론집, 56, 485-511쪽.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2006), 인지어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1-29쪽.

임지룡(2020),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설명력,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15,7-51쪽.

임지룡·정병철(2009), 의미망 분석과 다의성 판정의 원리, 담화와 인지, 16, 195-216.

임지룡 외(2014), 문법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임홍빈·홍경표·장숙인(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장걸민(2017), 한국어 조사 ‘에’와 ‘에서’의 대치 오류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병철(2010ㄱ),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조사 ‘에’의 통합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55, 275-304쪽.

정병철(2010ㄴ),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조사 ‘-로’의 통합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215-243쪽.

정병철(2012), 인지언어학으로 보는 학교 문법의 품사, 담화와 인지, 19, 107-131쪽.

정수진(2011), 국어 공간어의 의미 확장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수진(2011), 인지언어학에 기초한 한국어 공간 개념 부사격 조사의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어문학, 112, 79-110쪽.

조재형(2014),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비교 고찰, 언어 39, 1021-1041.

지혜영(2014),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습득 연구-'에, 에게, 에서, (으)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예빈(2018), 이동 사전과 한국어 조사 '에', '로', '를'이 인지언어학적 연구-영상 도식을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캉 위에(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동진(2006), 한국어 조사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허용(2001), 부사격 조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접근, 이중언어학, 19, 365-390쪽.

허용(2002), 한국어 교수-학습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언어학적연구, 언어와 언어학 30, 157-174쪽.

허용(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홍고은(2018), 인지적 접근법에 의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에', '에서', '(으)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Brown, H, D.(1994), *Principal of Language Learining and Teaching(3r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Evans, V.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rics: *An Intorduca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인지언어학 기초. 임지룡·김동환 옮김(2008).

Haiman, John(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540.

Haiman, John(1980), *Natural Syntax*, Can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ne, Bernd(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문법의 인지적 기초. 이성하·구현정 역(2004), 박이정.

Richards Jack C. & Rodgers Theodore S. (2017), 언어교육의 접근법과 교수법 3판. 전병만·오준일·김영태·안병규·오윤자 옮김. 한정록.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Littlemore Jeannette(2012), 인지언어학과 왼국어 교수법. 김주식·김동환 옮김. 소통.(원서 출판 2009)

John Okell(1994), Burmese :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ry Style*, Southeast Asia Publication.

John Okell & Anna Allott(2001), *Burmese/Myanmar Dictionary of Grammatical Form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Khin Minn(2018), *Teaching in Myanmar Grammar*, Myanmarsar commission Press.

Mathias Jenny and San San Hnin Tun(2016), *Burmese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Ministry of Education(2008), *Manmar Dictionary*, Nay Linn Press.

Ministry of Education(2008), *Manmar Grammar Book*, University Press.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Grammar*, University Press.

Myint Soe(1999), *A Grammar of Burmese*, University of Oregon Press.

Tyler, Andrea. & Evans(2004),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anda Linn(2017),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오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록>

본 조사는 한국어 조사 '에, 에서, (으)로)'에 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1쪽에서 한국어 학습 사항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쪽에서는 한국어 조사 '에, 에서, (ㅇ)로'가 사용된 문장들을 안내에 따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약 6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어 결과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딴다죠

[실험 설문지]

1부 ※인적 및 학습 사항

성별 : 남자□ 여자□

나이 : 18대□ 20대□

학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 없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기능이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법

※ 다음 조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① 격 조사(이/가, 을/를, 에, 에서, (으)로, 등)

② 보조사 (은/는, 만, 밖에, 조차, 등)

③ 접속 조사 (과/와, 하고, (이)며, 등)

※ 다음 격 조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① 주격 조사(이/가)

② 목적격 조사(을/를)

③ 관형격 조사(의)

④ 보격 조사(이/가 되다)

⑤ 서술격 조사(이다)

⑥ 부사격 조사(에, 에서, 에게, (으)로)

⑦ 호격 조사(아/야)

※ 여러분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무엇입니까?

① 기능 중심(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② 문법 중심

③ 짝 활동

④ 독학

⑤ 기타(　　)

※ 교사가 문법을 설명하는 데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미얀마어로만 설명하는 것

② 미얀마어로 설명하다가 필요한 경우 영어로 섞어서 설명하는 것

③ 한국어로만 설명하는 것

④ 한국어로 설명하다가 필요한 경우 미얀마어로 섞어서 설명하는 것

⑤ 한국어로 설명하다가 필요한 경우 영어로 섞어서 설명하는 것

※ 교사가 문법을 설명하는 데 여러분이 선호하는 설명법이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만 설명해 주는 것

②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만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

③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외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

④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외 필요하면 그림이나 행동으로 설명해

주는 것

※ 여러분의 모국어(미얀마어)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②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다.

③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④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다.

⑤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제2부 ※ 격 조사 '에, 에서, (으)로' 교육 연구에 관한 인식 조사

I (A).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법성 판단 테스트)

(1) 교실(　　) 학생들이 있어요.
① 이　② 을　③ 에　④ 에서

(2) 저는 제주도(　　) 가보고 싶어요.
① 에　② 가　③ 로서　④ 에서

(3) 철수는 화분(　　) 물을 주었다.
① 에게　② 을　③ 에　④ 으로

(4) 내일부터 학교(　　) 다닐 거예요.
① 를　② 에　③ 에서　④ 에게

(5)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　　) 만나기로 하였다.
① 으로　② 을　③ 에서　④ 에

(6) 서울(　　) 몇 시에 출발했어요?

① 에　② 에서　③ 을　④ 부터

(7) 집(　　) 학교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① 에　② 을　③ 에서　④ 부터

(8) 나무 위(　　) 새들이 노래를 불러요.

① 에　② 가　③ 를　④ 에서

(9) 사무실은 이 길(　　) 가십시오.

① 에　② 에서　③ 을　④ 로

(10) 그 버스는 시청(　　) 해서 갑니다.

① 을　② 에서　③ 으로　④ 부터

Ⅰ (B). 다음 문장을 읽고 조사가 틀린 것을 고치십시오.
(오류 수정 테스트)

(1) 냉장고는 우유가 없어요.

----------.

(2) 식당에서 사람이 많아요.

---------- ------.

(3) 여기를 이름을 쓰세요.

----------.

(4) 미선이는 서울대학교로 입학했어요.

----------.

(5) 아야코 씨는 일본으로 왔습니다.

----------.

(6)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7) 미선 씨는 이 물건을 시장부터 사 왔습니다.

----------.

(8) 그는 한국에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

(9) 나는 부산에 떠났어요.

---.

(10) 한국을 해서 일본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

Ⅱ (A).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법성 판단 테스트)

(1) 이 약은 감기 ( ) 좋아요.
① 에 ② 가 ③ 로 ④ 를

(2) 모든 것은 생각하기( ) 달려 있어요.
① 를 ② 가 ③ 로 ④ 에

(3) 국물( ) 밥을 말아 먹으면 더 맛있다.
① 과 ② 에 ③ 에서 ④ 을

(4) 포유류( ) 무엇이 있지?
① 에게 ② 가 ③ 에서 ④ 에

(5) 우리 학교( ) 이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① 를 ② 에서 ③ 에 ④ 로

(6) 고마운 마음( ) 드리는 말씀입니다.
① 으로 ② 과 ③ 부터 ④ 에서

(7) 그는 회장( ) 뽑혔다.
① 을 ② 에게 ③ 으로 ④ 이

(8) 얼음이 물( ) 변했다.
① 이 ② 로 ③ 처럼 ④ 을

(9) 그와 내일 다시 만나기( ) 약속했어요.
① 에 ② 로 ③ 로써 ④ 조사가 필요하지 않음

(10) 그는 나를 바보( ) 여겼다.
① 를 ② 와 ③ 로 ④ 로써

Ⅱ (B). 다음 문장을 읽고 조사가 틀린 것을 고치십시오.

(오류 수정 테스트)

(1) 동생은 매일 아침으로 운동한다.

---.

(2) 나는 하루는 두 번씩 세수한다.

---.

(3) 그는 요란한 소리로서 잠을 깼다.

---.

(4) 마리아는 칼로 손을 베였어요.

---.

(5) 한국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맛이 있어요?

---.

(6) 내가 먹었던 과자 중 이 제품이 맛은 제일이다.

---.

(7) 이 안경은 유리를 만들어서 무겁다.

---.

(8) 올해에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9) 그 사람은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바쁘다.

---.

(10) 시험 시간을 한 시간에 정했으니 일찍 오세요.

---.

III. 다음 문장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번역 테스트)

(1) ရွေတိုဂုံစေတီသည် ရန်ကုန်မြို့တွင် ရှိသည်။

---.

(2) မိဘတွေက နိုင်ငံခြားမှာ နေတယ်။

---.

(3) ပျားများသည် ပန်းပင်ထက်**ပေါ်** ပျံဝဲနေသည်။
---.

(4) ဒီနေ့ ဈေး**ကို** မသွားဘူး။
---.

(5) ကလေးများသည် တိရိစ္ဆာန်ရုံ**သို့** ရောက်သောအခါ အလွန် ပျော်ကြသည်။
---.

(6) အမေသည် သားကို အိမ်ရှေ့**က** စောင့်သည်။
---.

(7) မင်းစိုးသည် ဘူဆန်**မှ** ပြန်လာသည်။
---.

(8) အဖေသည် မနက်တိုင်း ပန်းခြံ**ထိအောင်** လမ်းလျှောက်သည်။
---.

(9) ဇရာပတီမြစ်သည် မြောက်ဘက်မှ တောင်ဘက်**သို့** စီးဆင်းသည်။
---.

(10) စာမေးပွဲဖြေသောအခါ ဘောပင်**ဖြင့်**ရေးပါ။
---.

(11) မတ်လ**မှာ** မြန်မာပြည်သွားမယ်။
---.

(12) တစ်လ**ကို** နှစ်သိန်းလောက်ရတယ်။
---.

(13) မိုးသောက်ယံ**သို့** ရောက်ပြီ။
---.

(14) အိမ်မှာ မနေ့**က** ဟင်းမချက်လို့ ပေါ်စားခဲ့တယ်။
---.

(15) ဆရာသည် ကျောင်းသားများအထဲ**မှ** တစ်ယောက်ကို အတန်းမှူးအဖြစ် ရွေးချယ်လိုက်သည်။
---.

(16) ကျောက်မျက်ရတနာတို့**တွင်** စိန်သည် အမာဆုံးဖြစ်သည်။
---.

(17) ယူမီသည် ည ၇ နာရီမှ မနက် ၂ နာရီ**ထိအောင်** စာဖတ်သည်။
---.

(18) ရေလုပ်သားသည် ရေအောက်၌ တစ်နာရီ**တိုင်အောင်** နေနိုင်သည်။
---.

(19) ဇပြီလမှ မေလ**အထိ** သည် ကျောင်းပိတ်ရက်ဖြစ်သည်။
---.

(20) သူသည် နှလုံးရောဂါ**ဖြင့်** ကွယ်လွန်သည်။
---.

Abstract

A Study on Korean Particles Education for Myanmar Learners for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Focus on - ey, -eyse, -ro-

Thanda Kyaw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f Myanmar learners are well aware of the various meaning of Korean particles '-ey, -eyse, -ro', and also examines their usage and error patterns, then provides effective Korean particles teaching. Korean and Myanmar are similar in grammar pattern, so, Myanmar learners have easier than other language learners. However, Myanmar students often make errors when using Korean particles, especially in use of '-ey, -eyse, -ro.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Korean particles teaching is focuses on the main meaning in the beginner level, after the intermediate level, that is complex or constrained new particles are being learned in lump expression. As a

result, learner continue to misuse particles learned at the beginner stage without repeated training.

The particles '-ey, -eyse, -ro' is the most basic grammatical element presented from the beginning stage of Korean language learning, but due to the complexity of one form having various meanings causes foreign learners to make a lot of errors in the learning process. Also, it is sometimes difficult for non-native teachers to explain why that particle is written in that situation, and sometimes they are confused about which particle to use and when to use i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approach the particles by meaning. In other words, if education is conducted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s Perspective, which allows education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grammatical rules, but also the meaning, it is expected that Myanmar learners will be able to learn the burden of using particles with various meaning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pare an effective educational plan for Myanmar learners.

In chapter I,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first set, and the preceding studie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were described. In chapter II,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particles were compared with Myanmar particles as a theoretical premise for particle education research on '-ey, -eyse, -ro', a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ere revealed. Prototype meaning, proto-scene, motivation, and semantic networks, which are major theories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are used to analyze the original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of Korean and Myanmar particles and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chapter Ⅲ, in order to find out the particle usage patterns of Myanmar learners, three types of tests were conducted for 200 learners: a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an Error Correction Test, and a Translation Test. In the test, by focusing on the original meaning and the extended meaning of the particles '-ey, -eyse, -ro', the patterns and causes of the learners' particles errors were investigated by test and proficiency level. In chapter Ⅳ,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test and proficiency level, this paper proposes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functions of Korean particles, i.e., the original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and establish the particle teaching method applying Cognitive Linguistic Prespective.

Key Words : Korean particle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original meaning, extended meaning, Korean Language Learner

Student Number : 207-38807